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서울숲의  
미시담론 연구  
- 장소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icro-Discourse about  
Seoul Forest in Personal Media  
- Focused on Sense of Place -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 제 이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서울숲의  
미시담론 연구

- 장소감을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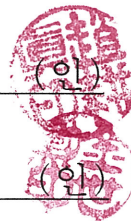
지도교수 성 종 상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 제 이

이제이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위 원 장 조 경 진



부위원장 김 세 훈



위 원 성 종 상



#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서울숲의

## 미시담론 연구

- 장소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 제 이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및 초빙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6월

위 원 장 조 경 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 위 원 장 김 세 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위 원 김 경 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초빙심사위원 김 연 금 (조경작업소 울 대표)



##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서울숲의 미시담론 연구

—장소감을 중심으로—

이 제 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지도교수 : 성 중 상

---

본 연구는 서울숲 방문객이 갖는 서울숲에 대한 감정 및 의견 등을 1인 미디어를 통해 읽어냄으로써 서울숲에 대한 일반인의 구체적인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미디어 매체의 발달은 인류 역사 이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과 범위, 영향 등에 있어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자신의 생각 및 의견을 가상공간에 자유롭게 게재한다는 것은 블로그, 트위터 등과 같이 개인화된 공간 즉, ‘1인 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이다.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1인 발언’의 무게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1인 미디어’가 자리하고 있다.

조경 분야에서도 이러한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전문가에 의해서만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운영되던 예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소통적 설계 및 운영 방식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원에 대한 더 큰 애착과 관심을 갖게 하였다. 많은 도시공원 중 이러한 변화된 설계 경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서울숲이다. 게다가, 이곳에서의 활발한 시민 참여는 장소에 대한 의견과 시각을 자신의 의지로 1인 미디어에 기록하는 행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대상지를 서울숲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의 개입 없이 이용자의 공원 이용에 관한 실질적인 의견들이 오가는 1인 미디어에서 서울숲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일반인의 미시담론을 찾고자 하였다. 1인 미디어를 매개로 한 일반인의 미시담론 형성 배경과 요인 등을 해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법을 선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담론분석을 위주로 하여 1인 미디어에 게시된 미시담론을 시계열적으로 고찰하였다.

도출한 미시담론의 함의는 두 가지로 읽어 낼 수 있었다. 첫째는 경험 요소에 따른 장소감 읽기이고 둘째는 서울숲을 이루는 각 공간 및 대상에 따라 나타나는 장소감 읽기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중심에 두고 진행하였으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숲이 조성된 초기부터 현재까지 총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생산된 일반인들의 미시담론을 파악하였다.

서울숲 조성 초기에는 사회·정치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은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전개기에는 서울이라는 도시 내에 녹색 경관이 유입되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소감이나 공원 내 울창해진 수목에 대한 경관의 변화에서 오는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국내외 타 공원과의 비교에 따른 감정이 반영된 복합적 담론을 형성하였다. 형성기에는 이전보다 더 이용자적인 입장에서 서울숲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서술한 것으로 서울숲 내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이용자의 참여도, 만족도 증가에 따른 이용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숙기에는 이용자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형성되는 미시담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공원의 역할이 문화를 담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서울숲을 자신만의 언어로 형용하는 이 시기의 이용자들은 서울숲이라는 공간을 장소로 받아들여 장소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일반인의 미시담론을 통해 실제 이용 주체가 각 시기별로 서울숲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 담론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보다 심층적인 담론을 해석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미시담론 중에서 장소감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방문 동기 및 목적, 체험된 대상, 주체의 소감 및 평가와 같은 경험 요소에 따른 장소감 읽기와 서울숲의 각 공간을 대상으로 형성되는 장소감 읽기를 병행하여 이용자의 다층적인 장소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견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후에 공간별 이용후 평가를 내리거나 타 공원을 설계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전문가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이용자의 견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출된 장소감을 종합하여 유발 요인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가시적 경관으로부터의 장소감, 인간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장소감, 다른 장소와의 비교를 통한 장소

감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장소감이 미시담론으로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인의 미시담론과 전문가 담론의 비교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담론과 서울숲의 가치를 접할 수 있었으나 도시공원의 실질적 이용주체인 ‘개인’ 과 ‘서울숲’ 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전문가 담론과 달리,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일반인의 미시담론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개별 주체들이 생산하는 상호작용, 경험, 이야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고찰을 통해 이용자가 장소를 어떻게 재현하고 이해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일반인과 전문가의 장소감에 대한 비교의 결과, 장소에 대한 감정 서술이 도시공원에 대한 담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과 1인 미디어가 담론을 구성하는 장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 담론 뿐 아니라 개인들의 장소감 또한 현대 도시공원에 대한 담론 중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본 연구는 1인 미디어 표본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 개입으로 인해 실증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1인 미디어를 이용하는 계층에만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전(全) 계층의 이용자를 아우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전유물로만 다루어지던 도시공원에서 이용자들이 부여한 다의적이고 다층적인 장소감을 파악하는 것은 변화와 그 과정을 중시하는 최근의 설계 경향과 부합하며 특히, 공원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소통적 방법을 모색하는 조경 분야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주요어 : 1인 미디어, 담론분석, 미시담론, 장소감, 이용자참여, 서울숲

■ 학 번 : 2011-23951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 대상지 고찰 .....	7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	11
1. 연구의 방법 .....	11
2. 분석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	13
3. 연구의 흐름도 .....	15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착안점 .....	16
1. 선행연구 고찰 .....	16
2. 연구의 착안점 .....	19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의 틀 .....	20
제1절 개인의 표현 수단, 1인 미디어 .....	20
1. 1인 미디어의 개념 .....	20
2. 1인 미디어의 특징 .....	22
3. 1인 미디어 연구의 사회적 의미 .....	25
제2절 1인 미디어에 형성된 담론 .....	27
1. 담론과 미디어 담론 .....	27
2. 미시담론의 장으로서 1인 미디어 .....	29
제3절 1인 미디어로 포착한 장소감 .....	31
1. 공간과 장소, 장소성 .....	31
2. 1인 미디어로 포착한 장소감 .....	32
제4절 연구의 틀 .....	36

제3장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서울숲의 미시담론 분석 .....37

제1절 서울숲의 미시담론 개관 .....37

제2절 시기별 서울숲 미시담론의 변화 .....39

1.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39
2. 공원경관의 변화 단계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42
3. 시민의식 성장에 따른 참여도 증가 .....45
4. 문화적 가치를 담는 도시공원의 역할 변화 .....49

제3절 소결 .....53

제4장 서울숲 담론을 이루는 장소감 해석 .....56

제1절 장소감 읽기의 관점 .....56

1. 경험 요소에 따른 장소감 읽기 .....57
2. 서울숲의 공간별 장소감 읽기 .....70

제2절 1인 미디어에서의 서울숲에 대한 장소감 유형화 .....83

1. 가시적 경관으로부터의 장소감 .....84
2. 인간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장소감 .....86
3. 다른 장소와의 비교를 통한 장소감 .....89

제3절 미시담론으로서 장소감의 의미 해석 .....91

1. 전문가 담론과의 비교를 통한 장소감의 의미 고찰 .....91
2. 미시담론으로서 장소감이 갖는 의미 .....101

제5장 결론 .....103

제1절 연구의 결론 .....10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107

1. 연구의 한계 .....107
2. 연구의 의의 .....108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 표 목차

[표1-1] 서울숲 개요 .....	8
[표2-1] 장소성과 장소감 .....	33
[표3-1] 정치적 성과(물)로서 서울숲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사례 .....	40
[표3-2] 서울숲 조성 초기(2005-2006년)에 형성된 미시담론 사례 .....	41
[표3-3] 외국의 도시공원과 서울숲을 비교한 사례 .....	42
[표3-4] 첫 방문과 재방문 시의 비교를 통한 미시담론 사례 .....	44
[표3-5] 시민의식의 성장에 따른 서울숲의 시민참여 사례 .....	46
[표3-6] 형성기(2009-2010년)에 형성된 미시담론 사례 .....	47
[표3-7] 형성기(2009-2010년)에 형성된 ‘숲속길’에 대한 장소감 사례 .....	48
[표3-8] 도시공원의 변화된 역할을 보여주는 게시물 사례 .....	50
[표3-9] 성숙기(2011-2013년)에 형성된 미시담론 사례 .....	51
[표3-10] 장소로서의 서울숲을 보여주는 서술 사례 .....	52
[표4-1] 블로그에 나타난 서울숲 방문 동기 및 목적 .....	57
[표4-2] 나들이 및 산책을 목적으로 방문한 블로거의 장소감 사례 .....	58
[표4-3] 블로그에 나타난 연도 별 소감 및 평가 사례 .....	65
[표4-4] 방문 동기 및 목적을 드러낸 트위터 사례 .....	67
[표4-5] 꽃사슴을 체험한 이용자의 트윗 사례 .....	68
[표4-6] 서울숲에 대한 소감 및 평가를 서술한 트위터 사례 .....	69
[표4-7] 군마상에 대한 장소감 사례 .....	71
[표4-8] 바닥분수에 대한 장소감 사례 .....	72
[표4-9] 거울연못에 대한 장소감 사례 .....	73
[표4-10] 조각정원에 대한 장소감 사례 .....	74
[표4-11] 거인상에 대한 장소감 사례 .....	75
[표4-12] 숲속길에 대한 장소감 사례 .....	76
[표4-13] 생태숲과 꽃사슴에 대한 장소감 사례 .....	78
[표4-14] 보행가교에 대한 장소감 사례 .....	79
[표4-15] 갤러리 정원에 대한 장소감 사례 .....	80
[표4-16] 곤충식물원에 대한 장소감 사례 .....	81
[표4-17] 습지생태원에 대한 장소감 사례 .....	82
[표4-18] 가시적 경관으로부터의 장소감 사례 .....	85
[표4-19] 인간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장소감 사례 .....	86

[표4-20] 서울숲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낸 게시물의 댓글 사례 .....	87
[표4-21] 서울숲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낸 게시물 사례 .....	88
[표4-22] 같은 비교 대상에 대해 다른 장소감 서술한 사례 .....	89
[표4-23] 다른 장소와의 비교를 통한 장소감 사례 .....	90
[표4-24] 전문가의 운영·관리 담론과 관련된 미시담론 사례 .....	93
[표4-25] 전문가의 공원문화 담론과 관련된 미시담론 사례 .....	95
[표4-26] 전문가의 설계 담론과 관련된 미시담론 사례 .....	97
[표4-27] 전문가의 생태·환경 담론과 관련된 미시담론 사례 .....	100

## ■ 그림 목차

[그림1-1] 경마장과 골프장으로 이용되던 독섬의 모습 .....	8
[그림1-2] 연구의 흐름도 .....	15
[그림2-1] 전 세계 SNS 이용자 수 .....	21
[그림2-2] 1인 미디어와 대중매체의 소통 방식의 차이 .....	25
[그림2-3] 담론, 미디어 담론, 1인 미디어 담론의 관계 .....	30
[그림2-4] 연구의 틀 .....	36
[그림3-1]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배경 .....	37
[그림3-2] 미시담론의 형성 배경 및 시계열적 변화 .....	55
[그림4-1] 2006년에 작성된 블로그의 체험 대상 : 보행가교 .....	59
[그림4-2] 2008년에 작성된 블로그의 체험 대상 : 생태숲의 꽃사슴 .....	59
[그림4-3] 2010년에 작성된 블로그의 체험 대상 : 조각정원 .....	60
[그림4-4] 2010년에 작성된 블로그의 체험 대상 : 무장애놀이터 .....	60
[그림4-5] 2012년에 작성된 블로그의 체험 대상 : 숲속길 .....	61
[그림4-6] 2006년 블로그에 서술된 체험 대상 .....	62
[그림4-7] 2008년 블로그에 서술된 체험 대상 .....	62
[그림4-8] 2010년 블로그에 서술된 체험 대상 .....	63
[그림4-9] 2012년 블로그에 서술된 체험 대상 .....	63
[그림4-10] 이용자들이 트위터에 게시한 ‘꽃사슴’의 이미지들 .....	68
[그림4-11] 이용자가 게시한 숲속의 빈터 이미지 .....	77
[그림4-12] 서울숲에 대한 장소감 유형화 .....	84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는 가장 필수적인 행위이다.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물 즉, 미디어(media)의 발달은 인류 역사 이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과 범위, 영향 등에 있어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의 진화가 인간이 가진 커뮤니케이션의 욕구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하여 충족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 및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자신의 생각 및 의견을 가상공간에 자유롭게 게재한다는 것은 블로그(blog), 트위터(twitter) 등과 같이 개인화된 공간 즉, ‘1인 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자신만의 정보를 생산하며 이를 타인과 공유한다. 다양성을 중시하고 개체에 대한 주목이 커진 현대사회에서는 ‘1인 발언’의 무게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1인 미디어’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미시담론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우리 시대의 화두에 발맞추어 거대담론만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적 시각이 미시담론으로 옮겨가는 현상(김기봉, 2008:55)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조경 분야에서도 이러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sup>1)</sup> 특히, 전문가에 의해서만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운영되던 예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조성부터 운영·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현재의 소통적 설계 및 운영 방식은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공원에 대한 더 큰 애착과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이것은 능동적인 이용과 경험을 가능하게 하여 단순히 물리적 범위로만 인식되던 ‘공간’ 으로서의 공원을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장소’ 로 받아들이도록 해준다. 이용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던 곳에 감정을 이입하고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그 장소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갖게 된다. 지리학자 렐프(Relph)와 이-푸투안(Yi-Fu Tuan)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이를 장소감이라 칭하였고, 장소에 대한 정체감, 친근감을 갖는 것이라 정의하였다.<sup>2)</sup>

이러한 장소감을 공유하고자 시민들은 다시 미디어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전의 공원의 웹사이트와 같은 공공적 매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매체에 온전히 자신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기록한다. 정보를 얻고 의견을 개진하던 미디어 이용은 자신을 표현하고 노출하기 원하는 현대인의 특성과 결합하여 개인적인 공간, 즉 1인 미디어의 이용으로 연결된 것이다. 장소감은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와 의견, 감정, 이야기 등이 결합된 형태로 1인 미디어를 통해 넓고 길게 전달되고 있다(Mitchell, 1995:160). 이처럼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이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발신하는 우리 사회의 정보소통 주체가 된 점(김관규 외2, 2009:20-1)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공유하는 장소에 대한 감정, 느

---

1)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 중 길동생태공원, 남산공원, 독립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서울호수공원, 서울대공원, 서울숲, 서울창포원, 선유도공원, 시민의 숲,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중랑캠핑숲, 천호공원 이하 15개 공원을 대상으로 통합웹사이트(<http://parks.seoul.go.kr>)를 운영하고 있다. 각 공원의 웹사이트에는 Q&A와 이용후기를 적는 게시판이 있어 이용자들이 공원에 대한 문의·건의 및 이용후기를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최근(2013.02.14.)에는 모바일 웹사이트(<http://m.parks.seoul.go.kr>)를 오픈하여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공원 소식을 접하고 건의사항 및 이용후기를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2) Edward Relph 의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1976)와 Yi-Fu Tuan의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참고.

낌 등을 읽어낸다면, 현대 도시공원에 대한 일반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1인 미디어에 게시된 이용자들의 생각, 의견 등은 시민들이 특정 도시공원에 대해 갖는 장소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이 된다. 전문가의 다루어지던 도시공원에서 이용자들이 부여한 다층적인 장소감을 파악하는 것은 도시공원에 대한 미시담론을 파악하는 것과 같으며, 변화와 그 과정을 중시하는 최근의 설계 경향과 부합한다. 특히, 본 연구는 공원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적 방법을 모색하는 조경 분야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저간의 공원 조성 방식에 대한 대안성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공원은 더 이상 사람이 이용하거나 감상하는 식의 일방적인 관계의 장이 아니다’ 라고 한 성종상(2002)<sup>3)</sup>의 말처럼 공원이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인간은 수동적으로 이용하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이용자들의 장소감을 살펴봄으로써 현장에서 알 수 없었던 그들의 생각을 읽어낸다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이용자 참여를 발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보는 또 다른 이용자가 새로운 경험과 의미를 생산해 낼 수 있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인간과 공간 간의 새로운 관계와 반응을 생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인식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 1인 미디어의 이용이 활성화 되었으며 공간에 대한 정보나 경험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하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인 미디어를 이용자의 생각 및 의견 등이

---

3) 성종상(2002), “선유도공원: 다시 우리 곁으로 온 섬, 선유도”, 『환경과 조경』 170호:55.

여과 없이 드러난 공간이라 상정하고, 1인 미디어에 이용자들이 도시공원을 이용하면서 혹은 이용한 후에 부여한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1인 미디어가 도시공원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생산되는 장소감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그것이 도시공원에 대한 담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한 출발점이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미디어와 미시담론, 장소감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에 개개인이 기록하는 내용들이 도시공원에 대한 담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도시공원에 대한 개인들의 담론 즉, 미시담론의 시기별 형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 둘째, 미시담론 중에서 이용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조정공간을 대표하는 도시공원에 대해 일반인이 기록하는 장소감을 읽어낸다. 이는 전문가가 설계과정에서 부여한 장소적 의미를 이용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일방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장소감’이라는 틀로 표출한 이용자의 의견을 읽고 이용자가 공간에 대해 갖는 정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셋째, 일반인의 미시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배경 및 요인을 도출하고, 미시담론을 전문가 담론과 비교함으로써 1인 미디어를 통해 도시공원에 대한 미시적인 장소감 담론을 파악하는 것의 한계점과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러한 세부 목적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일반인의 미시담론을 매개로 폭 넓은 시민 참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이와 같은 논의가 상호 소통적 공간을 위한 조정설계 언어의 확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 1. 연구의 범위

#### (1) 1인 미디어

본 연구는 공원 이용자가 구성 혹은 재구성하는 장소감을 분석함에 있어 1인 미디어를 이용하고자 한다. “IT기술이 음악 감상, TV 시청은 물론 게임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서 개인이 가진 정보에 대한 관리와 공유 방법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 이라고 예측한 빌 게이츠의 말처럼, IT 기술은 현대 미디어 분야의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정완진, 2008:14). 미디어의 개인화가 그 중 하나인데, TV, 신문 등과 달리 1인 미디어는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위상이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다. 자신만의 미디어로 본인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1인 미디어로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들 수 있다. 모두 1인 미디어라 통칭되기는 하지만, 각각의 서비스에서 내세우는 특징점과 기능 등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불특정 다수의 게시물에 남겨진 장소감을 데이터로서 수집해야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1인 미디어를 추출해내기 위해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에 따라 특징을 분류하였다.

친구신청과 친구수락으로부터 시작되는 미니홈피, 페이스북에서의 온라인 관계는 온라인상에서 친구관계가 아닐 경우, 공개 범위가 전체공개이지 않는 한 상대방의 게시물을 보기 힘들다. 반면에, 블로그와 트위터는 앞의 두 서비스보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개방적이어서 온라인 친구 관계가 아닐지라도 타인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게다가 특정 단어 검색을 할 수 없는 앞의 두 서비스와 달리 블

로그와 트위터는 검색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오프라인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블로그와 트위터는 정보를 생산·재생산하고 개인의 의견 표출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그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접근의 개방성, 정보 전달의 적극성(박상필, 2011:3), 급속한 파급력을 갖춘 이들의 장점으로 인해 다른 1인 미디어에 비해 오랜 시간 핵심 미디어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 미디어 중에서도 공간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 장소 경험에 대한 일상적 이야기와 그에 따른 장소감 등을 자유롭게 게시하고 간편한 검색기능을 통해 개인이 가진 기억의 재현을 오래도록 가능하게 하는 블로그와 트위터의 내용에 집중하고자 한다.

## (2) 참여형 도시공원

조경분야에서 끊이지 않고 논의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주민참여, 이용자참여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는 이를 “지역 및 도시사회에서 주민의 일상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목표 및 방향 설정, 대안 선택, 계획 집행 및 사업의 영향평가단계에 지역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2:145). 이 정의와 같이 이용자가 공간 설계 및 운영·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시행에 대한 주민 협조를 끌어내기 쉽다. 이는 곧 전문가와 일반인 이용자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참여형 설계 공간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참여형 설계 공간을 대표하는 도시공원 중 하나가 ‘서울숲’이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의 숲’이라는 강령을 내걸고 2005년에 조성된 서울숲은 주체적인 시민 참여로 인한 서울숲만의 공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적 측면의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이 공원을 이루는 한 요소로서 공원에서의 풍부한 경

험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원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등 그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 또한 일종의 시민참여로 보았다. 서울숲을 위한 시민모임인 서울숲 사랑모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및 웹사이트, 서울숲 웹사이트 등이 매우 활성화된 점은 시민참여 및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서울숲에서의 활발한 참여는 장소에 대한 의견과 시각을 자신의 의지로 1인 미디어에 기록하는 행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대상지를 서울숲으로 선정하였다.<sup>4)</sup> 또한, 장소감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서울숲이 가진 역사성 및 장소적 정체성은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더 다양한 장소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2. 연구 대상지 고찰<sup>5)</sup>

### (1) 역사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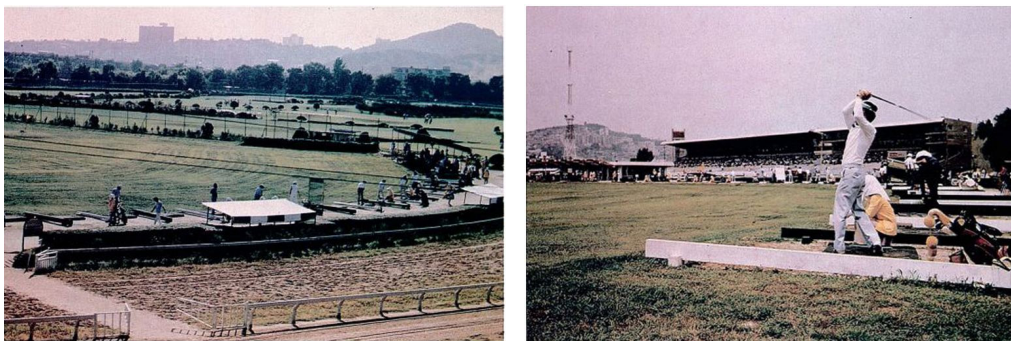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85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울숲은 한강과 청계천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발달된 범람원 지구로서 주변으로 강이 흐르기에 그 모양이 마치 섬 같아 ‘독기를 세운 섬’, 뚝섬이라 불려왔다. 과거 고구려 기마민족의 혼이 서려있고, 조선시대 임금이 사냥을 하고 무예를 검열하던 터였으며 태종 이방원이 태조의 화살을 피했다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얹혀 있는 곳이다. 근대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수장이 만들어진 유서 깊은 곳이다.

---

4) 실제 이용자들이 1인 미디어에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게시물을 올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블로그 검색을 실시하였다. 이때의 공원은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공원 중 시민과의 소통 창구 즉, 홈페이지가 개설된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영역을 ‘제목’으로 한정하였다. 2013년 3월 11일 기준으로 서울대공원이 48,741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숲이 34,876개로 그 뒤를 이었다. 선유도공원(20,556개), 여의도공원(15,563개), 보라매공원(10,956개), 월드컵공원(10,854개), 북서울꿈의숲(8,829개), 시민의숲(7,549개), 남산공원(3,582), 서서울호수공원(2,094개) 순으로 블로그 개수가 많았다. 조성된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서울숲을 서술한 블로그의 수는 매우 많은 것이며, 이는 곧 서울숲의 이용도와 인기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이한아(2008)의 학위논문과 서울특별시(2004)의 보고서, 웹사이트(서울숲홈페이지, 위키백과)를 참고하여 재구성.

뚝섬 일대는 1950년대 이후 경마장과 골프장 등으로 이용되었다.[그림1-1] 1954년 개장한 뚝섬 서울경마장은 한국 경마의 태동이라는 의미가 있다. 경마장이 1988년 7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경마공원으로 이전하여 폐쇄함에 따라 뚝섬골프장이 개장되었고 이는 2004년 4월에 문을 닫았다. 이러한 경마장과 골프장의 흔적은 현재의 공원에도 남아있다. 서울숲 뚝섬가족마당은 골프장의 잔디를 보존하여 만들어진 곳이며, 뚝섬가족마당을 감싸는 산책길은 과거 경마장의 트랙이었다. 서울숲 부지는 다목적슈퍼돔구장, 컨벤션센터, 기업정보센터, 지역문화정보센터 등을 조성해서 서울북동부지역의 신시가지로 2011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1월 뚝섬지구개발계획을 대신하여 도시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년 6개월 동안의 조성 기간을 거쳐 개장하였다. 서울숲 개장은 2005년 6월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3년부터 서울숲 시민가족 나무심기를 통해 서울숲은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림1-1] 경마장과 골프장으로 이용되던 뚝섬의 모습  
(사진 출처: [blog.naver.com/chweh1](http://blog.naver.com/chweh1))

## (2) 계획적 측면

서울숲은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가 부족한 동북부 지역에 친환경 도시의 기반이 되는 도시숲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계획되었다. 서울숲을 통해 청계천과 중랑천, 한강을 연계하여 도심의 새로운 녹지축을 구축함으로써 생태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복원을 이루어 친환경 도시, 서울로 나아가고자하는 목표에서 출발하였다.

서울숲은 ‘독섬숲 조성 기본계획안’ 안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주)동심원조경기술사무소의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서울숲’ 명칭 또한 시민공모를 통하여 정해졌다. 도시숲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장대하게 자라나는 나무를 심어 대규모 숲을 이루도록 조성하되 넓은 잔디밭을 함께 갖춰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중랑천과 한강을 연계하여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함께 만드는 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4가지 기본 방향을 토대로 조성되었으며, ‘자연과 함께 숨쉬는 생명의 숲,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의 숲, 누구나 함께 즐기는 기쁨의 숲’이라는 기본 개념으로 전개되었다.

[표 1-1] 서울숲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85번지 일대
면 적	1,156,498㎡ (약 35만평)
개장일	2005.6.18.
추진경위	2003.01.10.:서울숲조성방침 수립 2003.03:설계공모(총 12개 작품 출품) 2003.06.28:주민설명회 2003.07.31: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2003.12.28:서울숲 조성공사 착공 2006.06.18:개원
조성의 기본방향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강화 -자연친화적인 숲의 개념으로 설계 -기존 역사적 의미 있는 시설의 활용 -시민 문화여가공간으로의 조성 및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
주요시설 테마공원	A 문화예술공원(220,000㎡):잔디광장과 야외무대,스포츠공간 B 생태숲(165,000㎡):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자연공간과 보행가교 C 자연체험학습원(85,000㎡):곤충식물원,갤러리정원,시민의숲 등 D 습지생태원(70,000㎡):유수지 및 습지생태원,환경놀이터 등 E 한강수변공원(66,000㎡):한강과 연계된 수변공원

(출처: 서울숲 홈페이지, [parks.seoul.go.kr/seoulforest](http://parks.seoul.go.kr/seoulforest))



### (3) 문화적 측면

서울숲은 민관 협치로 운영되면서 공원 운영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생태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모금 프로그램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참여는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기부문화를 이끌고 있다.<sup>6)</sup>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전 계층이 사계절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한 서울숲에서는 1년에 800회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생태와 환경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축제 및 이벤트 등과 같은 문화예술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고 이동 도서관 ‘책 수레’를 도입하여 ‘책 읽는 공원’이라는 문화를 도입해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다른 공원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서울숲은 조성과정부터 운영과정에까지 시민이 참여한 국내 최초의 공원으로서 자원봉사프로그램과 후원프로그램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자원봉사의 분야는 방문자 안내, 생태 해설, 공원 가꾸기, 도서관 사서 등 다양하게 확대되어 기존 공원을 위한 자원봉사의 인식을 확장시켰다.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방법론을 연구할 정도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이끌어낸 적극적인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서울숲의 공원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된 요인이다.

---

6) “도시공원, 지역 커뮤니티센터 역할해야”, 한국조경신문, 2011년 03월 15일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1인 미디어를 매개로 한 일반인의 장소감을 해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서울숲을 대상지로 하였으며, 1인 미디어에 게시된 장소감을 하나의 미시담론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형성된 과정과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블로그와 트위터의 게시물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도시공원 중 하나인 서울숲이 1인 미디어에서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텍스트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며, 이를 통해 개인의 감정에서 출발한 현대 도시공원이 언어적 표현을 거쳐 공적 담론화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양적 연구 방법에 대비되는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의 현상을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방식이며, 연구 대상의 개별적인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 및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참여관찰법, 구술사연구, 생애사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희영, 2005:121). 질적 연구 방법에 속하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이 갖는 근본적인 공통점은, 그것이 ‘체험 이야기’를 연구 자료로 삼으며, 자연인과적 설명이 아닌 ‘이해와 해석’을 통해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이야기’를 해석함으로써 생생한 인간 체험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서 수집하는 일반인들의 도시공원에 대한 감정을 기록한 1인 미디어의 게시물들은 질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그에 적절한 연구방법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도시공원에서의 경험담을 수집하여 다층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연구주제가 되리라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단계에 의해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2장에서는 기존의 문

현들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중요한 핵심어들의 개념과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한다. 이는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장소감을 하나의 미시담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며 향후 1인 미디어에 나타난 다른 내용을 파악하는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한편, 1인 미디어 연구의 사회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그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개인’이라는 주체를 가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 1인 미디어와 장소감의 관계를 재구성하여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고찰한 관련 이론을 토대로 1인 미디어에 나타난 미시담론을 도출한다. 서울숲과 관련하여 일반인이 서술한 1인 미디어 표본의 내용 중에서 단순한 정보를 제외하고 이용자 자신의 경험과 그에서 비롯된 느낌을 서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수많은 주체와 다양한 요인에 따른 미시담론의 내용 변화와 그 형성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기별로 담론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각 시기별로 담론화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담론을 형성시킨 사회적 배경을 함께 살펴본다.

3장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였다면, 4장에서는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장소감에 대해 해석하는 단계이다. 도출된 미시담론 중에서 장소감에 초점을 맞추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용자의 장소감을 읽어낸다. 블로그와 트위터에 기록된 방대한 양의 텍스트에서 장소감을 읽기 위해 체계적인 해석의 틀이 필요한데, 이 때 질적 연구법의 하나인 체험연구 방법에서의 “지향적 해명의 방법<sup>7)</sup>”을 차용하여 해석

---

7) 현상학적 체험연구에서는 체험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실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체험들에 공통적인 본질적 속성을 찾아낸다. 그 속성은 바로 지향성인데 지향성이란 ‘무엇으로 향하는’ 의식작용의 성격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체험 또한 항상 체험된 대상이 있으며, 대상 없는 체험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지향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실적인 체험들을 “지향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해야 한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한 연구 방법은 그 대상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체험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 즉, 체험의 주체, 지향적 대상으로서의 체험된 대상, 시간성, 공간성, 타인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동기와 목적, 변화와 전개과정, 주체의 삶에 대한 의미, 주체의 가치평가, 체험의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사회성 및 역사성 등의 11가지 측면에서 체험연구가 수행된다. 연구자는 연구관심에 따라 11개의 항목 중에서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항목만 취사선택 할 수 있다. 각 항목에서의 해명을 통해 체험이 지니는 다양한 질적인 측면을 도출하게 된다. (참고 :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제목미정), 이남인, 2013(출

기준을 마련한다. 이용자들이 도시공원에서의 경험을 기록하고 그 경험에서 비롯한 감정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체험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질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체험연구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체험연구에서 체험을 분석하기 위해 살펴보는 체험의 본질적 요소들 중 본 연구의 분석 내용에 적합한 요소들을 선별하여 동기와 목적, 체험된 대상, 주체의 소감 및 평가 등을 기준으로 블로그와 트위터에 나타난 장소감을 읽어낸다. 다음으로, 서울숲을 구성하는 여러 공간들에서 이용자들이 각 공간별로 느끼는 감정을 읽어 어떠한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된 일반인의 장소감이 미시담론으로서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 도시공원에 대해 중요한 담론을 이루는 전문가 담론과 비교 고찰한다.

## 2. 분석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된 ‘서울숲’ 관련 블로그와 자체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된 ‘서울숲’을 서술한 트윗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을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국내 도메인별 웹사이트 순위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sup>8)</sup> 검색 서비스를 활용했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어는 ‘서울숲’과 ‘서울숲공원’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상세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서울숲과 관련된 검색어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단어<sup>9)</sup>를 ‘제외하는 단어’에 포함시켰다. 검색 결과, 2013년 04월 08일을 기준으로 총 63,929건의 블로그가 검색되었다. 앞서 언급한 열 두 개의 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한 결과이지만 그 외에도 특정 음식점이나 최근 개통된 서울숲 지하철 역 등의 소

간예정), “현상학적 지향성과 도덕교육 -도덕교육의 가능성의 존재론적 근거-”, 여종현,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24집,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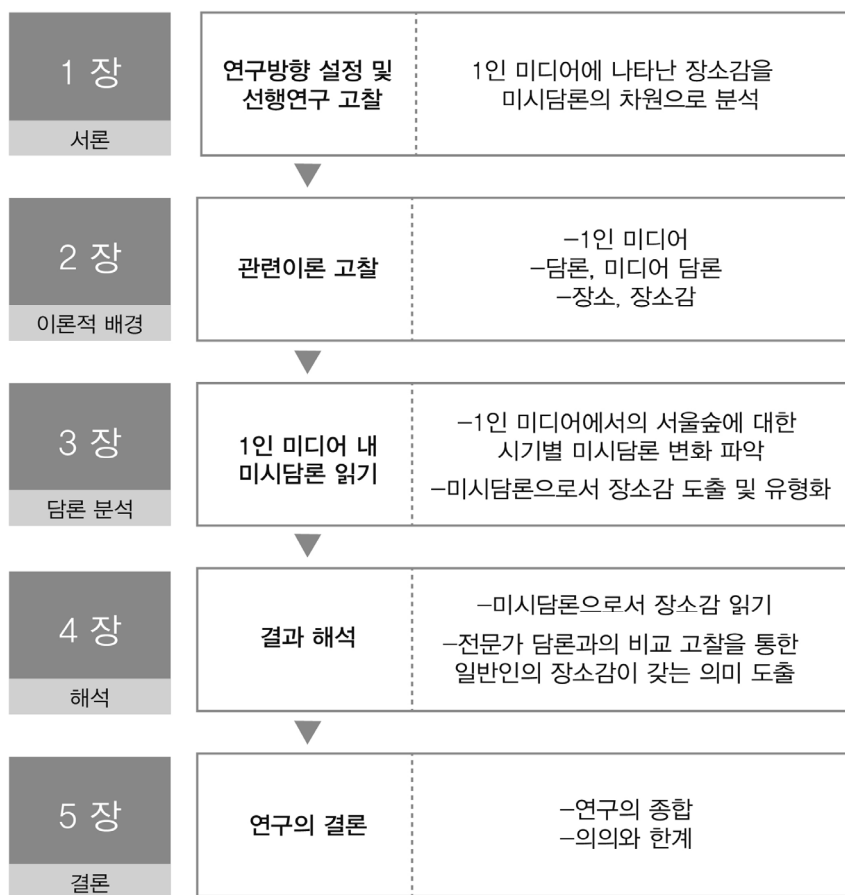
8)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네이버의 순방문자가 3천 1백 9십만 명으로 1위이며, 다음, 티스토리, 네이버, 매일경제가 그 뒤를 이었다. (출처 : 코리아 클릭)

9) 서울숲 주변의 주상복합 명칭과 부동산 관련 용어들이 그에 해당한다. 부동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갤러리아 포레, IT밸리, 고시텔, 원룸, 더샵, 분양, 미용실, 맛집, 라페킹 등 총 열 두 개의 단어가 이에 포함된다.

개 및 방문 후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서울숲과 관련된 블로그라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확도 순으로 재배열을 거친 후, 연도별로 30개의 블로그를 추출하였다. 서울숲이 개장된 2005년은 6월부터 정식 개방을 하였으므로 6개월의 짧은 기간을 고려하여 15개의 블로그만을 추출하였고, 2013년 또한 15개의 블로그만 추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210개의 블로그와 2005년, 2013년의 각 15개 블로그를 합하여 총 240개의 표본이 추출되었다. 연도 별로 표본을 추출한 것은 미시담론의 변화 과정과 담론적 구조를 함께 파악하기 위함이다.

트위터에서는 ‘서울숲’을 중심으로 ‘서울숲공원’, ‘서울숲 방문’, ‘서울숲 느낌’ 등 서울숲 및 그에 따른 장소감과 관련된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에서 검색된 결과 중 서울숲 축제 및 자원봉사 모집 등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 트윗이나 사진, 자전거 동호회 등의 정모를 위한 트윗, 정치 관련 트윗 등을 제외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서울숲에 대해 작성한 트윗들을 선별한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총 98개의 트윗이 선별되었고 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3. 연구의 흐름도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착안점

### 1.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는 장소감과 1인 미디어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장소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장소, 장소성, 장소감에 대한 개념을 규명하는 연구와 장소감 형성 및 발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여러 연구에서 정의하는 장소감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성격에 맞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인 미디어는 주로 미디어 연구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일환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1인 미디어를 공간과 관련시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1인 미디어에 게시된 경관 이미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경관 재현 방식의 수단이자 매개체로서 1인 미디어를 바라본 연구와 특정 공간에서의 행태 분석이나 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분석을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1인 미디어의 이용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 (1) 장소감에 관한 선행연구

이석환, 황기원(1997)은 장소와 장소성의 명확한 개념 수립을 통해 이들을 환경설계 분야의 전문 용어로 정립함으로써 환경 계획 및 설계가 물리적 대상을 다룰 때의 태도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자 하였다. 장소의 파생 개념으로서 장소정신, 장소감, 장소 정체성, 장소 애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들의 관계를 장소성이 형성되는 과정적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장소성이라는 개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소감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의식, 느낌, 반응으로 정의하고 장소성을 구현하는 개인적 국면이라 하였다.

김덕현(1996, 1997)은 도시화, 세계화 시대에서 고향의 삶을 회복할 수 없는 현대인에게 진정한 장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장소, 장소 정체성과 관련된 개념인 장소감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공간·환경적 경험으로부터 나오며 이는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소 정체성을 구성하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측면 혹은 차원으로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애착을 가지게 하는 의미와 느낌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권영락(2005)은 환경교육에서 주요 관심 영역 중 하나인 장소기반 환경교육의 의미를 고찰하고, 이의 실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장소감을 연구하였다. 장소기반 환경교육을 통해 개인이 가진 기존 장소감의 변화 여부를 밝힘으로써 장소기반 환경교육에서의 장소감 발달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자는 장소감을 인간의 경험과 장소가 상호작용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라 정의하면서, 이를 인간이 자연 및 지구와 연계되어 있음을 느끼는 생태적 자아와 연결시켰다.

최명진(2009)은 관광목적지에서 장소감이 결여된 무장소성의 관광활동을 비판하면서 관광지에서의 장소감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관광객이 특정 장소와 만나 장소체험을 하게 되고, 장소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장소감이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장소정체성과 장소애착을 장소감 구성에 있어 큰 두 축으로 보고, 이들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 **(2) 1인 미디어에 관한 선행연구**

박선희, 김연금(2011)은 정보화 사회의 영향으로 1인 미디어에서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경관 해석이 많아졌다는 전제에 따라 영화, 소설, 풍경화와 같은 재현 매체에서의 경관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1인 미디어를 연구하였다. 블로그에 나타난 선유도 공원의 구체적인 경관을 파악하고, 블로그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경관을 포착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블로그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경관을 기록하는 행위를 넘어 경관을 포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다는 점과 블



로그 내의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기록은 전문가의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박윤미(2012)는 선유도공원에서 공간 소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블로그에 게시된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공간 자체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던 이전과 달리, 공원의 경관을 재현하고 재생산하는 이용자들의 이미지를 통해 이용자의 행태를 공원의 이미지화에 따른 경관적 이용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여가 트렌드의 변화와 디지털 기기의 발달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조은이(2012) 또한 블로그를 삼청동길의 이용자 행태를 폭넓게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블로그를 통해 분석한 방문자 행태와 실제 건축물 이용 현황 및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방문자 행태를 비교함으로써 블로그의 잠재력과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각 분석 결과의 차이가 별로 없는 점으로 보아, 블로그를 통해서도 삼청동길에서 발생하는 행태를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형엽(2011)은 1인 미디어 중 블로그를 새로운 소비 공간을 소비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주요한 정보 유통 매체로 인식하고, 바이럴마케팅의 수단이자 소비자들의 특성과 공간적 정보를 담고 있는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블로그 매체를 연구의 분석 자료로서 활용하여 블로그 분석을 통해 홍대 지역의 소비문화와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옥중(2010)은 삼청로의 장소성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측면의 분석과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들이 지각하는 장소를 살펴보기 위한 지각적 측면의 분석을 위해 웹 문서의 기사 내용과 블로그 상의 이미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블로그에 나타나는 이미지의 선호 유형과 그에 나타나는 공간 분포를 밝혔으며, 장소성 형성에 있어 나타나는 인지특성과 사회구조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였다.

## 2. 연구의 착안점

위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장소감과 1인 미디어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다. 장소성과 달리 장소감은 인간에 밀착된 것으로 ‘개인’ 으로부터 시작된다. 각 개인들은 특정 장소를 이용한 후 그곳에 대한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공유하고자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1인 미디어이다.

앞의 1인 미디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1인 미디어가 공간 이용자의 특성과 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이용가치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단순히 분석 도구의 측면에서 1인 미디어에 접근하였기 때문에 1인 미디어를 운영하고 기록하는 개인과 그들의 개체성에 대한 논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1인 미디어에 게시된 이미지 분석을 위주로 한 위의 연구들은 공원에서 의 경관에 반응하는 이용자의 행태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차원의 장소감을 읽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극적인 도시공원의 이용주체인 개인들이 기록하고 운영하는 1인 미디어의 개체성에 주목하며, 1인 미디어가 여론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인만큼 개인들이 기록하고 공유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시담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고찰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중점적인 분석 대상으로 하여 다층적인 감정과 의견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이미지 분석이나 행태 관찰 분석을 통해 장소감을 파악하던 연구 기법이 장소감이라는 것을 ‘계량화’ 하고 ‘분석’ 하려고 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면, 본 연구는 보다 ‘해석’ 적으로 접근하여 이용자가 도시공원에 대해 갖는 감정과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인과 맥락을 ‘읽어내는’ 연구가 될 것이다.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의 틀

### 제1절 개인의 표현 수단, 1인 미디어

#### 1. 1인 미디어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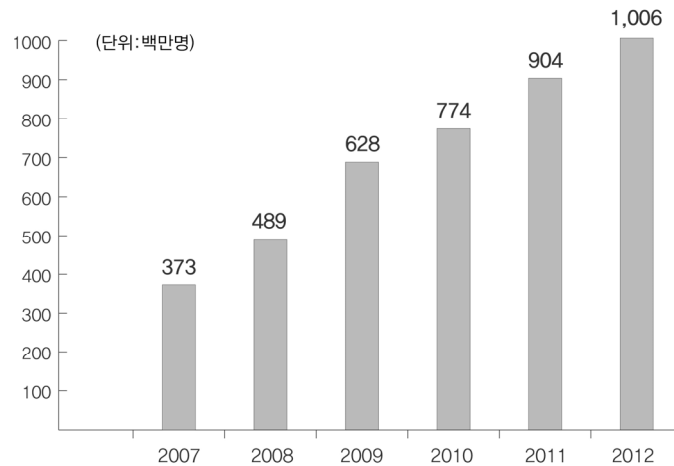
200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장이 제기됐다. 싸이월드 미니홈피, 네이버 블로그 등과 같은 1인 미디어들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sup>10)</sup> 이는 그 당시 사이버 세상에서 불고 있는 1인 미디어 열풍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종류의 1인 미디어 서비스를 접하고 있다.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직접 만들어가는 정보세상’을 의미한다. 이는 인맥, 관계 기반의 서비스에서부터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최근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는 ‘미디어의 개인화’를 들 수 있다. 이전에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모여 왕성하게 활동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용도와 취향에 맞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1인 미디어에 사람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김선미, 2005:5).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대중화와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와 같은 단문 중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또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급부상하였다(이호영 외, 2011:53).[그림2-1]

---

10) 손일선, “블로그·미니홈피… 1인미디어 열풍”, 『매일경제』(2004.10.18.)



[그림2-1] 전 세계 SNS 이용자 수  
(출처: eMarketer)

각 개인의 공간을 가리키는 타임라인(Timeline)에는 가장 최근에 게시한 글이 맨 위에 게시되며, 새로 게시한 글에 의해 이전 게시물이 급속도로 대체되는 점이 이들의 큰 특징이다.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의 속도가 빨라졌으며, 이용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부담 없이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커뮤니케이션의 빠른 속도는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의 전황을 생생하게 올리던 평범한 건축가의 블로깅(blogging)<sup>11)</sup>과 2009년 1월 뉴욕시 허드슨 강에서의 미국 항공기 불시착 현장을 언론 보도보다 12분 빨리 전달한 트위팅(tweeting)<sup>12)</sup>에서도 드러난다. 이와 같은 1인 미디어의 신속성은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걸어 다니는’ 1인 미디어 시대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였다.

11) 블로그(blog)는 인터넷의 웹(web)과 일지를 뜻하는 로그(log)의 합성어인 웹로그(weblog)의 줄임말이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사람을 블로거(blogger)라 칭하며, 블로그를 운영하며 타인과 교류하는 행위를 블로깅(blogging)이라 한다. 블로그를 이루는 최소 단위의 게시물을 포스트(post)라고 하며 포스트를 게시하는 행위를 포스팅(posting)이라 한다.

12) 트위팅(tweeting)은 트위터(twitter)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트위터 사용자를 트위터리언(twitterian)이라 한다. 작은 새가 짹짹거리며 우는 소리를 뜻하는 트윗(tweet)은 한 사람이 쓰는 140자 이내의 글을 말한다. 팔로잉(following)은 다른 사람의 글을 구독하고자 내가 팔로우(follow)를 한 상대방이며 팔로어(follower)는 그 반대의 경우를 가리킨다. 트위터에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다. 내가 팔로잉하는 이용자들의 트윗들이 모여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곳이 타임라인(timeline)이다.

이처럼 전문적 언론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전하는 정보의 신속성은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을 증명한다. 우리는 1인 미디어의 신속성 뿐 아니라 1인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의 속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화된 1인 미디어는 전문적 언론인이 전달하는 내용에 개인의 경험과 사유에 기분을 둔 본인의 의견을 추가하여 보다 더 묘사적이고 감성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이처럼 1인 미디어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일반인의 빠른 적응력, 더욱 정교해진 서비스 등으로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다.

## **2. 1인 미디어의 특징**

1인 미디어는 사용되는 목적과 사용 주체의 범위가 넓은 만큼 그 기능과 특징 또한 매우 다양하다. 제 1장의 연구의 범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여러 1인 미디어 중 블로그와 트위터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일상적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1인 미디어가 활용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따른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 **(1) 개인 PR의 수단**

전통적으로 개인은 그가 속한 가족과 사회 집단의 경계를 통해 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해졌다. 하지만 갈수록 집단 정체성이 약화되면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기초한 정체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형성하도록 요구한다. 이제 개인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황상민, 2004:44-6). 이는 미디어 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배경사진, 배경음악 등을 선택하거나 글을 작성할 때도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의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타인을 의식하는 행동은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알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결부되어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등 1인 미디어를 통

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노출한다. 이처럼 1인 미디어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기 PR(Public Relations)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제로서 현대인의 표현 욕구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2) 개인화된 메시지 창출**

개인 PR시대에 발맞춰 이제는 누구든 1인 미디어에 개인의 일상적 경험이나 삶에 대한 이야기 등을 기록하고 저장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한 검색을 통해 이전의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1인 미디어의 용이한 정보 관리 방법은 앞서 언급한 자신을 표현하고 알리고자 하는 현대인의 심리적 특성과 결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도록 한다. 이 때 게시되는 글의 내용에는 자신의 경험과 일상적 이야기에 경도된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 다른 사람들이 그 게시물을 읽고 반응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1인 미디어는 철저히 자신이 주인인 공간이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기 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미디어가 아닌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형태(정완진, 2008:242)로 받아들여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TV나 신문처럼 제공해주는 정보를 받기만 하고 린 백(Lean-back) 형식의 수동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던 기존 미디어의 소비자들이 인터넷과 1인 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소비하는 린 포워드(Lean-forward) 형식의 소비 행태를 갖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정완진, 2008:223). 주류 기관에서 제공하던 정보가 아닌 일반인 이용자가 만들어 내거나 기존 정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 (3) 온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장

1인 미디어를 통해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메시지에서부터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sup>13)</sup> 개인이 창출한 사적인 메시지는 급속도로 퍼져 나가 그 메시지를 접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오늘 방문한 음식점에 대한 개인적인 평을 본인의 미디어 매체에 작성했을 때, 그 글을 흥미 있게 본 다른 사람은 그곳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혹은 반대로 어떤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그 제품을 미리 사용해 본 사람의 블로그나 다른 1인 미디어에 방문하여 그 후기를 읽어보고 최종 구입 의사를 결정짓기도 한다. 이처럼 1인 미디어의 사적인 감정과 의견이 담긴 글은 제품이나 서비스, 공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된다.

이를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구전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온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이라 칭한다. 이러한 온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기업이 개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상업적 의도가 배제되었다는 측면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다 더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미디어를 매개로 한 구전 활동은 일반인의 의견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 된다. 게다가 전통적 구전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훨씬 빨라진 전달 속도와 무한히 넓은 파급 범위는 1인 미디어가 가진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을 배가시켜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1인 미디어 연구는 일반인이 방문한 곳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 의견과 더불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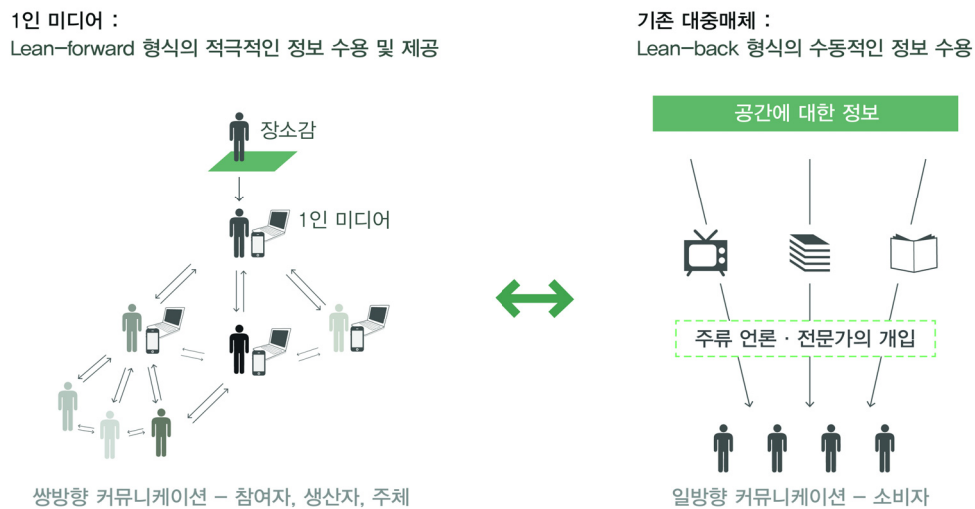
---

13) 한정호, 박노일, 『정책홍보에 있어 트위터를 활용한 정책 담론 형성 가능성에 관한 연구』(한국방송광고공사, 2010), p20.

### 3. 1인 미디어 연구의 사회적 의미

앞서 살펴 본 1인 미디어의 특징에서 가장 대표되는 주요어를 도출하자면 그것은 ‘개인’ 이 될 것이다. 기존 대중매체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상호작용적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시킨 1인 미디어는 수동적인 소비자에 머물러 있던 개인을 능동적인 참여자, 생산자의 존재로 변화시켜 각 개인이 미디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2-2]

1인 미디어의 등장은 대중매체가 가진 한계-일반인들의 접근 및 참여가 어려워 정확하고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하지 못하는 점-를 극복하여 시민들의 참여도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2-2] 소통 방식의 차이 : 1인 미디어와 대중매체

각 개인이 주로 자신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만큼 ‘1인 미디어’에서 이야기 되는 내용들은 주류 언론이 다루는 이른바 주요 사안이기보다는 신변잡기에 가깝



다. 그러면서 핵이 되는 개인의 관심사를 따라 정보가 여러 갈래로 퍼져 나가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것은 마치 미시사(microhistory)가 역사를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것(설혜심, 2011:380)과 같은 양상이다. 미시사는 역사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사유에서 출발하였다. 사회, 정치, 경제적 제도사를 중심으로 거대담론을 다루는 거시사의 흐름을 연구하는 전통적인 역사 연구의 접근 방식에 대한 대항으로 세부적인 일상적 삶의 양상에 집중하는 미시사 연구(차하순, 2008:256)는 전체라는 이름 아래 정작 그 주역인 개인이 사라져 버리는 거대한 흐름보다, 전체를 이루는 각 개인의 사건 대치 전략이나 가치관 등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야 역사 속의 복잡다단한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곽차섭, 2000:14). 이처럼 미시사에서는 사소한 개인의 일상적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개개인의 감정과 생각, 의견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개체성과 특수성에 주목한 미시사 연구의 성격과 일치하며 따라서, 본 연구는 미시사 연구의 흐름 아래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매체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전달 방식과 반대되며 개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정보의 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체보다 전체가 주(主)가 되는 거시사적 연구에 반해 공원이용자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본 공간과 실제 방문객들이 이용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공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기존 도시공원에 대한 전문가 담론 즉, 거대담론에서 알 수 없었던 세세한 이야기들을 읽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궁극적인 공원 이용 주체가 ‘개인’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공간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일반인의 감정, 생각, 의견 등이 담긴 글은 소통하고자 하는 개체를 연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물이 된다. 따라서 1인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현 시대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으로서 그가 가진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1인 미디어에 형성된 담론

### 1. 담론과 미디어 담론

‘담화’, ‘언술’ 이라고도 해석되는 ‘담론’의 사전적 의미는 ‘이야기를 주고 논의함’<sup>14)</sup>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담론은 이와 같은 뜻을 넘어서나. 이의 사용빈도가 늘어나면서 ‘담론’이 사용되는 곳은 훨씬 넓어졌으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치담론, 정책담론, 사회담론, 문화담론이라는 용어로 ‘담론’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제는 후기 자본주의의 다양한 사회현상과 문화를 개념적으로 포착하는 대표적 단어(이진우 외2, 1996:257)이기도 한 담론은 수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하나로 정의내릴 수 없게 되었다.<sup>15)</sup>

대표적으로 언어학자인 에밀 방브니스트(Emile Benvenist)와 데이빗 크리스탈(David Crystal)의 담론 정의를 들 수 있다. 에밀 방브니스트(Emile Benvenist)는 담론을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식으로든지 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화자의 의도적 발화라면 담론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가장 사소한 대화부터 가장 세련된 연설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속성을 가진 간에 구두로 이루어지는 각종 담론이 다 포괄될 수 있다. 여기에는 서신, 회고록, 연극, 받아쓰기, 즉 스스로를 화자로서 제시하면서 개인의 범주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장르가 포함된다.(Emile Benvenist, 1971:208-9, Sara Mills.; 김부용 역, 2001:17에서 재인용)

---

1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5) 담론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한 연구자는 미셸 푸코(Foucault)이다.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담론의 핵심 주제로 삼고 담론을 이들의 상호의존성 아래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한 그의 관점은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담론과 상관성이 적어 본 논문에서 정리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또한, 데이빗 크리스탈(David Crystal)에 의하면 ‘담론’과 ‘텍스트’는 발화적이건 문자적이건 간에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진 모든 언어적 단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David Crystal, 1987:116, Sara Mills; 김부용 역, 2001:15에서 재인용)

정리하면, 담론이란 일상적이거나 사적인 수준의 대화에서부터 공적인 성격이 부여된 정부 발행 문서, 법정의 판결문, 각종 매체에 실리는 사설, 평론과 기고문, 권위자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이나 연설문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와 형식을 포함한다. 또한 담론은 발화되거나 문자화된 형태 뿐 아니라, 미디어나 온라인을 통해 전달되는 각종 시각적 기호와 이미지, 그리고 이들 이미지와 결합된 음성을 포함하기도 한다(이기형, 2006:110).

이러한 담론에 많은 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담론의 다양한 형태 및 포함하는 내용이 개인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 인식과 실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조희진, 2010: 121-65) 이렇듯 담론은 사회적 산물로서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관점을 반영하게 되고, 그러한 점들을 담을 수 있는 적절한 언어나 기호의 양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백선기, 1995:288).

담론 연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발화되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지향하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을 바라보는 거울이자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반추하는 지표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배우리, 2010:30-1).

이처럼 담론이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면, 그 담론이 표현되고 구합되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반영하는 것은 미디어의 역할이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현실을 경험하기에 개인들은 세상의 극히 일부만을 접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이는 곧 미디어가 한 사회의 담론이 구성되는 장이며, 동시에 담론이 매개되고 재생산되는 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

디어에 문화, 정치 및 사회생활이 반영되고, 개인들은 그것을 접함과 동시에 그것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미디어 담론 분석을 통해서 사회, 문화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에 나타나는 담론들을 연구하는 것은 개개인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발화되고 그 이야기에 내포된 의미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Allan Bell and Peter Garrett(eds.), 1998).

## 2. 미시담론의 장으로서 1인 미디어

위에서 언급한 미디어 담론분석에서 미디어는 주로 TV, 신문 등을 통칭하는 매스미디어(mass-media)를 가리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1인 미디어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공간’과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공간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관심을 끌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내용만 선별하여 보도된다. 특정 전문가나 특정 세력의 시각이 반영되어 보도되는 매스미디어의 획일적인 내용은 그 공간에 대한 다양한 장소 의미 해석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매스미디어와는 반대로, 개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현대정보사회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한 인터넷 기술과 모바일기기의 도움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이 정치에 관한 것이든, 나의 일상에 관한 것이든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 내용이 선별되어 보도된 매스미디어의 ‘공간’ 관련 보도와 달리 1인 미디어를 통해서 그 공간을 직접 이용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을 접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이용한 기록이 아닌 보다 순수한 이용자로서 그 공간에 대해 기술한다. 한 공간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개입되는 1인 미디어에서는 개인에 의해 생성되고 매개된 수많은 생각들을

읽을 수 있으며 각각의 생각과 의견들이 담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로 수렴되기도 한다.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장이자 공공공간인 도시공원 내에서의 경험과 행위, 그들에서 비롯된 의미가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 표현되고 다중에게 소통된다는 점에서 1인 미디어의 내용들은 담론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그러한 담론들은 개별적, 주관적, 일상적이기 때문에 미시적 담론으로 구성되며 각 개인이 생산해 낸 미시담론을 통해 공원의 특정 공간과 도시공원, 나아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줄 것이다. 더불어,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로의 전환이 제기되는 현 시대<sup>16)</sup>에 일반인들의 미시 담론에 대한 고찰과 이해는 도시공원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어느 공간을 방문하기 전 그 공간에 대해 미리 검색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이제 보편화 된 현상이다. 다른 사람이 기록한 공간에 대한 정보와 그만의 시각이 반영된 장소감은 그 공간에 직접 방문하기 이전에 충분한 간접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담론이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관점을 반영하고, 그러한 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나 기호의 양태를 띤다(백선기, 1995:289)는 점에서 ‘자신의’ 시각과 의견이 들어간 1인 미디어의 내용은 담론이 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한 매체로서 1인 미디어 또한 담론이 구성되는 장이라고 여겨진다.



[그림2-3] 담론, 미디어담론, 1인 미디어 담론의 관계

16) “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 시대로”, 한국조경신문, 2013년 05월 02일

### 제3절 1인 미디어로 포착한 장소감

#### 1. 공간과 장소, 장소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공간(space)과 장소(place)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감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일 뿐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연구하는 지리, 조경, 건축, 도시계획 등의 여러 학문에서 다루어진다. 이들을 다루는 학문의 다양함만큼이나 그 의미 또한 다중적이며 때로는 모호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장소감에 대한 이해에 앞서 장소감이 장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간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비어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물리적, 기계적, 객관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공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균일하고 보편적인 실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곳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장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공간은 물리적인 실체를 일컫는 반면, 장소는 사람의 경험과 사고에 의해 구체화된 공간으로써 활동적,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장소는 물리적 실체와 인간 행위의 결과물이라 보며, 인간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 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대상인 것이다(백선희, 2005:40). 이처럼 인간의 경험은 공간과 장소의 모호한 개념을 구분 짓는 주된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장소에는 그곳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인간에 의해 ‘체험된 대상’이 있으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활동 주체인 인간으로부터 부여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이석환, 황기원, 1997:180).

인간의 경험과 의미가 반영된 공간으로 장소를 보는 관점은 지리학자 Tuan과 Relph의 정의를 보면 더욱 구체화된다. Tuan은 장소를 경험에 의해 구성되는 의미

의 중심이라 보고, 인간의 경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지적한다. 장소는 인간의 눈과 정신에 의해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인지된다고 하였다(Tuan, 195:152). 인간의 적극적이고 반성적인 정신과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경험에 의해 장소는 구체성을 얻는다고 본다(Yi-Fu Tuan, 1977:18).

Relph에게 장소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맥락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의 중심’ (Edward Relph, 1976:22)으로 다차원적인 경험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또한, 장소를 인간이 세상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중심이자 개인과 공동체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근원으로 보며, 때로는 사람들이 타인과 정서적·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인간 실존의 심오한 중심이 된다(Edward Relph, 1976:141; 김덕현 외2, 2005:287-8에서 재인용)고 말한다.

이처럼 장소는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의미화과정을 거친 것이며, 궁극적으로 장소성(placeness)을 획득하게 된다. 장소성은 장소의 인지된 특성으로, 한 장소에서는 고유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장소와는 차별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백선희, 2005:61). 장소마다 특성이 다르고 인간에게 인지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형성되는 장소의 의미 즉, 장소성은 인간의 직접적이고 지속적,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 2. 1인 미디어로 포착한 장소감

이렇듯 인간의 경험을 통해 의미를 부여받는 장소는 인간이 애착심이나 상징성을 설명하는 장소감(sense of place)의 대상이 된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갖는 느낌이 풍부할 때, 우리는 그 장소에 대해 장소감이 풍부하다고 말한다(이석환, 황기원, 1997:177). 일반적으로 장소감은 장소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감정으로, 장소와 인간의 경험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에 대한 인지와 경험을 통해 불러 일으켜진다는 점에서 장소성과 장소감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장소감은 대체로 집단이나 사회적 차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활동이나 의식과 관련된 ‘주체 지향적’ 감정이다. 개개인의 경험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장소감은 고정적이지도, 유일하지도 않다. 이에 반해, 장소성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특정 장소에서 지속적인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장소 지향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최병두, 2002:257). 이처럼 장소성은 장소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편타당성을 지닌다.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과도 같은 장소감은 주관적이고 구체적이다. Ian Nairn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둘러싼 환경과 어우러져 일체감을 느끼고 환경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 즉, 인식 가능한 장소 안에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를 타고나기 때문에 장소감은 추가적으로 습득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것(Ian Nairn, 1965:8)” 이라고 한 주장은 인간과 장소감의 원초적 관계를 확인시켜 준다. 장소감의 합이 장소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인 장소감들이 보편화, 공통화의 과정을 거쳐 장소성을 이루게 됨을 장소성이 사회적 의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그 장소에서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장소성과는 달리, 장소감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형성이 되며, 짧은 시간에 걸쳐서도 유발된다. 이와 관련하여 윌리엄(Daniel R. Williams)은 “장소에 대해서 갖는 정서적 유대감은 신체감각에 의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부터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장소 애착에 이르기까지 그 강도가 다양할 수 있다(Daniel R. Williams et al, 1992:29-46)” 고 설명한다.

[표2-1]장소성과 장소감

	성격	내용	형성요인으로서 경험 유형	시간 및 빈도	특징
장소성	집단적	장소지향	직접경험에 의해 형성	지속적, 반복적	보편타당성
장소감	개인적	주체지향	직·간접경험에 의해 형성	시간, 빈도와 무관	원초성



빈도와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형성되는 장소감은 인간의 경험 방식에 따라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다. Relph는 장소감을 개인이 장소를 경험하는 방식 즉, 장소를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지 혹은 무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지에 따라 의식적인 장소감과 무의식적인 장소감으로 나누었다. 무의식적인 장소감은 “때 묻지 않은 원시인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가장 좋은 고기잡이 장소나 목초지를 아는 것”과 같이 본능적으로 갖게되는 것이며, 이는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정체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의식적으로 장소를 경험하고자 할 때, 장소는 이해와 성찰의 대상이 된다. 특히, 작가나 화가, 즉 관찰자가 특정 장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고 감정이입적으로 경험하려는 시도를 할 때 드러난다. 다시 말해 의식적인 장소감은 관찰자가 장소의 특성과 의미를 경험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려 할 때 강하게 나타난다. ‘장소감’을 지닌 작가나 화가라고 부르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의도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Edward Relph, 1976:65-7; 김현주, 2003:321-2에서 재인용).

1인 미디어 이용자가 자신의 블로그나 트위터에 장소에 대한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려는 것은 의식적인 경험에 해당한다고 보며, 여기서 비롯된 장소감은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공간에서의 인간의 의식적인 경험으로부터 생성되는 장소감 즉, 서울숲을 방문한 이용자가 그 곳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형성된 감정에 주목한다.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실현하는 인간에게 장소감 또한 타인에게 알리고 공유하고자 하는 화제가 된다. 이전에는 지인 간의 구전을 통해 이루어지던 것이 정보 사회에서는 미디어의 발전으로 넓고 길게 전달되고 있다. 신문, 잡지, 뉴스 등을 통해 공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만 하던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정보를 기록·저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다. 이것은 곧 기록된 장소감이며, 장소의 의미를 구성하는 언어적 표현이다. 이는 장소에 대한 의미나 정서 즉, 장소감이 의사소통체계의 한 유형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의 물리적 형태 외에 공간에 내포된

혹은 인간에 의해 부여된 의미는 인간과 공간의 소통에 있어서 깊이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 대한 인간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은 곧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활자 미디어, 영상 미디어, 뉴미디어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도시 혹은 특정 공간과 장소를 재현하고 인간과 장소를 연결해주는 통로로서, 사람들의 장소경험이나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이무용, 2006:294). 이처럼 도시문화경관의 상징과 의미를 담고 있는 미디어 속의 텍스트와 이미지는 뉴미디어에 속하는 1인 미디어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전문가의 개입 없이 주체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선택되고 게시되는 텍스트와 이미지는 공간 및 장소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미시적인 도시문화경관의 상징과 의미를 읽어내고 해석하는 방식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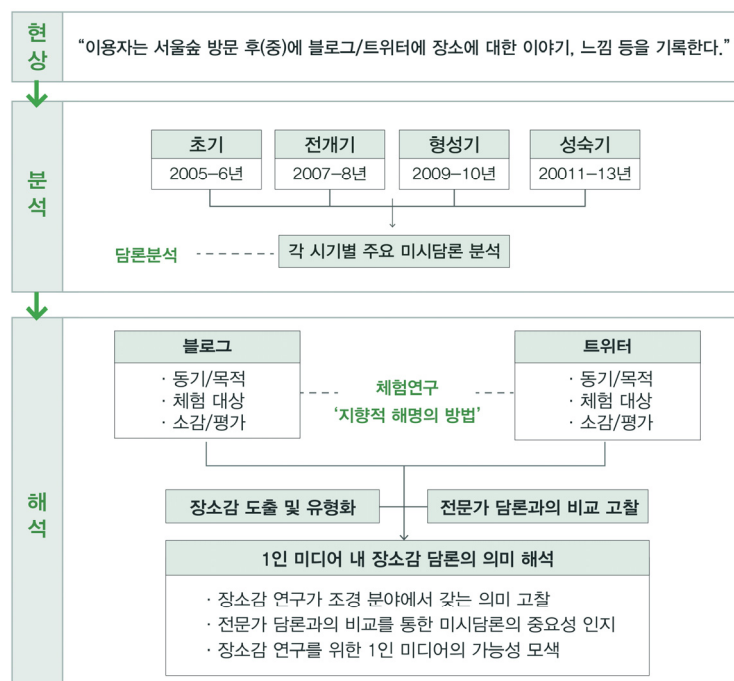
다른 미디어와 달리 1인 미디어의 게시물들은 인터넷 망 안에서 수십, 수만 명의 독자층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댓글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그 내용은 특정 집단에 의해 다듬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인 미디어는 대중적인 담화를 발생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기에 적절한 소통 체계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따라서 1인 미디어를 통한 공간과 장소의 이해는 ‘면’과 ‘영역’으로만 다루어지던 공간, 장소의 연구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 연결된 개개인의 감정 구조망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1인 미디어를 매개로 한 장소감 형성에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으며, 이에 따라 매우 다층적이고 다의적인 장소감의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

17) 조태희, “한국적 블로그의 특징”,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블로그, 2009, 김관규의 2인, 『컨버전스 시대와 매체로서의 개인』(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p.45에서 재인용.

## 제4절 연구의 틀

앞 절에서 살펴본 1인 미디어와 담론, 장소감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는 서울숲 방문객이 서울숲에서 혹은 서울숲 방문 후에 블로그와 트위터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감정을 기록·공유하는 현상에 집중한다. 각각의 이야기를 미시담론이라 상정하고, 미시담론의 주요 내용과 그것이 형성된 배경을 시기별로 분석한다. 여기서 도출된 미시담론 중에서 장소감에 초점을 맞추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블로그와 트위터에 기록된 여러 요소들 중 공원 방문 동기 혹은 목적, 공원에서 체험한 대상, 공원에 대한 소감 및 평가를 통해 장소감을 도출하고 유형화하는 분석을 거친다. 여기서 도출된 장소감 담론들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1인 미디어와 장소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일반인의 장소감 담론의 중요성을 도출한다. 연구의 틀을 정리한 도식은 다음과 같다.[그림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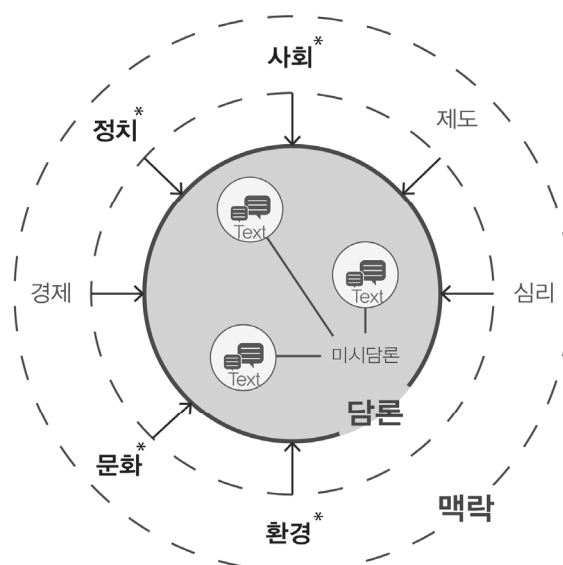


[그림2-4] 연구의 틀

## 제3장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서울숲의 미시담론 분석

### 제1절 서울숲의 미시담론 개관

담론은 개개인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사회를 통찰력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담론을 구성하는 사회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박재우, 2012:437).[그림3-1] 이는 곧 담론을 형성시킨 배경이 된다.



\* 서울숲을 둘러싼 장소감 담론을 형성시키는 주된 배경

[그림3-1] 담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배경

페어클라우(Fairclough)의 주장에 따르면, 담론분석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관행과도 관계가 있으며, 담론 관행(discourse practices)<sup>18)</sup> 및 사회·문화적 관행

18) 페어클라우(Fairclough)은 담론관행을 대중매체의 텍스트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1인 미디어에 적용해보면, 가령, 담론을 구성하는 게시물들의 텍스트가 사회적으로 전달되는 방법뿐 아니라, 개별 주체들에 의해 텍스트가 생성되는 방법, 그것이 독자들에게

(sociocultural practices)과도 관계가 있다. 사회·문화적 관행은 담론 관행이라는 맥락(context)의 부분들 즉, 담론을 둘러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 사건 등을 포괄하며 이는 담론을 형성하는 데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Norman Fairclough, 1995; 이원표(역), 2004:25).

담론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사회적 맥락에 주목해야한다(T.Huckin, 2002:353)고 주장한 허킨(Huckin)의 논리를 통해서도 서울숲에 대한 미시담론을 형성 및 변화시킨 맥락을 파악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받는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각 시기별로 서울숲에 대한 미시담론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는지 그 형성 배경을 각 시기의 미시담론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서울숲에 대한 이용 만족도의 인과 구조를 파악하고 이후에 더욱 다층적인 장소감을 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서울숲에 대한 미시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숲이 조성된 초기(2005~2006년), 서울숲이 도시공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전개기(2007~2008년)와 형성기(2009~2010년), 그 이후를 성숙기(2011~2013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도 별 분류는 1인 미디어가 갖는 특징 중 정보 전달의 단기성과 휘발성을 고려하여 2년을 분류 단위로 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2013년은 성숙기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연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례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각 시기마다 사례를 제시할 때 1년 전후의 사례도 포함함을 밝혀 둔다.

---

받아들여지는 방법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시기별 서울숲 미시담론의 변화

### 1.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2005년과 2006년에 형성된 서울숲 미시담론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울숲이 조성되기 전 독섬이라 불리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독섬은 예로부터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이자 농경지, 자연풍광이 뛰어난 관광지 겸 사냥터로 활용되던 곳이었다. 독섬이 개발의 바람을 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부터이다. 1994년 서울시청사 이전대상지로 거론됐으나 검토과정에서 용산미군기지를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돔구장 건설계획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추진됐으나 IMF사태를 맞으며 계획이 중단되었다.

1998년에 외국자본을 도입해 국제 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었고, 2001년에는 대규모 관광타운을 조성한다는 신평독섬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계획들은 민선3기에 들어오면서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계획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동북부 지역에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오늘의 서울숲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서울특별시, 2006:90).

실제로 서울숲 조성계획을 밝힌 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약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돔구장이나 차이나타운 대신 웬 공원이라며 반대를 많이 했었다.<sup>19)</sup>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나, 그 당시 일반인들 사이에는 한 대상지를 두고 그 내용물에 대해서 번복한 탓인지 실망감이 주를 이룬다. 또한, 새롭게 조성된 도시공원인 서울숲 그 자체보다는 ‘정치적·행정적 성과(물)’로서 서울숲을 대하는 시민들의 소감을 접할 수 있다. 특히, 서울숲을 성과물로서 여기면서 특정 인물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언급을 함께 한 서술이 많았다.

19) 최용호, 2005년 7월 8일, “서울숲 좌담회: 서울숲이 남긴 것, 21세기 도시공원의 과제는?” 『환경과 조경』 209호:99.

이는 당시 시민들의 게시물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표4-1]

[표3-1] 정치적 성과(물)로서 서울숲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래희,래은이네 가족이야기 (2005-06)	이명박 아저씨가 서울에 만든 첫 번째 시민을 위한 시설 <b>서울 숲</b> .(...)일 연휴의 끝자락에 간 서울숲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곳저곳 꼼꼼히 둘러보지는 못했으나 절대 로 갈일 없을 것만 같던 삭막한 동네의 대명사격인 이곳 독섬에 편리한 녹지 시설이 생겼다는 건 참으로 좋은 일 같아요.
	FactoryDottcat (2005-07)	서울숲..좋은 줄았다. 넓고 시원하고.. 그러나 여기저기 날림 공사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장마로 인해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처음부터 잘 만들었으면 다시 돈을 들 여서 보수공사 할 필요가 없을 것을... <b>이모시장은 아직까 지도 성과만을 중시하고 있었다.</b>
	MuSt Have 열정 , 용기 그리고 무모한 (2006-19)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사람도 많아 진 것 같고 약간 복잡 한 듯한 느낌이 들지만 <b>그래도 서울시에서 이거 하나 만 든 것은 잘했다고 칭찬 해주고 싶다.</b> 물론 여기저기 좀 더러워진 것이 눈에 걸리거거리지만 그래도 잘 보존 하 면 괜찮겠지요.

이와 같은 정치가 및 조성 주체에 대한 언급은 시민들이 서울숲을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숲이 조성되던 해 9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던 청계천 복원사업 또한 완료되었다. 정치적 선호와는 별개로, 시민들은 가시화된 서울숲과 청계천을 이용하고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업을 주관한 정치인과 관련된 사회·정치적 언급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민의 여론이 반영된 장소감은 사회적 담론으로서 이용자 개인의 의견 뿐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집단적 의식을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를 통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서울숲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의 게시물에는 이곳을 처음 방문한 이용자들의 감정 및 의견이 대부분이다. 서울숲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과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을 서술한 기록들이 있는 반면, ‘숲’을 기대하고 방문한 시민들은 앙상한 수목과 정비가 덜 된 서울숲의 모습에 대한 실망스러움을 자신의 블로그

에 그대로 드러내었다.[표3-2]

[표3-2] 서울숲 조성 초기(2005-2006년)에 형성된 미시담론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World according to Jennis, It's my world (2005-09)	아직 공사가 덜 끝난 듯, 공원 곳곳에 있는 공사용 차량들이 이곳이 자연적인 수풀이 아닌 <b>사람의 손으로 조성된 곳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듯했다.</b> (...) 서울의 비싼 땅 한가운데에 세워진 거대한 인공녹지, <b>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사랑을 얻고, 진정한 인생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b>
	Jetlag Dreams (2005-10)	아직 숲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b>그래도 나름대로는 신경 써서 꾸밀려는 흔적이 보였고</b> , 고라니라던지 동물들도 방사해 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b>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면 역시 시간이 좀 더 있어야 할 듯.</b>
	번데기의 꿈 (2006-10)	아직은 나무의 뿌리들도 자리를 덜 잡았고, <b>숲이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머지않아 서울숲은 한가로움을 느끼고 싶은 서울 도시인들에게 가장 알맞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b>
	뽕이의 감칠맛 나는 세상이야기 (2006-26)	서울숲은 거의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려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들이 보인다... <b>다만 오픈 일정에 짜 맞추려고 채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수목들을 심어 놓은지라 아직까지 숲이라 하기엔 띄엄은 부족하고 어설픈 면도 없진 않다...</b>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는 서울숲 개장이 시기상조라는 인식과 그와 관련한 비판적 실망감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서울숲의 미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모습에 대한 실망감을 어느 정도 메워준다.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방문객들은 ‘세월이 흐르면...’, ‘수십 년 후에는...’, ‘10년 정도 후에는...’ 과 같은 표현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될 모습을 기대한다고 서술하였다.

반면, 2006년 3월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트위터에서는 2008년까지의 서울숲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sup>20)</sup>

20) 2006년 3월 미국에서 시작된 트위터가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1년 1월이다. 한국에서는 2009년 5월. 김연아 선수의 트위터 가입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숲’ 이 언급된 트윗이 2008년에 하나 발견되나, 장소감과는 관련 없는 트윗이므로 제외하였다.



## 2. 공원경관의 변화 단계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마찬가지로, 전개기의 지배적인 미시담론들을 형성시킨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성 당시의 대중매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의 ‘센트럴파크’ 열린다” (조선일보 2005년 5월 24일자), “‘서울의 하이드파크’ 독점 서울숲 18일 개장” (동아일보 2005년 6월 9일자)은 서울숲이 개장하기 전후로 주요 일간지에 실린 서울숲 관련 기사의 제목 중 일부이다.<sup>21)</sup> 서울숲을 외국의 대형 공원 특히, 센트럴파크(Central Park)에 비유하는 것은 ‘생태숲’이라는 또 다른 서울숲의 수식어와 모순이 된다는 비판<sup>22)</sup>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숲이 녹지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형 공원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입지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3-3] 외국의 도시공원과 서울숲을 비교한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Cool & Jazzy Life (2007-25)	예전에 보스톤에 갔을 때 도시 한가운데 있는 공원을 보고 부러워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부럽지 않은 이런 좋은 공원을 가지게 된 거 같다.
	세상사랑 (2008-21)	서울숲은 2005.6월에 개장했는데 그 해 9월에 잠시 들렀는데 사람도 많고 약간 어수선했던 분위기였으나 그동안 숲도 무성해지고 아침시간이라 사람이 없어 한적하니 참 좋다.
	나무엘 (2009-02)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부럽지 않았다-(...)요기가 바로 센트럴파크가 부럽지 않은 곳- 영화 같은 걸 보면 항상 뉴욕커들이 개를 끌고 나와 산책하고 조깅하는 딱 그런 이미지를 간직한 곳이다-

21) 이 외에도 서울의 ‘센트럴 파크’ 문 열린다(세계일보 2005년 6월 9일자), ‘서울의 센트럴파크’ 시민 품으로(국민일보 2005년 6월 9일자), 서울의 ‘센트럴파크’ 열린다… 독점 서울숲 18일 개장(한국경제 2005년 6월 11일자) 등이 있다.

22) 2005년 7월 8일에 개최된 “서울숲 좌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배정환 교수는 생태적이지 않은 150년 전의 공원 모델과 비록 마케팅 수단일지라도 ‘생태숲’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서울숲을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환경과 조정』 209호:103에서 발췌).

센트럴파크 외에도 영국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St. James Park)나 독일의 숲 티어 가르텐(Tiergarten) 등과 비교하며 서울숲을 평가하는 이용자들은 건물로만 가득 찬 도시의 회색 경관에 나무가 울창한 그리고 더욱 울창해질 녹색 경관이 유입된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표3-3] 이는 거시적 차원의 경관을 고려한 서울숲의 열린 경계로 인해 한층 더 강화된다. 그 둘레로 장벽이 없는 서울숲은 공원과 접하는 사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장을 세웠을 뿐, 공원을 위해서는 담을 두르지 않았다. 대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서울숲 진입로 위에 서 있게 되며, 그 진입로 끝의 교차로 모서리에는 서울숲의 입구가 이용객을 맞이한다.<sup>23)</sup> 이와 같은 도시와 공원의 유기적인 연결은 이용자들에게 외국의 유명 공원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서울숲 내 경관은 미시적 차원의 경관 변화로서 재방문한 이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안겨주었다.[표3-4] 첫 방문 시, 서울숲의 명칭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숲의 이미지와 서울숲을 비교한 이용자들은 허전한 모습의 서울숲에 아쉬움을 드러내었으나, 그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 다시 방문한 이용자들은 변화된 경관과의 비교를 통해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명확한 비교 대상과 기준이 성립된 비교적 관점은 한 장소에 대해 긍정 및 부정의 복합적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그 미시담론을 접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장소에 대한 확일적이고 맹목적인 칭찬 혹은 비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

23) 장보혜(2005), “그 공원은 어디서든 시작된다”, 『환경과 조경』 209호(2005년 9월):96.

[표3-4] 첫 방문과 재방문 시의 비교를 통한 미시담론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타코&방새&유빈 (2007-02)	작년에 와 봤을 때 보다는 많이 정돈되고, 가꾸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좀 더 환경이 조성되고, 쉴 곳만 마련되면 서울숲도 괜찮은 휴식공간이 될 듯하다.
	빛나는 무인도 (2007-23)	재작년엔가 처음 갔을 때에는 숲이라고 해놓고 영 썰렁한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고 여름이라 그런지 아주 약간 울창해졌다. 예전엔 벌레도 득실거렸는데 벌레도 없고. 평일이라서 그랬는지 사람도 없었다.
	순간이 영원해 지는 곳 (2008-17)	나는 서울숲을 2번 정도 와본 적이 있다. 그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숲이라는 느낌이 들기엔 부족한 푸르름이었는데 다시 가본 서울숲은 많이 좋아져 있었다.
	세상사랑 (2008-21)	서울숲은 2005.6월에 개장했는데 그 해 9월에 잠시 들렀는데 사람도 많고 약간 어수선했던 분위기였으나 그동안 숲도 무성해지고 아침시간이라 사람이 없어 한적하니 참 좋다.

이 시기의 긍정적 미시담론은 2-3년 동안 자라난 수목의 변화에 따른 것이 가장 많았으며, 각각 다른 계절에 방문하면서 느낀 계절감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숲을 처음 방문한 이용자는 초기와 비슷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3. 시민의식<sup>24)</sup> 성장에 따른 참여도 증가

민선 시기 이전에는 서울시 전체 예산 8조 원 중에서 공원녹지 예산은 그의 1퍼센트인 8백억 원 정도였다. 그런데 민선 시기가 되면서 2004년의 경우 전체 예산 11조 중에서 4천5백억 원이 공원녹지 분야에 투입되었다. 1%에서 4-5%로 급격히 상향된 것이다. 서울숲의 경우에는 이 단일사업에만 2천4백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의 흐름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전제 되어 있다. 결국 시민 의식의 변화 덕분에 독섬부지가 공원화될 수 있었다.<sup>25)</sup>

시민의식이란 성숙한 시민이 지닐 수 있는 시민 공동체 의식으로서, 성숙한 시민은 사회에 무관심하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전선영, 2011:786).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시민의식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기본적인 가치-민주적 가치, 준법정신, 참여의식, 공동체의식, 봉사의식 등-를 내적 요소로 삼는다(모경환 외2, 2010:80-1).

서울숲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참여의식·공동체의식·봉사의식을 함양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여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운영의

---

24) 시민의식은 윌 킴리카(W. Kymlicka)와 웨인 노만(W. Norman)에 의하면 ‘법적지위로서의 시민의식’과 ‘바람직한 시민의 활동으로서의 시민의식’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된다. ‘법적지위로서의 시민의식’은 민주주의적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한 시민의 지위 다시 말해, 국적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소속, 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 사회적 약자인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시민의 활동으로서의 시민의식’은 시민의 민주적 역량 또는 시민의 공적활동 능력과 책임감 즉, 시민의식과 시민으로서의 덕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가리킨다(William Kymlicka and Wayne Norman, 1995; 전선영, 2011:78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 사용된 시민의식의 개념은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인한 도시공원 이용 양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므로 시민의식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생략한다.

25) 최용호, 2005년 7월 8일, “서울숲 좌담회: 서울숲이 남긴 것, 21세기 도시공원의 과제는?” 『환경과 조경』 209호:99.

시범적 모델이 되었으며, 시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그 가치는 가시화되었다.[표3-5]

[표3-5] 시민의식의 성장에 따른 서울숲의 시민참여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이 세상의 나침반이 되자!! (2009-26)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새로운 봉사프로그램인 '액션 볼런티어' 중 친환경 자원봉사 활동에 지원을 하여 서울숲에서 환경보호 팻말을 편부모가족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전공공부예다가 학군단 생활로 인해 정기적인 봉사를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좋은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황정운과 서울 (2010-23)	덕분에 에너지정책팀 선배들과 서울숲으로 봉사활동을 처음으로 함께 다녀오게 되었는데 30도를 웃도는 한낮의 날씨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야외에서 낡은 벤치에 페인트칠을 하는 일이었다.(...) 오늘 봉사활동이 끝나고 보니 꽤 많은 팀에서 오셨다. 하고나면 기분 좋은 게 자원봉사활동인 것 같다.
트위터	미니나 @minijo0615 (2011-20)	<a href="http://durl.me/78opi">http://durl.me/78opi</a> [여행광미니나] 서울숲에 진달래 나무심기 봉사 활동하러 왔습니다. :) 원래 사진이나 찍고 놀러온 거였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숲은 전체가 와이파이존이네요.

공원을 가꾸기 위한 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시민이 공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소극적인 참여에서 공원 운영·관리 전반에 참여하는 총체적 참여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공원은 단순히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의식이 변화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형성된 이용적 담론은 공원이 지닌 가치 인식과 함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내포함으로써 단순한 이용이 아닌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새로운 공원이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공헌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직접 봉사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현장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큰 변화이다(이근향, 2006:39-41).

이처럼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인한 자발적 참여의식과 봉사의식은 궁극적으로 시

민사회의 기초가 된다(주성수, 2005:74)는 점에서 시민참여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서울숲은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서울숲의 참여 증가 현상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적 담론을 만들어내는 배경이 된다. 실제로 이 시기에 기록된 블로그와 트위터에는 주로 공원의 규모에 대한 느낌과 전체적인 분위기,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난 후의 느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표3-6] 블로그와 트위터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 정착된 서울숲에서 이용자로서 직접 겪고 느낀 바를 기술하고 있다.

[표3-6] 형성기(2009-2010년)에 형성된 미시담론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The Dreamer (2009-09)	두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새로웠다. 일단 서울숲 자체 크기가 큰 이유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출입구가 한두개가 아닌게 큰 이유인 것 같다. 출입구마다 느낌이 다 다르다. 물론 들어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다. 서울숲이 마음에 드는 것은 중간 중간 사이 길을 많이 만들어 놔서 이동하는데 거의 불편함을 못 느끼게 해놨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만 알면 금방 이동할 수 있는 게 서울숲의 장점이다.
	다이빠 (2009-18)	좀 더 깊숙이 들어가니 작은 허브농장이 어여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예전엔 어떤 건물이 그 자리에 있었던 듯한 그 집터가 오히려 그 아래에 수줍게 고개를 든 여러 허브들과 묘하게 어울렸다. 이제 갓 자리를 잡은 여러 허브들에게는 멋진 새 터전이 되어있었다. 정말 잘 왔다는 기쁜 마음으로 그 곳에 한참을 머물렀다.
	RivErmAn-잔잔한 Vandalist (2010-16)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은 서울숲에는 이것저것 다양한 볼거리가 많고 그냥 숲이 아니라 종합공원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를 피하면서 더 깊은 숲으로 들어왔을 때, 참으로 쉬고 싶은 분위기, 도심 속에서 지리산 어디 절 앞 숲길에서 쉬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 장소는 나를 얹게 했고 태풍 곤파스도 허리케인 박이 몰아쳐도 나오는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 고요함과 숲내음이 나를 쉬게 했다.
트위터	Yunsang Choi @oddpoe (2009-07)	오후에 서울숲 갔다 왔습니다. 평지가 많아서 유모차 끌고 다니기도 편하고, 잔디밭, 개울 등등 애들과 놀아주기 좋게 되어 있네요. 종종 도시락 싸가서 그늘에서 낮잠 자고, 산책도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이용적 측면의 서술을 보면, 이용자가 공간을 체험하고 난 후 그 공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함께 평가를 내리는데, 여러 공간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소감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숲의 ‘길’에 대해 긍정적인 소감을 밝히는 이용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자연적인 흙길이나 우거진 수목 사이의 길들이 도시민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향수를 느끼게 하는 등 다양한 장소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요소임을 암시한다. 다음의 사례는 숲속길을 걷고 난 후의 이용자가 느낀 감정을 서술한 사례이다.[표3-7]

[표3-7] 형성기(2009-2010년)에 형성된 ‘숲속길’에 대한 장소감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블루워터의 꿈 (2009-03)	제가 서울 숲 구경 한 것 중 큰 감동 받은 장면인데 날씨가 좋아 지면서 우거진 큰 나무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분위기는 <b>우와..감동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냥 내가 어디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이쁘지 않나요??</b> 한번 꼭 이 곳을 지나가보श्य요. 내가 다른 세계에 있음에 빠지게 된답니다..
	숨은 보물찾기 프로젝트~~아자!아자! (2010-09)	<b>숲속길, 뽕뽕히 들어찬 나무들이 싱그러워 보인다. 정말 깊은 숲속으로 들어온 느낌이다. 쪽~쪽 뽕어있는 나무들 모습이 시원해 보인다.</b> 숲길을 따라 콧노래 흥얼거리며 산책하다가 살짝 지친 다리도 쉴 겸 벤치에 앉아 푸르름을 만끽해 본다.
	Yeony's Blog (2010-11)	숲속길이에요~ <b>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이 되게 좋더라고요~</b> 사진에는 제대로 느낌이 전달 안 되서 아쉽지만 <b>나무들이 뽕뽕한 게 영화 속에 나오는 곳 같았어요.</b> ^^

이와 같이 공간을 소개하고 공간이 주는 분위기나 풍경에 대한 소극적인 감정을 드러내던 이전과 달리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경험적 관점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평가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용적 담론은 물리적인 시설 및 공간 또한 참여와 체험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이용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참여’를 통해 서울숲이라는 공간을 장소로 받아들여가고 있는 것이다.

#### 4. 문화적 가치를 담는 도시공원의 역할 변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제일의 관심사로 여기던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아실현의 욕구, 문화에 대한 욕구들을 충족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미쳐 양적위주의 개발에서 도시민의 변화하는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린시티(green city) 조성, 생태관광활성화, 문화도시구현 등 도시측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그것이다(김순호 외2, 2012:454).

이와 더불어 공원녹지 또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김유일, 김정규, 2011:157). 이는 도시공원이 더 이상 산책로와 쉼터만을 제공해주던 이전의 도시공원이 아님을 시사한다. 니콜 콜롬브(Nicole Collomb)도 ‘도시공원 국제심포지엄’에서 좋은(High quality) 공원과 도시 내 녹지공간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Nicole Collomb, 2010:23)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회의 분위기 등에 발맞추어 공원은 늘 변화를 촉진하였고 도시문화를 담는 그릇으로 그 역할이 변화되었다.

서울숲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실천하기 위해 시민이 주인이 되어 공원을 지키고 가꾸는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공원에서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전문가에게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표3-8] 도시공원의 변화된 역할을 보여주는 게시물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골무처럼's Room (2011-06)	2011년 중 가장 행복했던 서울숲 속 작은 도서관의 프로그램 “동시 속으로...” (...) 친할머니 보다 내가 더 나이 많은 선생님이라며 어깨를 주물러 주는 모습입니다. 10년 넘게 봉사를 해 보았습니다 만 7살짜리 아이의 안마를 받아 본 건 처음이라 행복하여 눈은 스르르 감기려 하고 있습니다.
	made in 초록구슬 (2011-13)	서울숲에는 참 볼거리도, 경험할 것도 많다. 이번에 내가 서울숲에서 참여한 행사는 사람책과 독자의 만남, <리빙 라이브러리>이다. 리빙라이브러리에서 15명 중 3권의 사람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고민해서 사람책을 정했고 잠시 후, 사람책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리빙라이브러리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내 마음 속 하얀 도화지에 3가지 색이 더 칠해진 것 같다. (...)
트위터	최정희 @hong5154 (2012-04)	지금 서울숲에서는 뇌성마비장애인들을 위한 오투기축제가 한창입니다. 여기저기 사회단체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쌀쌀해지는 가을날씨에 훈훈한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pic.twitter.com/ZOyHBfVJ
	욕심 많은 쭈이 @jjuty (2012-24)	@wonsoonpark @your_rights 서울숲 짜투리 공간에 도시농업 체험장이 생겼네요! 유치원에서 하는지 아가들 이름 써있더라구요. 앞으로도 짜투리를 이용해서 도시농업 체험장이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pic.twitter.com/fg4FIbGr

이상의 사례에서 도시공원은 더 이상 자연을 제공해주는 쉼터만이 아닌, 청소년 교육,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일자리 창출 등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함께 끌어안는 공원의 변화된 역할(Chris Walker, 1994:1)을 인지할 수 있다. [표3-8]의 내용을 통해 공원 관계자가 공간을 제공 및 관리하고, 시민이 수동적으로 이용하던 이전의 모습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서울숲에서는 시민이 직접 공원을 관리하고 가꾸어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본인이 가진 능력을 나누는 공동체적 삶의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단지 보여주기 위한 공원이 아닌 이용적 측면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하여 새로운 공원문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성숙기(2011-2013년)에 이용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서울숲을 상징화하여 서술한 내용은 이용자가 직접 느낀 서울숲의 다양한 역할을 함축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느끼는 휴양림’, ‘사막 속의 오아시스’, ‘서울의 푸른 허파’ 등과 같이 기존 공원이 지닌 1차적 역할을 설명해주는 글은 물론,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공간’,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좋은 체험학습의 공간’, ‘평화로운 공존동생이 펼쳐지는 곳’ 등 서울숲을 묘사하는 언어들은 시민들이 실제로 공원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이곳의 공원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는 지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표3-9] 이와 같이 이용자의 새로운 해석이 포함된 장소적 담론은 서울숲이 지닌 장소적 가치를 대변한다.

다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용자들이 명사와 형용사를 이용하여 ‘서울숲은 어떠한 곳이다.’, ‘무엇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모습에서 장소로서의 서울숲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9] 성숙기(2011-2013년)에 형성된 미시담론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샤련의 감성 여행로드 (2012-01)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면 가끔씩 가게 되는 곳이 서울숲이에요. 삭막한 도시마을인 서울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건, 시민들에게 사막속의 오아시스 아닌가요?
	산내들 (2013-15)	서울숲.. 바쁜 도시인에게 사계절 쉼터를 제공해 주는 서울숲이다. 오늘은 눈이 쌓여있어 산책과 자전거 타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지만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트위터	룰루랄라 @Huh0127 (2012-25)	서울시 서울숲!! 도심 속에서 자연과 바람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숲이 진정한 바람의 명소라고 생각합니다! #no1wind

또한, 서울숲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혹은 인상 깊었던 장소를 소개하는 이용자들의 기록은 서울숲이 이전보다 훨씬 더 도시공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이용자의

만족을 이끌어내어 애착을 갖게 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표3-10]

[표3-10] 장소로서의 서울숲을 보여주는 서술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공감배려돌봄 (2011-12)	조금 더 걷다 보면 쪽쪽 뺀 나무들이 촘촘히 심어져 있는 산림욕장이 있어요. 서울숲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예요~ 저 벤치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한해지거든요.
	민서맘의 행복한 세상살이 (2013-04)	이곳은 제가 서울숲공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길에는 메타세콰이어가 한 줄로 서 있구요, 안쪽에는 모두 은행나무로 되어있어요. 봄에는 싱그러운 새싹들이 돋고 여름에는 푸르디푸르고 가을에는 온통 은행잎이라 노란세상이 아주 볼만하죠. 겨울에는 눈이 덮여 꼭 동화 속 눈길을 걷는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트위터	김현지 @kimhjya (2012-05)	여기는 노출 콘크리트를 워낙 좋아하는 내가 서울숲에서 엄청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이름이 '허브공원'인건 처음 알았다. 몇 년 전에 왔을 땐 그냥 행했다!! ㅎㅎ #서울숲 pic.twitter.com/iMG9nXaM

이와 같은 장소적 담론은 이용자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타인이 알려준 것이 아닌 직접 체득하여 얻은 느낌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서울숲을 자신만의 상징적인 언어로 대치시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에 대한 해석과 의미부여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 이 담론은 주로 여러 번 방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 서울숲을 꾸준히 찾게 되는지를 함축한다. 긍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장소적 담론을 통해 초기와 전개기, 형성기를 거치는 동안 서울숲이 많이 변화한 만큼 서울숲에 대한 시민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3절 소결

3장에서는 2장에서 정의한 담론이 서울숲을 서술한 1인 미디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서울숲이 조성된 초기부터 현재까지 총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생산된 일반인들의 미시담론을 파악하였다.

서울숲 조성 초기에는 서울숲을 처음 방문한 후 첫인상에 대해 기록한 게시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당시 모습에 대한 실망감이 주를 이루었으나, 서울숲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 또한 함께 서술되었다. 또한, 서울숲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이 반영된 언급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당시의 미시담론을 사회·정치적 시각이 반영된 사회적 담론이라 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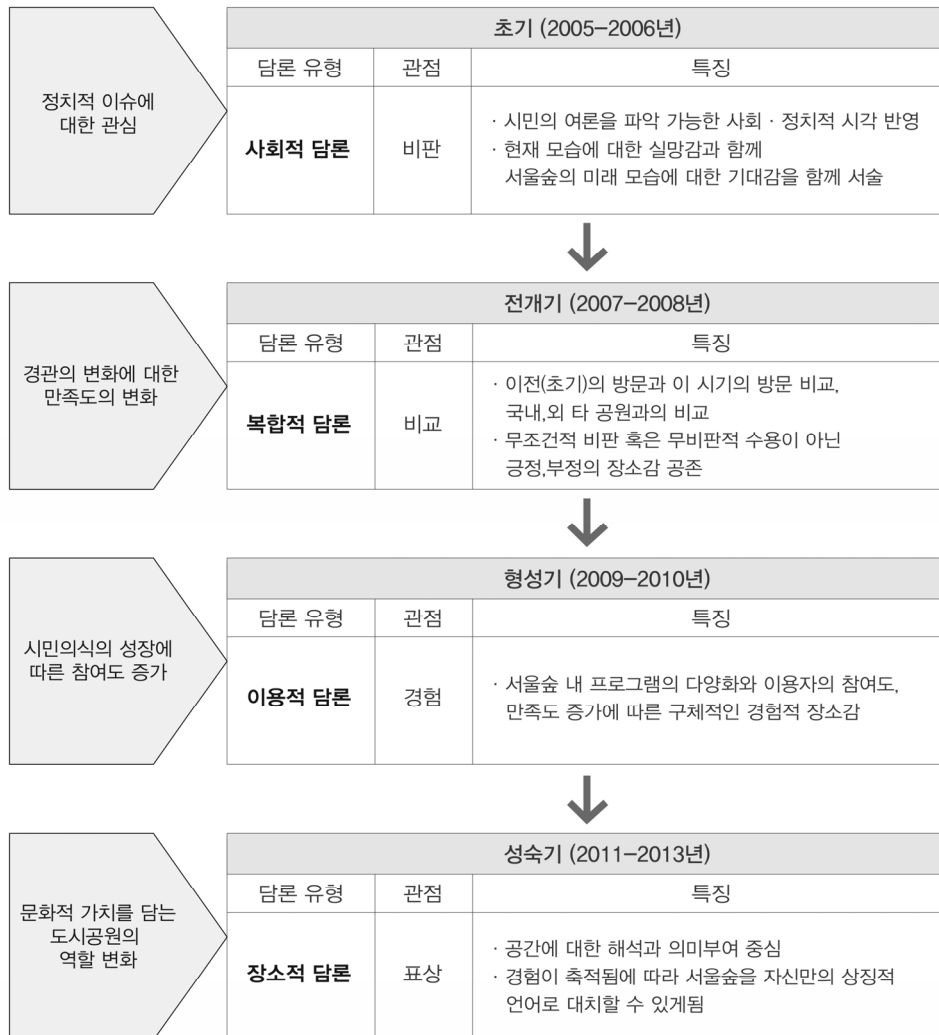
전개기인 2007년과 2008년에는 비교적 관점으로 서울숲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이용자가 현저하게 많았다. 서울이라는 도시 내에 녹색 경관이 유입되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소감이나 공원 내 울창해진 수목에 대한 경관의 변화에서 오는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용자들은 첫 방문 시와 재방문 시를 비교하는가 하면, 서울의 타 공원 및 외국의 공원과 비교하면서 개인적인 호감을 드러내었다. 같은 공원과 비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용자의 성향 및 비교 기준 등에 따라 그 소감 및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혹은 그 두 가지가 공존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용자의 복합적인 감정과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복합적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형성기에는 이용자들이 서울숲을 이용한 후에 유발되는 감정을 중심으로 서술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시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시민들은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며 서울숲을 단순히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 위한 공원이 아닌, 참여자로서 공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그들의 게시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전

보다 더 이용자적인 입장에서 서울숲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서술한 것으로 서울숲 내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이용자의 참여도, 만족도 증가에 따른 이용적 담론이 형성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숙기에는 이용자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형성되는 미시담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서울숲을 경험하게 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서울숲을 자신만의 언어로 형용하는 이 시기의 이용자들은 서울숲이라는 공간을 장소로 받아들여 장소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의 배후에는 변화된 공원의 역할이 자리하고 있었다. 공원을 녹지로만 바라보던 이전과 달리, 문화시설 중 하나로서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함께 끌어안고 새로운 공원문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더 쉽고 친근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1인 미디어에 게시된 실제 이용 주체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은 서울숲이 참여형 공원으로서 이용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증명한다. 3장 이어 4장에서는 미시담론 중에서 장소감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자가 서울숲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드러내고 그 감정을 끌어내는 요인은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그림3-2] 미시담론의 형성 배경 및 시계열적 변화

## 제4장 서울숲 담론을 이루는 장소감 해석

### 제1절 장소감 읽기의 관점

장소감을 읽어내는 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는, 체험연구 방법에서의 “지향적 해명의 방법<sup>26)</sup>”을 차용한 해석이다. 서울숲을 어떤 동기 및 목적에 방문했을 때 장소감이 두드러지며, 체험한 대상의 분포와 서울숲에 대한 소감·평가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장소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경험 요소에 따라 읽어낸 장소감에 이어 서울숲의 각 대상 및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들의 장소감을 읽는 것은 실제로 서울숲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각 대상·공간에 대해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무엇을 싫어하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견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후에 공간별 이용후평가를 내리거나 타 공원을 설계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전문가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이용자의 견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기서의 세부 공간은 4장 1절에서 도출된 체험된 대상을 바탕으로 장소감이 많이 드러나는 주요 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파악된 장소감이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어떠한 요인으로 형성되는지 정리함으로써 서울숲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장소감을 다양한 각도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

26) 각주 7 참고.

## 1. 경험 요소에 따른 장소감 읽기

### (1) 블로그에서 포착한 장소감

#### 1) 동기와 목적

표본으로 추출된 240개의 블로그는 일기 형식으로 서술된 것이 주를 이룬다. 이 표본에서 방문 동기 및 목적을 파악한 결과, 크게 7가지로 분류되었다. 블로거가 언급한 단어를 중심으로 각 항목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는데, 나들이, 산책, 데이트, 출사, 라이딩(riding), 운동 등이 주요 목적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필요에 의한 답사, 학교 수업, 프로그램 참여 등이 해당된다.[표4-1] 이 중에서 나들이 및 산책을 위한 서울숲 방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를 통해 나들이와 산책을 위해 서울숲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물론, 서울숲이 일상생활에 밀착된 공원이 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블로그가 특별한 목적의 글쓰기를 위한 공간이 아닌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최적의 매체임을 증명한다.

[표4-1] 블로그에 나타난 서울숲 방문 동기 및 목적

	나들이	산책	데이트	출사	라이딩	운동	기타	계
2005	6	2	3	1	2	0	1	15
2006	7	16	3	1	0	0	3	30
2007	4	19	3	1	2	1	0	30
2008	10	13	0	5	2	0	0	30
2009	16	6	2	2	2	1	1	30
2010	9	13	4	4	0	0	0	30
2011	7	18	1	1	1	0	2	30
2012	15	9	2	4	0	0	0	30
2013	6	8	0	0	0	0	1	15
계	80	105	18	18	9	2	8	240

이 때, 블로거는 객관적인 설명과 함께 나들이와 산책을 위한 장소로서 서울숲에 대한 장소감을 드러낸다.[표4-2] 한편, 데이트를 위한 방문객은 서울숲이 데이트를 하기에 좋은 이유와 함께 인물 중심의 이미지를 게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



면, 출사와 라이딩, 운동을 위한 방문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설명이나 평가보다는 대상이나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주로 게시하는 현상을 보였다.

[표4-2] 나들이 및 산책을 목적으로 방문한 블로거의 장소감 사례

블로그명	내 용
Images la sauvette (2007-7)	나무도 많고 쉼 곳도 많고 여가활동(인라인, 자전거 등)도 즐길 수 있고.. <b>가족 나들이하기에는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b> 이 들었다.
블루워터의 꿈 (2009-03)	<b>정말 이쁜 또 하나의 볼 곳.</b> 정말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게 <b>이국적으로 꾸며진 하나하나가 그냥 편안함</b> 을 저에게 주기만 한답니다. (물놀이터에 대한 장소감)
Remember (2012-04)	서울숲은 <b>인공적 아름다운과 자연의 조화가 잘 이루어 지는 공원</b> 입니다. 커다란 호수도 있고, 나비 정원, 사슴 먹이주기 체험, 체육 공원, 역새 밭,메타세콰이어 길, 은행나무 길, 등 참 많은 것들이 있네요. 가을의 서울 숲은 <b>정말 아름다운 것</b> 같아요.

## 2) 체험된 대상

체험연구에서는 모든 체험이 체험된 대상을 본질적 요소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체험에 대한 해명은 주체가 경험한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다. 주체가 무엇을 경험하였고 그 경험과 더불어 무엇을 느꼈는지 등이 해명되어야 한다. 본 연구 또한 이용자가 서울숲에서 체험한 대상과 그 느낌을 설명함으로써 서울숲에서의 체험에서 비롯된 다층적인 장소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와 트위터 이용자들이 게시한 특정 대상의 이미지는 시각적인 경험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하였고 이미지를 게시한 대상을 ‘체험된’ 것이라 정하였다. 이를 파악함으로써 세부 공간이나 대상에 대한 주관적 선호와 함께 시기 별 선호 대상에 대한 분포와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숲이 개장한 날로부터 8년이 흐른 것을 고려하여 240개의 블로그 표본 중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의 각 30개의 표본에 대해 체험 대상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각 블로그에서 같은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장일 경우,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2006년에 작성된 블로그에는 ‘보행가교[그림4-1]’와 ‘숲속놀이터’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많았고, 각 공간에 대한 설명과 의견, 평가, 감정 등이 함께 서술되었다. 다음으로 ‘거울연못’과 ‘바닥분수’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당시는 일기장 대용으로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블로그 이용이 다른 시기만큼 활발하지 않아 이미지나 텍스트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텍스트로 체험된 대상을 서술한 경우, 특정 공간이나 대상에서의 경험에 대한 것보다는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울숲 전체의 첫인상에 대한 서술이 더 많았다.



(2006-02)



(2006-03)



(200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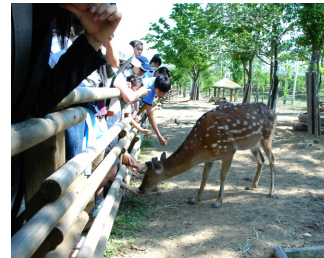
[그림4-1] 2006년에 작성된 블로그의 체험 대상 : 보행가교



(2008-06)



(2008-09)



(2008-22)

[그림4-2] 2008년에 작성된 블로그의 체험 대상 : 생태숲의 꽃사슴

한편, 2008년에 작성된 블로그에는 각 공간들 뿐 아니라 특정 공간 및 대상에서의 체험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많았다. 생태숲에서 꽃사슴 먹이주기 체험을 하면서 촬영한 이미지[그림4-2], 문화예술공원 내 연못의 잉어 떼나 식물원을 관람하면서 촬영한 식물 이미지들이 게시되어 있다. 가장 많이 게시된 체험 공간으로는 ‘거울연못’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이를 촬영함으로써 시각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군마상’, ‘바닥분수’, ‘조각 정원’, ‘무장애놀이터 및 숲속 놀이터’, ‘숲속길’의 이미지가 많이 발견되었다.[그림4-3,4] ‘무장애놀이터’와 ‘조각정원’에 대한 이미지 및 서술 증가는 서울숲이 정착되어가는 도시공원 중 하나로서 이전보다 ‘불거리’와 ‘할 거리’가 많은 곳에서 이용자가 많이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2010-05)



(2010-14)



(2010-16)

[그림4-3] 2010년에 작성된 블로그의 체험 대상 : 조각정원



(2010-09)



(2010-24)



(2010-25)

[그림4-4] 2010년에 작성된 블로그의 체험 대상 : 무장애놀이터

2012년 또한, 이용자들은 ‘숲속길[그림4-5]’과 ‘숲속놀이터’, ‘가족마당’의 이미지와 각 공간에서의 경험과 감정이 가장 많이 드러났다. 이는 ‘숲속길’과 ‘바닥분수’ 등에서의 이미지 및 경험 내용과 주관적인 생각이 이전의 다른 블로그에 많이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구도의 이미지와 학습한 경험, 감정 등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곤충식물원과 나비정원 또는 숲속놀이터와 무장애놀이터만을 서술한 블로



(2012-08)

(2012-21)

(2012-27)

[그림4-5] 2012년에 작성된 블로그의 체험 대상 : 숲속길

그들이 있었는데, 이는 서울숲 전체를 산책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곤충식물원 관람, 놀이터 이용 등의 목적을 갖고 특정 대상이나 세부 공간에서의 경험을 위한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은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접한 곳들을 가보거나, 이전의 경험이 만족스러워 재방문하는 경우로 나뉜다.

한편, 기존에 1인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된 대상 외에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던 대상 혹은 새롭게 조성된 공간이나 시설물 등에서의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스케이트파크는 이전부터 조성되어 있었으나, 블로그에서 이곳이 서술된 것은 2012년의 표본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2012년에 개장한 시민참여텃밭에 관한 이미지와 서술도 이 때 작성된 블로그들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스케이트파크에서의 체험 같은 경우, 본 연구에서 추출된 표본 중에서 2012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므로 이 공간이 2012년에 처음 이용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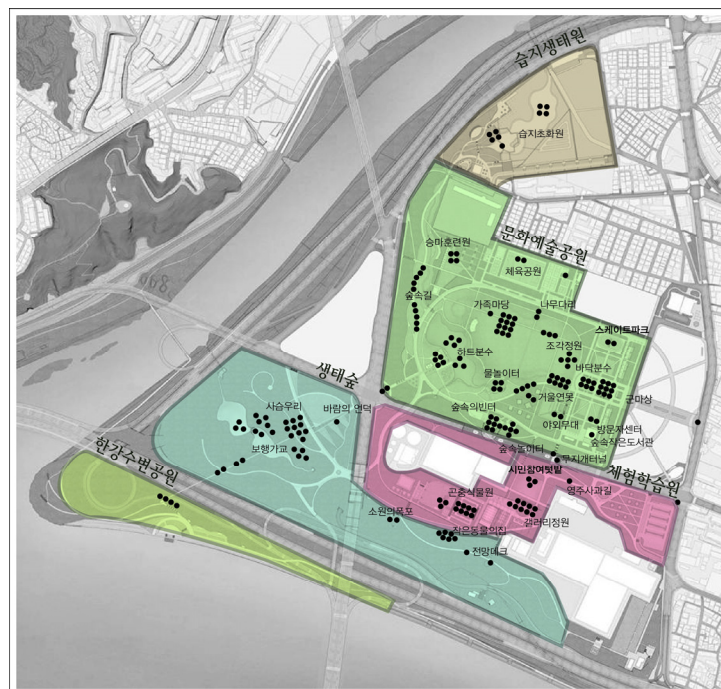
지금까지 서울숲에서의 체험 대상을 연도별로 파악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대상의 체험이 눈에 띄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는 서울숲이 타공원과 차별화된 공간과 대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이용자 혹은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4-8] 2010년 블로그에 서술된 체험 대상



[그림4-9] 2012년 블로그에 서술된 체험 대상

이들을 취합하여 체험된 대상을 분석한 결과, 주요 체험 대상은 군마상, 거울연못, 바닥분수, 무장애놀이터 및 숲속놀이터 등으로 서울숲의 다섯 가지 테마 공원 중 서울숲 중앙에 위치한 문화예술공원 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자는 블로그에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대상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시각적 경험이나 물리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은 문화예술공원에서의 대상에 대한 이미지와 서술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3) 주체의 소감·평가

앞서 밝혀 낸 체험 대상과 함께 주체가 그 대상들에 대해 갖는 느낌, 소감, 평가 등 또한 체험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대상에 대한 소감 및 평가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개입 없이 실제 이용 주체의 솔직한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돕는다. 블로그에 기록된 소감·평가는 이미지보다 텍스트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용자들은 명사나 형용사를 이용하여 서울숲 자체나 세부 대상, 공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장소감과 직결되는 것으로, 장소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가감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이용자들은 서울숲 전체에 대한 소감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그 외의 소감은 특정 대상 및 공간에 대한 것, 실제로 참여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서울숲 전체에 대한 소감 및 평가를 연도 별 대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4-3] 서울숲이 조성된 초기에는 직접 방문하기 전, ‘서울숲’이라는 공원 이름에서 받은 느낌과 직접 방문한 후의 느낌을 비교하면서 소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실망과 불만이 주요 내용이었던 조성 초기의 미시담론들은 이 전 방문과 비교했을 때 더 좋아진 점에 대해 서술 하면서 서울숲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의견으로 대체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들은 서울숲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경관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서울숲이 담고 있는 가치를 인지하고 그로부터 받은 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표4-3] 블로그에 나타난 연도 별 소감 및 평가 사례

연도	서울숲 전체에 대한 소감 · 평가
2005	많은 사람들이 수목원 같은 이미지를 기대하고 오는 듯 했습니다만, 숲 느낌 이라기보다는, 공원 느낌이더군요. (2005-15)
2006	서울이 조금은 더 감성적으로 느껴지게 된다. 이름도 멋진 서울 숲. 우리가 살 고 있는 서울의 한 복판에 숲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울이 왠지 멋있는 듯 한 느낌이 든다. (2006-03)
2007	이곳의 느낌은 그랬다. 내가 어릴때 외갓집 강가, 외갓집의 시골길, 그곳에서 의 산...의 느낌이 조금 묻어 나온다. 그만큼, 자연상태를 최대한 배려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2007-15)
2008	내 기억 속에 있는 공원의 이미지는 경주의 황성공원의 모습이다.. (...) 우범 지대 황성공원이었다.. 그게 내 어릴 적 공원에 대한 이미지였다.. 거기에 반 해서, 서울숲은 과거의 공원에 대한 이미지를 깨기에 충분하도록 편안하고 다 정한 모습이다..(2008-21)
2009	처음 서울숲 공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만큼의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정 말 너무 환상적인 공간이 되어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소를 주는 곳이 되었습니 다. 공장지대로 공기가 정말 나뻐던 성수동에 꽃이 피고 노루가 뛰어다니고 새가 날아다니고...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될 날이 왔다는 게 신기할 뿐이죠. (2009-08)
2010	이 서울숲은 한 꺼풀씩 겹질을 벗겨도 속이 차있는 양파처럼 많은 볼거리를 간직하고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보여준다.(...)이곳 서울숲은 공원에서 가질 수 있는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자연 공간이 확보 되어져 있고, 일반 공 원들의 단조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볼거리들이 무리 없이 잘 어우러져 있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된다. (2010-02)
2011	간간히 부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음료를 마시며 한가로이 수다를 떠니 여기서 천국이 아닐까 싶었다. ^^ 카메라에는 이국적인 분위기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찾으려면 우리나라에 도 충분히 많은 것을.... ^^ (2011-27)
2012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최고로 아름답지만, 굳이 인간의 삶에 끌어들여야 한다면.. 많이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인공이 가미된다면 그 때부터 자연이 아닌게 되니까요... 서울숲... 자연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자연을 우리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즐기게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담은 공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2012-07)
2013	멋진 풍경은 물론, 토끼와 기니피그 그리고 사슴들까지~ 자연을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죠? (2013-08)



주체의 소감 및 평가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연도 별 게시물에서의 서술 횟수를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시물에서 서울숲 전체에 대한 소감, 평가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경험한 각각의 대상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그것을 종합하여 서울숲 전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하나의 게시물 내에 긍정적인 소감과 부정적인 소감이 혼재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조성 초기에 작성된 게시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이나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수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나, 서울숲 자체에 대한 소감과 기대는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경향을 예로 들 수 있다.

## **(2) 트위터에서 포착한 장소감**

### **1) 동기와 목적**

트위터는 140자라는 글자 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서술 내용에서 방문 동기 및 목적을 상세하게 적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또한, 블로그와 달리 짧고 간편한 업로드 기능으로 인해 서울숲을 오가는 길이나 서울숲 내에서 트위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설명하는 것이 곧 방문 목적이 된다.

98개 트윗 중에서 명확하게 방문 목적이 드러난 트윗 약 60개 중 32개가 나들이 및 산책, 휴식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출사, 라이딩, 운동, 공연 관람,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이용자들이었으나 그 수는 많지 않았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서울숲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기분이 어떠한 지 등을 트위터에 서술하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고 노출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특성과 부합한다.

[표4-4] 방문 동기 및 목적을 드러낸 트위터 사례

트위터명	내 용
Seung Bong, Jeon @jsbsports	오랜만에 서울숲에 와서 애하고 야구와 자전거 타면서 놀고 있 다. 푸른하늘 가로막는 거대한 괴물. 멋있기도 하지만 왠지 어색 하네... 담에 괴물 조정실로 이사 가지...ㅋㅋ (2011-11)
Zzangwoo @zzangwoo	바쁜 일상속에서 여유를 찾기란 힘든일, 또한 서울에 이렇게 좋 은 공간이 있지만 요즘처럼 바빠 다녀오기 힘들다. <b>일 때문에 찾 은 서울숲이지만 그래도 좋다!</b> 이렇게 눈망을 초롱초롱한 사슴을 만나 잠깐의 여유를 즐겼으니 (2012-01)
Lee eun-young @LEY0924	4월의 가족봉사~ 서울숲"내가 만드는 진달래 동산" 우리가 심은 진달래가 이쁜 동산을 만들기 바라며~ (2012-21)
Kim moonjeong @dalpiri	<b>비오는 날 우산 쓰고 서울숲 산책 중.</b> 사람은 없고 숲은 넓어서 숨이 트이는 듯. 까치 한마리가 날아와 공간을 채워주었다. (2013-07)

## 2) 체험된 대상

블로그에서는 한 게시물에 여러 체험 대상에 대한 서술과 이미지가 게시된 반면 글자 수가 제한된 트위터에는 하나 혹은 두 개의 대상이 서술되어있다. 텍스트 서술 대신에 이미지를 게시하여 구체적인 체험 대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트위터 표본에 나타난 주요 체험 대상으로는 꽃사슴, 곤충식물원, 가족마당이었으며 이 외에도 갯리리정원, 숲속길, 바닥분수, 툄립, 산책로 등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이용자가 많았다. 다음은 트위터에 게시된 꽃사슴 이미지[그림4-10]와 서술 사례이다.[표4-5]

트위터에서는 서술된 내용과 게시된 이미지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글자 및 이미지 수가 제한된 트위터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며, 그렇기 때문에 서울숲 전반에 대한 감정이나 경험을 서술하고, 이용자 자신이 보기에 가장 마음에 드는 특정 대상이나 공간의 이미지를 게시하게 된다.



(2010-09)



(2011-03)



(2012-01)

[그림4-10] 이용자들이 트위터에 게시한 ‘꽃사슴’의 이미지들

[표4-5] 꽃사슴을 체험한 이용자의 트윗 사례

트위터명	내 용
Daegeun Lee @daegeunlee	서울숲 가서 <b>꽃사슴 모이도 주고</b> 한강시민공원에서 트럼펫도 부르고 왔습니다 앞으로 일요일은 이렇게 놀아제길 예정입니다! 으하하!!(2010-09)
Impyeong Lee @ip820	선우랑 서울숲에서 즐거운 시간.. 자전거 타고, <b>꽃사슴 먹이 주고</b> , 놀이터 가고, 아이스크림 먹고.. (2012-36)
yoon @yoondal	<b>서울숲 사슴 먹이주고 오다.</b> 돌아가는 길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우루루 계단으로 막 올라간다 아이는 저도 함께 따라 올라가고 그 위에 가보니 이것이 있더라 구름 한점 없는 하늘과 참 잘 어울린다지금 (2012-11)

### 3) 주체의 소감·평가

트위터 이용자들은 서울숲에 대한 소감 및 평가 또한 간단하게 표현하였다. 그 표현 언어에 있어서는 ‘좋다’, ‘예쁘다’, ‘아름답다’, ‘편하다’와 같은 기본적인 형용사를 이용하였으며, 서울숲 전체에 대한 소감을 서술하거나 특정 장소 및 대상을 예를 들면서 소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블로그와 달리 트위터에서는 많은 이용자들이 서울숲에서 ‘무엇을 하(했)는지’, ‘무엇을 보(았)고 어떤 경험을 하(했)는지’와 같은 사실 위주의 서술이 많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장소감을 읽어낼 수 있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4-6] 서울숲에 대한 소감 및 평가를 서술한 트위터 사례

트위터명	내 용	이미지
Yunsang Choi @oddpoeet	오후에 서울숲 갔다 왔습니다. 평지가 많아서 유모차 끌고 다니기도 편하고, 잔디밭, 개울 등 등 애들과 놀아주기 좋게 되어 있네요. 종종 도 시락 싸가서 그늘에서 낮잠 자고, 산책도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2009-07)	없음
조재호 @jo1nn	서울숲. 고요하고 적막해. 내가 가능할 수 있는 수치로 따지자면 빗방울이 백만 개쯤 내리고 누 군가의 추억도 그만큼은 흘러 내렸을 거야. (2010-02)	
김종윤(Geoffrey) @ilys518	서울숲.. 식물원.. 길 간만에 <b>편한 마음</b> 으로 콧바람 느끼며 걸으니 <b>너무 좋았음</b> ㅎㅎ답에 또 갈꺼임g(2012-27)	
쇼셜농부sung hwan-kim @duduksh	<b>봄꽃과 호수 그리고 빌딩의 조화가 아름다운 어 느 봄날의 "서울숲"</b> 우리정치도 이렇게 아름다 웠으면 하는 제바램 과욕일까~~~ (2012-34)	

## 2. 서울숲의 공간 별 장소감 읽기

### (1) 문화예술공원

#### 1) 군마상

현재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 3, 4번 출구와 근접한 서울숲의 2번 출입구는 16개의 서울숲 출입구 중 주 출입구로 이용될 만큼 그 이용도가 높다. 분당선이 개통되기 전부터 시민들이 뚝섬역을 이용할 때에도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던 출입구이다. 서울숲의 2번 출입구로 진입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군마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이를 카메라에 담고 사진을 1인 미디어에 게시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대상이나 공간에 비해 그를 촬영한 이미지의 양이 많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군마상의 외적인 모습을 ‘생동감이 있다’거나, ‘역동적’이라는 말로 묘사를 하고 있다.[표4-7]

[표4-7] 군마상에 대한 장소감 사례





블로그/트위터명	내 용	이미지
당신에게 들려주고싶은 아주 소소한 이야기 (2006-07)	분수에서 몇 장면 찍고 고개를 돌려보니 경마를 하고 있는 조형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b>너무 역동적으로 보여 마음이 훌쩍 들어 버려서</b> 당장에 그쪽으로 사진을 찍으러 갔다.	
풍경속으로... (2010-02)	이곳이 예전에 독섬 경마장이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라도 하듯이 이제 출발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는 경주마들의 모습이 <b>역동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다</b> . 사실 지금까지 실제로 하는 경마를 본 적이 없기에 비록 조각상이지만 <b>그 느낌만은 강하게 전달이 되어져 올 정도로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b> 생각이 든다.	
샤련의 감성 여행로드 (2012-1)	서울숲의 상징 군마상. 서울숲 입구를 들어서면 금방이라도 뛰어나갈듯이 <b>생생하게 만들어진 말탄 기수들과 만나게 된다</b> . 기존 승마장이 있던 독섬체육공원 일대를 개발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b>숲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 역할은</b> <b>특특히 해내고 있는 것 같다</b> .	

또한, “옛 경마장터에 공원을 조성해서인지 꽃밭 한 가운데는 경주 장면인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다.(2007-01)”, “원래 경마장이 있던 자리여서 일까. 입구에 있던 기수상, 아 안쪽에 승마트랙도 있더라.(2007-06)” 라고 서술한 이용자들의 글처럼 설계가가 군마상에 담으려고 한 장소적 의미를 명확히 아는 이용자보다 추측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 2) 바닥분수

바닥분수는 서울숲의 주 출입구에서 사람들의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여 그들을 공원으로 흡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 내는 소리, 아이들이 분수 가운데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소리와 움직임 등은 보는 이용자들을 즐겁게 만들어준다. 이처럼 바닥분수에 대한 감정은 그 자체에 대한 감정보다 바닥분수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 주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생긴 느낌이 많았다. 그 외에 바닥분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와 분수 옆에 설치된 탈의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살펴볼 수 있다.

[표4-8] 바닥분수에 대한 장소감 사례

블로그/트위터명	내 용	이미지
살아가는 이야기 (2007-01)	분수 옆에 설치된 현수막에 걸린 글귀 -"바닥분수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맙시다" 관리인이 부근에 있었지만 (...) <b>아이들의 물놀이를 제지하지는 않는다. 융통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박수. 아이들 천국이 따로 없다.</b>	
초록물괴기의 외출 (2008-29)	바닥에서 물이 나와서 떨어지는 시점엔 <b>물보라와 물줄기가 섞인다.. 그 모습이 좋다. 그리고 바닥 분수는 뭔가 자유스러워서 좋다.</b>	
하얀쭈마의 육아본능 (2009-08)	서울숲에 가장 큰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바로 분수대. 분수대를 꼭 채울 만큼의 아이들 또는 학생들... 또는 아저씨들까지.. 뛰어 들어가 <b>한여름 무더위를 날리는 곳. (...)그 광경을 보면서.. 절로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함께 소리까지 질러버리게 되더라는..</b>	
네이버 블로그 (2011-26)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바닥분수 . 옆에 <b>탈의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눈에 띄었다.</b> 작정하고 수영복 입고 노는 아이들도 많았다.	

### 3) 거울연못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운치 있는’, ‘잔잔한’, ‘고요한’이라는 표현으로 거울연못을 표현하고 이를 본 소감을 밝혔다. 그들은 이를 서울숲을 대표하는 공간 중 하나로 여기며, 연못에 투영된 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대부분의 1인 미디어 특히, 블로그에서 거울연못의 이미지를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표4-9] 거울연못에 대한 장소감 사례

블로그/트위터명	내 용	이미지
공간기행 (2006-08)	여름내 장관을 보여주던 "거울연못"은 물이 모두 빠져 있다. 대신 그 자리를 눈이 채우고 있었다. 여름엔 여름대로의 운치가 있었지만 눈으로 채워진 지금은.. 겨울 나름의 운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나무 창가 옆 글쟁이 (2010-14)	밑에 풍경이 반사된 느낌이 꼭 유화가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메타세콰이어는 서로 마주보며 가로수를 이루어야 멋진데 이곳은 한쪽으로만 심어놨더군요.	
사련의 감성 여행로드 (2012-01)	볼 때마다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울연못. 진부하고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숲공원에 점을 하나 찍은 곳이라고 해도 될 듯싶다. 길게 늘어선 나무의 초록빛이 그대로 담긴 잔잔한 거울연못은 서울숲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토 포인트라는 생각도 해본다. 물에 비춰지는 반영이 재미있어서 한참을 머물게 되는 거울연못.	

그러나 거울연못 주변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뿐 아니라 저 멀리의 응봉산까지 연못에 투영시켜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담고자 한 설계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인지한 이용자는 드물었다. 오히려 거울연못에 들어가 물을 침범거리며 노는 어린이들이 생겨날 정도였다. 한 이용자의 장소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반인들이 그냥 딱 봤을 때 의도가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러 있었어요; 예를 들면 거울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검은 바닥에 물을 얇게 채워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나 본인 같으면 뛰어 들어갈 뻔 했답니다;;(블로그:2005-1)”



#### 4) 조각정원

이용자들은 서울숲 잔디밭에 놓인 다양한 조각 작품들을 보면서 조각 하나 하나에 대한 소감을 기록하기보다 공원에서 조각품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 감정을 드러냈다. ‘예술공원’, ‘종합공원’에 온 것 같다는 이용자들의 장소감은 숲과 예술품이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을 목표로 한 설계가의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4-10]의 아래 두 사례와 같이 조각품이 설치된 조각정원에 대해 부정적인 장소감을 드러내는 이용자도 있었다.

[표4-10] 조각정원에 대한 장소감 사례

블로그/트위터명	내 용	이미지
Be Sunny (2010-15)	조각 공원이라고 해서 이런 조형물도 많았다. 예술공원에 온 듯한 느낌.	
RivErmAn-잔잔한 Vandalist (2010-16)	이 또한 어딜가나 하나씩 있는 조각공원,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은 서울숲에는 이것저것 다양한 볼거리가 많고 그냥 숲이 아니라 종합공원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조각, 나는 예술작품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나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일체의 느낌을 의미화시킨 조각, 인간의 본질에 대한 구도를 조각한 것, 뭐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뭔가 멜랑콜리한 느낌이 들기도 한 인상적인 조각.	
건담아빠의 조경세계 (2011-11)	녹지공간에 조형물의 설치의 공간적으로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배치라고 생각된다. 이유는 도대체 이 공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알 수 가 없어서 이다. 즉 전시하는 시설이 있으며 잠시 포켓형식으로라도 발걸음이 머물게 하는 그런 여유가 반영되면 안됐던 것일까?	
World according to Jennis, It's my world (2005-09)	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청동 조각 등은 역시 인간이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만든 곳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주었다.	없음

### 5) 거인상(무장애놀이터)

무장애놀이터에 설치된 거인상 놀이시설은 기존 놀이시설과 차별화된 생김새와 규모의 독특함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호응을 가장 많이 받은 공간 중 하나이다. 총 340개의 표본에서 이 대상에 대해 많은 이용자들이 장소감을 게시하였지만, 그 중 부정적인 장소감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대상이기도 하다. 이용자들은 거인상의 외적 모습을 서술하면서 아래의 사례와 같은 감성적인 장소감을 표출하였다.

[표4-11] 거인상에 대한 장소감 사례

블로그/트위터명	내 용	이미지
Story teller (2007-20)	너무 맘에 드는 이 녀석... 골격만 있는 이 녀석은 아이들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 아!!! 맘에 든다....작품을 몸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조화... 좋다.. 저 녀석 심장 쪽에 붙어있는 바람개비의 의미를 알고 싶었지만.. 아무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패스~ 체력만 좋다면 야.. 머리 위에도 올라갈 수 있으리.. 그럼 저 녀석과 교감을 할 수 있을까?	
나무야 놀자 (2008-07)	서울숲에 있는 대형 인간 조형물 사진이에요. 마치 달리기 전 준비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슴에 달려 있는 바람개비가 잘 뿔 수 있도록 응원해 줄 것 같아요.	
숨은 보물찾기 프로젝트~~아자! 아자! (2010-09)	거대한 사람 모양의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숲 속에 착한 거인이 앉아 아이들이 노는 걸 즐겁게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Be Sunny (2010-15)	거인의 마을이었나?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특이한 장소도 있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일단 생김새에서 호기심을 넣으니 아이들이 더욱 즐겁게 놀 수 있을 듯 하다.^^	

## 6) 숲속길<sup>27)</sup>

숲속길은 그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나무들이 우거져 숲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산책로로 이용객들에게도 서울숲에서 가장 숲 같은 곳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이용객들은 ‘숲’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감정을 중심으로 숲속길에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계절마다 변하는 숲속길의 모습에도 의미를 부여하여 긍정적인 장소감을 드러내고 있다.

[표4-12] 숲속길에 대한 장소감 사례

블로그/트위터명	내 용	이미지
공간기행 (2006-08)	마치 북구의 어느 곳을 지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던 곳. 촘촘히 심어진 나무들 사이로 사뻏히 내려앉은 눈이 주위와 너무 잘 어우러져 외국의 유명공원도 부럽지 않던.. 바로 그 곳이... 서울숲 안에 있었다.	
RivErmAn-잔잔한 Vandalist (2010-16)	참으로 쉬고 싶은 분위기, 도심속에서 지리산 어디 절 앞 숲길에서 쉬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 장소는 나를 앓게 했고 태풍 곤파스도 허리케인 박이 몰아쳐도 나오는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 고요함과 숲내음이 나를 쉬게 했다.	
민서맘의 행복한 세상살이 (2013-04)	이곳은 제가 서울숲공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곁에는 메타세콰이어가 한 줄로 서있구요, 안쪽에는 모두 은행나무로 되어있어요. 봄에는 싱그러운 새싹들이 돋고 여름에는 푸르디 푸르고 가을에는 온통 은행잎이라 노란세상이 아주 볼만하죠. 겨울에는 눈이 덮여 꼭 동화속 눈길을 걷는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27) 그 외 더 많은 숲속길에 대한 장소감은 [표3-7] 참고.

## 7) 그 외

주요 대상 및 공간 외에도 이용자들은 개인적인 호감에 따라 특정 대상 및 공간 별로 장소감을 드러내었다. 그 수는 많지 않았지만 대체로 큰 이슈가 되는 내용만을 확일적으로 전달하는 대중매체에서는 접하기 힘든 것으로, 개인적이고 미시적 차원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1인 미디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블로그 ‘나무야 놀자’를 운영하는 블로거(2008-07)는 숲속의 빈터 네 곳에 대한 짧은 소감을 기록하였다. 이 블로거는 숲속의 빈터 각 공간에 사용된 소재와 시설물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비슷비슷한 공간을 다른 테마로 디자인 했네요. 놓는 소재에 따라 공간의 느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첫번째 공간은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어요. (...) 가까이 가보니 테이블 위에서 바둑을 둘 수 있도록 했네요. 디자이너의 웃음과 재치가 묻어나네요~~ 두 번째 공간은 돌들을 쌓아놓았네요. 큰 돌, 작은 돌들이 어우러져 그 자체로 멋진 공간이 연출되었어요. (...) 세 번째 공간은 메탈소재의 긴 의자를 놓았네요.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공간의 느낌이 나요. 바닥도 시원시원하게 사선으로 분할했네요. 네 번째 공간은 철근으로 구성했네요. 바닥도 의자도 철근으로 구성하니 통일된 느낌이 나네요. 파란 잔디가 돋는다면 지금의 차가운 느낌이 좀 중화되겠죠?”



[그림4-11] 이용자가 게시한 숲속의 빈터 이미지

또한, 2012년에 새롭게 조성된 커뮤니티가든인 시민참여텃밭을 본 이용자는 그에 대한 장소적 가치를 서술함으로써 장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칸에 시민참여텃밭이 마련되어 있다. 벼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는 모습일 볼 수 있어 좋다. 추위에 메달라 버린 무....밭, 녹색으로 물든 고추밭의 풍경은 내년을 기약해야겠다. 밀과 보리를 볼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어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좋은 체험학습

의 공간.(2012-22)”

이곳은 참여텃밭으로 이용되는 장소적 가치 뿐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 환경적 가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곳으로, 지금보다 정착된 후에 더 많은 이용자가 이곳을 본 후 혹은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한 후의 장소감을 많이 서술할 것으로 보인다.

## (2) 생태숲

### 1) 생태숲과 꽃사슴

[표4-13] 생태숲과 꽃사슴에 대한 장소감 사례



블로그/트위터명	내 용	이미지
사춘기 소년처럼 (2010-12)	서울숲에는 사슴들이 있는데 대공원과는 다르게 방목하는 분위기라 좀 더 야생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 좋다. ^^	
Antic Nomad (2012-12)	숲 한가운데 놓여있는 시냇가에 생태숲에서 살고 있는 사슴들이 몰려나와 물을 축이고 있는 모습이 마치 고요한 산 속,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에 온 기분마저 든다. 집중하고 보다 보니, 물을 넘기는 사슴의 목줄대마저 보이는 것 같다.	없음
소소한 나날들 (2013-12)	이곳은 서울숲에서 가장 아름답고 경치가 좋은 생태숲입니다. 이곳에는 꽃사슴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먹이를 주면서 재미있게 가족나들이 한곳으로 기억에 남는 곳이에요. 경치도 아름답고 넓은 들과 산이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생태숲은 ‘꽃사슴’이라는 차별화된 대상과 보행가교에서 내려다 본 숲의 전경으로 인해 많은 이용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장소로 꼽힌다. 공원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꽃사슴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장소감 사례[표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용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장소감을 끌어내고 있다.

## 2) 보행가교

숲을 내려다볼 수 있는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보행가교가 한강과 생태숲, 하늘의 풍경이 어우러진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공중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에게 장소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풍경은 보행교를 걷는 사람들에게 감성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보행교의 특징과 장점을 놓치지 않고 그로부터 느낀 감정을 1인 미디어에 기록하고 있다.[표3-]

[표4-14] 보행가교에 대한 장소감 사례

블로그/트위터명	내 용	이미지
희희낙락 유유양 (2006-03)	그리고 다리위에서 해가 지고 있는 한강을 바라 보면 이런 모습이 된다. 아직은 숲이 다 조성된 것이 아니라서 나무며 풀들이 엉성하지만 멀리 미래를 내다보면 너무도 아름답게 푸르른 숲길이며 선선한 바람이 부는 멋진 다리에서 바라보게 될 한강의 풍경. 서울이 조금은 더 감성적으로 느껴지게 된다.	
내겐 좋은 친구가 있었네! (2007-05)	생태숲 위와 강변북로 위를 가로질러 한강수변까지 약 1km에 이르는 보행가교는 서울숲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다. 전망가교를 통하여 바람의 언덕에서 한강수변공원 쪽으로 갈 수 있으며 생태숲에 방사된 고라니, 꽃사슴 등을 관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의 풍경도 한 눈에 감상하실 수 있는 멋진 산책로로서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늘이 맑고 구름이 낮게 드리운 날이면 마치 내가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든다.	

## (3) 체험학습원

### 1) 갤러리정원

갤러리정원에 대한 장소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표4-15] 공간이 주는 분위기  
와 그 의미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이용자와 기존 구조물 활용에 대한 의



도를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공간과 명칭의 괴리를 느껴 부정적인 장소감을 표출한 이용자로 나뉜다. 또한, 구조물의 외관으로 인해 갤러리 정원을 선유도 공원과 비교하는 이용자가 다수였다.

갤러리정원에서는 구조물 뿐 아니라 정원에 심긴 각종 허브와 초화류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너무 너무 예쁘다’ 라는 표현과 함께 이미지를 게시하였는데, 허브정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4-15] 갤러리 정원에 대한 장소감 사례

블로그/트위터명	내 용	이미지
일상 (2005-14)	공사하다 만 듯한.. 아니.. 허물다 만 듯한 구조물 들을 놓고..갤러리 쉽터니.. 구름길이니.. 머 그런 전혀 매칭 안되는 별칭을 부여해 놓은 점 이다.. 전엔 그곳이 기계공단이었던데.. 그 건물 들을 허물다가 만 듯한 느낌..	없음
바람이 남긴 발자국 (2006-12)	곳곳에 철거 하지 않은 구조물들이 있다. 어찌 보면 흉물이 되기도 하겠지만 관리하기에 따라 그 자체가 의미있는 구조물이다. 의도적으로 남겨진 구조물 주변에 평상이나 벤치를 놓아 전시 효과를 더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기발하다.	
Flâneur (2010-07)	특히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소는 식물원 주변으로 해서 있는 '갤러리 정원'이었다.(...)예전에는 무언가가 있었을 장소였던 듯 했지만, 방문했을 때에는 부서지고 때가 탄 콘크리트 기둥과 짙은 초록색의 담쟁이넝쿨만 남아있으니 무언가 상당히 오래된 느낌을 주는 듯 했다. 해가 지고 있을 무렵에 이 광경을 보니 아련하고 쓸쓸해 보였지만 그 투박하고도 오래된 장소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심지어 내가 걸어 다니면서 보았던 광경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김현지 @kimhjya (2012-05)	여기는 노출 콘크리트를 워낙 좋아하는 내가 서 울숲에서 음청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이름이 '허브공원'인건 처음 알았다. 몇년 전에 왔을 땐 그냥 행했다!!	

## 2) 곤충식물원

서울숲 내 곤충식물원은 서술한 이용객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른 식물원들과 비교하면서 곤충식물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용객이 있는가 하면, 식물원 자체의 내용적인 측면이나 구성 측면 등을 높이 평가하는 이용객도 있었다. 곤충식물원에 대한 인상은 서울숲 전체의 장소감 형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였는데, 공원에서 질 높은 식물원을 경험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이용자들은 이러한 식물원이 조성된 서울숲에 대해 긍정적인 소감을 드러냈다.

[표4-16] 곤충식물원에 대한 장소감 사례

블로그/트위터명	내 용
남다른여인네 의남다른꿈 (2005-02)	초특급울트라강추의 서울숲표 식물원!!! (...)남산식물원을 떠올린다면 오산~ 신명이 뜰어말려서 찌지 않았던 꾸물거리는 애벌레(엄지손가락만함-_-)도 있고~ 식물원만 따로 떼어다가 입장료를 받아도 손색이 없는 퀄리티를 자랑함!!ㅋ
내일은 맑음? (2010-21)	바로 이곳!! 몇 년 전에 한번 왔던 기억을 더듬어... 별 기대를 한 건 아니었는데... 와우~~ 서울대공원의 식물원에 전혀 뒤지지 않는 듯... (...)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는 느낌!!! 줄기가 위로 자라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즐기는 계속 위로 자라면서 다시 잎이 나고... 그래서 위에는 삶이 시작되고 그 아래에는 삶이 스러져가는 삶과 죽음의 공존.... 아닌가???
- (2011-08)	몇 해 전 방문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 건물 두 채가 있어 들어가 보았다. 하나는 식물원이라고 해야 되나, 각종 선인장류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 푸른색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내 시력마저도 회복시켜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 (4) 습지생태원

습지생태원에 대한 장소감은 대체로 ‘평화롭다’, ‘생태적이다’ 라는 말로 귀결된다. 특히, 이곳에서는 특정 체험보다 갈대/억새가 주는 시각적인 경험에 대한 느낌을 많이 서술하였으며, 환경놀이터, 야외자연교실, 조류관찰대 등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서술은 본 연구의 표



본에서 찾기 어려웠다. 4장 1절에서 체험된 대상을 표시한 지도[그림4-6~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곳에 비해 이곳에 대한 서술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 생각된다.

[표4-17] 습지생태원에 대한 장소감 사례

블로그/트위터명	내 용	이미지
방랑시인 (2008-20)	평온함.(...)초점을 날려버리지 않아서 <b>차분함</b> 이 느껴진다. 서울숲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습지생태원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았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오는 길이 짧은 거리가 아닌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고 <b>여기까지 들어와서 할 만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b>	
문화중개인 예술두쟁이 (2008-27)	연못에 비친 주변 풍경이 왠지 인상적이다. <b>왠지 저 연못 아래에 현실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을 것만 같은 느낌.</b>	
tanaring (2013-05)	갈대를 보니 왠지 <b>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공간</b> 같은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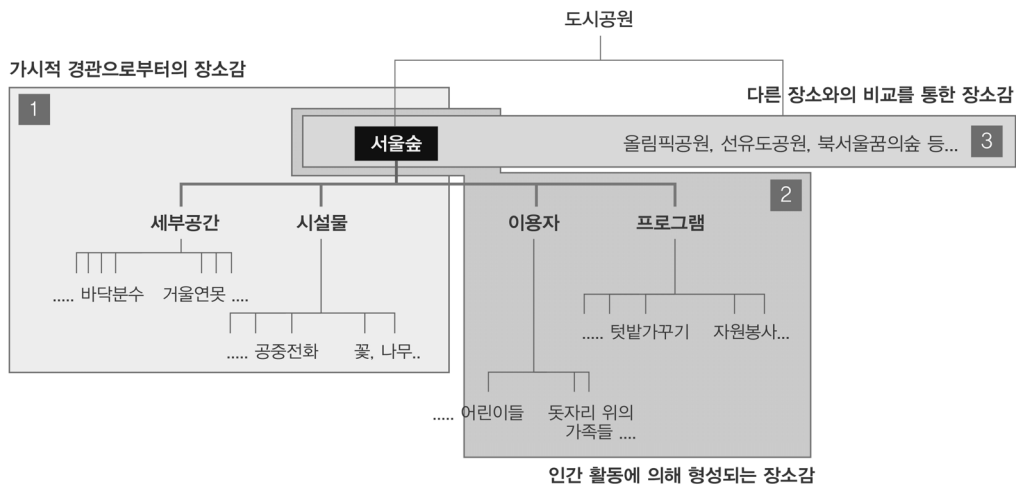
## 제2절 1인 미디어에서의 서울숲에 대한 장소감 유형화

지금까지 1인 미디어에 서술된 서울숲에 대한 장소감을 살펴보았다. 장소감이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 장소에 대해 갖는 유대감’이라고 하였을 때, 서울숲의 방문 동기과 목적, 체험된 대상, 주체의 행위, 소감 및 평가를 기준으로 도출된 내용들은 서울숲에 대한 개별적인 장소감이 된다. 본 연구에서 읽어낸 장소감을 렐프(Relph)의 장소감 분류 기준<sup>28)</sup>에 적용해보면, 1인 미디어에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관찰자’의 것이다. 즉, 블로거와 트위터언이 서울숲의 특성과 의미를 기록·전달하는 행위는 렐프(Relph)가 말한 의식적인 장소감에 반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숲을 서술한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장소감을 의식적인 장소감이라 상정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어떠한 이유에서 장소감이 유발되며, 어떠한 유형의 장소감이 1인 미디어에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블로그와 트위터에 기록된 장소감을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서울숲의 구성요소와 연관이 깊다.[그림4-12] 서울숲은 크게 세부 공간, 시설물, 프로그램, 이용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다시 가시적 경관과 인간 활동이 포함된 문화 경관으로 나뉜다. 각각의 경관을 경험한 이용자들은 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또한, 서울숲을 방문하기 전에 가 본 타 공원과 비교하며 서울숲에 대한 감정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는 서울숲이 여러 도시공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며, 타 공원에서의 경험이 다른 공원의 장소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8) p.34 참고.



[그림4-12] 서울숲에 대한 장소감 유형화

## 1. 가시적 경관으로부터의 장소감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장소 혹은 감명 받은 장소를 들라고 하면, 흔히 거대하고 아름다운 역사 유적이나 기념관 및 전시장 혹은 자연경관을 말한다. 가시적인 장소는 웅장한 외형이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외형이 전하는 상징성을 통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느낌을 갖게 한다. 이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미의식에 기인한 것으로서 설령, 장소에 심오한 상징성이 없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혹은 좋은 경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장소감을 가질 수 있다(김덕현, 1997:112).

서울숲에 접한 한강과 중랑천, 응봉산 등의 자연경관과 전망을 위한 보행가교나 기존 정수장과 유수지를 활용한 산업 구조물 등의 물리적 요소들은 서울숲에서의 다양한 경관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 꽃과 나무, 시설물과 같은 시각적 대상을 포함하는 서울숲의 가시적 경관에 대한 장소감은 블로그 및 트위터에서 이용자가 직접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표4-18] 이는 앞 절에서 언급한 ‘체험된 대상’과 연결된다. 시각적 체험을 통한 사진 촬영과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감정 서술

은 가시적 경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가시적 경관으로부터의 장소감은 체험된 대상이 무엇인 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표4-18] 가시적 경관으로부터의 장소감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공간기행 - 꿈을 잃은 이상주의자, 아직도 방향 중 (2006-08)	내 혼자만의 느낌이었는지..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곳인 것만 같다. 갈색으로 제법 물든 메타세콰이어와 벤치 위로 소복히 쌓인 눈과.. 아직 푸르름을 잃지 않은 솔가지의 싱그러움까지.. 어쩌면 가을,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까지 공존하는 공간일지도 모르겠다.(...) 마치 북구의 어느 곳을 지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던 곳. 촘촘히 심어진 나무들 사이로 사뭇히 내려앉은 눈이 주위와 너무 잘 어우러져 외국의 유명공원도 부럽지 않던.. 바로 그 곳이... 서울숲 안에 있었다.
	특별한 여자의 블로그 (2010-13)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좋다. 공간들이 다들 예술 작품 같다. 서울숲 굉장히 넓은 공간에 조성돼 있는 세세한 하나하나 장소들이 각각의 느낌과 컨셉으로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었다.
	RivErmAn-잔잔한 Vandalist (2010-16)	비를 피하면서 더 깊은 숲으로 들어왔을 때, 참으로 쉬고 싶은 분위기, 도심 속에서 지리산 어디 절 앞 숲길에서 쉬고 있는 착각이 드는 장소는 나를 앓게 했고, 태풍 곤 파스도, 허리케인 박이 몰아쳐도 나와는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 고요함과 숲 내음이 나를 쉬게 했다. (...) 서울에 이런 녹지가 군데군데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일 것이며 시민들을 그리고 나를 한 그릇 더 풍요롭게 할 것임을 알고 있다.
트위터	Zzangwoo @zzangwoo (2012-1)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기란 힘든 일, 또한 서울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지만 요즘처럼 바빠 다녀오기 힘들다. 일 때문에 찾은 서울숲이지만 그래도 좋다! 요렇게 눈망을 초롱초롱한 사슴을 만나 잠깐의 여유를 즐겼으니 pic.twitter.com/JnkBHsw5
	김현지 @kimhjya (2012-5)	여기는 노출 콘크리트를 워낙 좋아하는 내가 서울숲에서 엄청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이름이 '허브공원'인건 처음 알았다. 몇 년 전에 왔을 땐 그냥 웅했다!! ㅂㅇㅂ #서울숲 pic.twitter.com/iMG9nXaM

## 2. 인간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장소감

블로그와 트위터에는 가시적 경관에 따른 장소감 외에 다른 방문객들의 이용 모습과 그들이 자아내는 분위기에 장소를 연결 지어 장소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았다. 앞장에서는 ‘장소감’을 정의하면서 이미 물리적·가시적인 경관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친밀한 장소에 대한 감정은 친밀한 접촉으로부터 나온다. 그 장소에 함께 있는 혹은 함께 있던 사람들의 감정을 파악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은 그 장소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며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장소감을 특정 장소에서 공유되는 정서적인 유대감이라고 정의할 때, 장소 자체에서 유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장소를 함께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장소감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4-19]

[표4-19] 인간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장소감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풍경속으로... (2010-02)	(...)바닥분수와 함께 뛰어노는 아이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마냥 즐겁고, 그 즐거운 모습을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 옥하게 지켜보는 부모들의 모습도 보기 좋은 그림이다.(...) 잔디밭에는 가족들이 또 친구나 연인들이 앉아 있는 자연스러운 광경을 보니 외국의 어느 공원을 보는 것 같은 착각에 잠시 빠져 들게 되고, 이 안에서 여유로운 주말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편안함과 넉넉함이 묻어난다.
	구구월드 (2011-30)	나무, 풀, 분수, 그곳에서 뛰노는 아이들,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님들. 가족 모두에게 서울숲은 참 좋은 선물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엘의 사진첩 (2012-05)	(...) 가족들끼리 와서 웃으며 이야기 하는 모습들을 보니 덩달아 행복해 집니다. 정말 행복은 함께 하는 것이지요.
트위터	Never Give UP @spitzforever (2012-7)	지난 주말 친구들과 만나 서울숲을 찾았다. 여기저기 돛자릴 펴고 오손도손 모인 모습들을 제법 찾아볼 수 있었다. 춤추는 도시라고 댄스공연도 있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가족 나들이로 그만하다. <a href="http://pic.twitter.com/8TDGPof6">pic.twitter.com/8TDGPof6</a>
	하나래 Narae Ha @unfoldnarae (2011-18)	(...) 봄날 이곳은 지상천국 같다. 꼬꼬마 아이들의 소꿉놀이, 연인들의 데이트..보는 것 만으로도 행복하다.

또한, 자신의 활동 즉, 직접적인 프로그램 참여나 봉사활동을 통해 형성된 장소감을 서술한 이용자들도 찾아볼 수 있다.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서울숲은 매년, 매달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한다.<sup>29)</sup> 환경,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프로그램들은 서울숲이 내포한 환경적, 문화적, 교육적 가치 등을 대변한다. 이 중 자원봉사를 통한 장소감에서는 본인이 속한 기업(회사)에서 주최한 서울숲 봉사활동 혹은 개인적으로 참여한 봉사활동에 대한 후기와 함께 그 경험으로부터 느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1인 미디어에 게시된 이용자의 참여 후기와 솔직한 감정은 그 파급 효과로 인해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등을 통한 서울숲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의 방문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회가 된다. 다음의 표는 서울숲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낸 게시물과 그러한 내용의 게시물에 달린 댓글 사례이다. 이를 통해 서울숲이 지닌 가치와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4-20~21]

[표4-20] 서울숲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낸 게시물의 댓글 사례

구 분	게시물 내용	댓글 내용
블로그	"책 읽는 공원, 서울숲" 행사 참여 및 "숲속 작은 도서관" 개관식 (2006-28)	앗... 좋은 정보를 놓쳐버렸네요. ^^ 도서관이 생겼다니...^^ 애들 데리고 한번 다녀와야겠군요. (빨간단추, 2006/06/18)
	서울숲 "숲속 작은 도서관" 봉사활동 (2011-06)	<p>넌 좋은 일을 하시고 넌 좋은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서울 숲 가을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신 시간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창, 2011/10/24)</p> <p>서울숲에서 봉사 활동 하시는 군요 ^^ 저도 얼마 전 서울숲에서 시각장애우를 위한 봉사를 했었습니다. 끝무늬도 봉사의 참 뜻을 실천하시고 계시는 군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zedu4551, 2011/10/29)</p>
	리빙라이브러리 참여 소감 -사람책 역할 (2011-22)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과거에 난 뭐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너무 멋있어요. 참 뿌듯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부러워요!! ^_^ (작성자: 짱냥, 2011/11/01)

29) 정기간행물인 『서울숲사랑』과 『서울숲사랑모임 에뉴얼리포트』를 통해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표4-21] 서울숲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낸 게시물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가을이의 행복한 세상 (2006-15)	오늘 꽃사슴 먹이주는 생각 외로 너무 좋았다. 시간도 여윌롭게 주시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참 유익한 시간인거 같다. (...) 아침 서울숲에 조그마한 어린이 도서관도 생겼던데.. 가끔 문화센터 끝나고 들려서 가을이 책도 읽어주면 좋을 것 같다.
	이 세상의 나침반이 되자!! (2009-26)	'액션 볼런티어' 중 친환경 자원봉사 활동에 지원을 하여 서울숲에서 환경보호 팻말을 편부모가족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 대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전공공부하다가 학군단 생활로 인해 정기적인 봉사를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좋은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기뻐합니다.
	꿀무처럼's Room (2011-06)	2011년 중 가장 행복했던 서울숲 속 작은 도서관의 프로그램 " 동시 속으로..." (...) 친할머니 보다 내가 더 나이 많은 선생님이라며 어깨를 주물러 주는 모습입니다. 10년 넘게 봉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7살짜리 아이의 안마를 받아 본 건 처음이라 행복하여 눈은 스르르 감기려 하고 있습니다.
	made in 초록구슬 (2011-13)	이번에 내가 서울숲에서 참여한 행사는 사람책과 독자의 만남, <리빙라이브러리>이다.(...) 리빙라이브러리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내 마음속 하얀 도화지에 3가지 색이 더 칠해진 것 같다. 모두 다른 색의 크레파스를 들고 만날 때마다 서로의 도화지에 덧칠을 한다.
	엠제이의 일상다반사 (2012-29)	저 역시 지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독서에 위치한 서울숲에서.. NGO 서울 그린트러스트 봉사자들과 스타벅스 아시아태평양지역 진롱왕사장님과 스타벅스코리아 이석구 대표이사님 그리고 월드비전 지구시민학교, 협력 NGO, 대학연합동아리 대학생등 약 250 여명이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어요.(...) 이런식으로 꾸준히 활용하면 모두가 윈윈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개인이 모여 우리가 되고 우리가 모여 한 사회를 이루듯 모두가 조금씩 환경에 신경을 쓰고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모두에게 다시 좋은 일로 되돌려진다고 굳게 믿으니까요.. 아무튼 서울숲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참 좋네요.

### 3. 다른 장소와의 비교를 통한 장소감

장소감은 유동적이며 변화한다. 같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방문할 때마다 장소감이 같을 수 없으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인 이유나 장소의 물리적 특성 등에서 기인한다. 다른 장소에서 유발되는 각각의 장소감은 더욱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장소를 방문하여 장소감이 형성되면 이전 장소에서의 그것과 비교를 하게 된다. 장소감이 개개인에서 나온 주관적인 감정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장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좋아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전에 다른 곳에서 본 것과 비교되어 상대적으로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올림픽 공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서술한 두 블로거의 장소감에서 엿볼 수 있다.[표4-22]

[표4-22] 같은 비교 대상에 대해 다른 장소감 서술한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잘먹고 잘살기 프로젝트 (2010-17)	둘 다 큰 공원이지만 올림픽 공원과 서울숲이 다른 점은 <b>올림픽공원은 나무들이 대부분 키가 크고 공원 중간에 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법한 큰 언덕이 있어 공원 전체가 대체로 어두운 분위기인데</b> 서울숲의 나무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 답답한 느낌이 없다는 점이다.
	seeseacallcoll (2010-20)	집 근처 <b>올림픽 공원은 뭐랄까..확 트여 시원시원한 느낌을 준다면</b> 서울숲은 나무가 많고 구분이 지어져서 그런지 전체 공원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랄까..

이 외에도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서울숲은 다른 도시공원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되거나 그에 서 비롯된 의견 및 감정이 서술되고 있었다.[표4-23] 이용자가 서울숲을 어떤 대상지와 비교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지 알아보는 것은 이용자의 공간 및 대상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 공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제3절 미시담론으로서 장소감의 의미 해석

#### 1. 전문가 담론과의 비교를 통한 장소감의 의미 고찰

서울숲에 대한 일반인들의 장소감은 일반 이용자들이 서울숲을 해석하고 그곳에 의미를 부여함에 따른 결과이다. 이는 기존에 전문가들이 공간을 설명하거나 비평하기 위해 거쳤던 과정으로, 이제는 전문가와 더불어 일반 대중 또한 공간을 해석하는 데 능동적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일반인을 대변하는 미시적 장소감 담론과 보다 거시적 차원의 전문가 담론의 비교 고찰은 미시담론으로서의 장소감 담론이 갖는 의미와 1인 미디어가 미시담론을 구축하는 장으로서 가지는 한계 및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줄 것이다.

전문가 담론은 서울숲 현상설계 공모가 마감된 시점인 2003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매체와 학술논문, 심포지엄 프로시딩(symposium proceeding) 및 발표자료 등 전문가들에 의해 서울숲이 언급된 자료 중 선별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담론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로 유형화하였다.

##### (1) 운영·관리에 대한 담론

서울숲에 대한 행정적 담론은 서울숲의 운영·관리 측면에 대한 담론과 도시정책, 도시계획적 측면의 담론으로 구분된다. 이 유형의 담론을 형성한 논자들은 모두 관리자의 입장에서 서울숲을 대하고 있다. 서울숲을 도시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하는가 하면, 관리자로서 서울숲의 운영방식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덧붙인다.

류중석(2005)<sup>30)</sup>은 서울숲 개원에 따른 주변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우려의 목소리

를 내고 있다. 서울숲 주변 부동산 시장의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 주도와 높은 지가와 고급 주거지 건설로 인한 빈부의 양극화 진행의 가능성을 우려함과 동시에 서울숲 주변으로 건전한 문화기능과 같은 공익적 용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검토를 요구한다.

최용호(2005)<sup>31)</sup>는 공원 관리 측면에서의 시민참여가 시민과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공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이강오(2005)<sup>32)</sup>와 이근향(2006, 2007)은 서울숲 운영 방식을 비교적 관점에서 논한다. 공원운영의 대표적 민관파트너십 모델인 센트럴파크 컨서번시(Central park conservancy)와 비교하면서 서울숲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민·관·기업의 원활한 소통과 신뢰 구축, 기금원의 다양화 및 공적자금의 안정적 확보, 공원운영에 있어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등의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서울숲이 시민참여 공원운영 모델 확산에 기여하고, 서울숲의 운영방식이 세계적인 공원운영 방식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

특히 이강오(2006)는 서울숲에서의 4년간의 시민참여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면서 도시숲 시민참여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가치를 주장한다. 시민참여를 단순히 행정적 과제로만 대하는 일선 행정가와 일회성 이벤트로서의 시민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는다. 이로써 시민참여를 정책과제에서 실천과제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숲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일반인의 미시 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으나 다루는 내용의 깊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인들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

30) 류중석(2005),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한 서울숲”, 『환경과 조경』 209호(2005년 9월):95.

31) 최용호(2005), “과거의 뚝섬 부지 개발 논의 및 서울숲 의의”, 『환경과 조경』 209호(2005년 9월):48-9.

32) 이강오(2005).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숲 운영”, 『환경과 조경』 209호(2005년 9월):56-9.

서울숲의 운영·관리방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칭찬 혹은 불평을 드러내는 정도에서 그치며, 심층적인 논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사례는 다음의 표와 같다.[표4-24] 이는 공원 관리 측면에서의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 담론에 비해 일반인들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참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도 이에 대한 가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표4-24] 전문가의 운영·관리 담론과 관련된 미시담론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살아가는 이야기 (2007-01)	분수 옆에 설치된 현수막에 걸린 글귀 - “바닥분수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맙시다.” 관리인이 부근에 있었지만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분수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뿐 아이들의 물놀이를 제지하지는 않는다. 융통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박수.
	Applemint (2008-10)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참 괜찮은 공간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안타깝게도 시민의식의 부재로 인한 건지, 시 재정이 부족한 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느낌이다. 주말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림에도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설물이 망가진 것도 쉽게 보이고..
	윤미의 하루 만들기 (2009-05)	오랜만에 찾은 서울숲!!!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 작고 앙상했던 나무들이 키도 많이 자라고 풍성해지고, 그때 흘렸던 그 개울도 여전히 아주 깨끗한 물이 졸졸 흐르는 게...예전보다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트위터	H.F.Kais @hfkais (2009-05)	주말 '서울숲'. 곳곳에 비치된 분수대 근처에 '들어가지 마시오' 경고가 눈에 띈다. 근데 이 분수들, 아무리 봐도 '들어가 노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듯.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회피를 위한 경고인가? 물론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 논다. 애들도.

## (2) 공원문화 담론

서울숲에 대한 문화적 담론에서의 문화는 이용자들의 활동을 이끌어내는 서울숲의 프로그램 및 서울숲이 내포한 문화적 가치를 의미한다. 이 담론은 프로그램을 통

한 새로운 공원 문화의 형성과 그가 갖는 사회학적 의미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며, 이를 통해 도시와 공원, 공원과 이용자의 유대를 지향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서울숲의 공원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문화적 담론을 형성하는 논자들은 ‘공원이 곧 문화’라는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도심 속 문화의 장으로서 서울숲을 바라본 배정환(2005)<sup>33)</sup>은 서울숲이 지닌 잠재력에 기대감을 드러낸다. 특히 도시공원을 ‘문화발전소’라는 개념에 비유하면서 서울숲 또한 도시의 문화와 일상적으로 교섭하면서 도시의 성장과 진화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이근향(2006)은 서울숲이 이뤄낸 성과의 하나로 “책 읽는 공원, 서울숲”, “서울숲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며 서울숲을 ‘새로운 공원문화를 생산하는 발전소’라는 평가를 내린다. 서울숲이 소비적이고 단발적인 이벤트를 지양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이벤트의 도입을 통하여 서울숲의 문화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한아(2011)<sup>34)</sup>는 서울숲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숲의 도전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원과 문화가 별개가 아님을 주장한다.

반면, 미시담론에서는 서울숲의 공원문화에 대한 설명이나 평가보다는 그 문화에 동참하는 이용자로서 이용 혹은 참여 후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4-25] 비록 이용자들이 서울숲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거나 가치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형성된 일반인의 미시담론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서울숲의 공원 문화를 몸으로 체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특검] <하> 초록 숲 — 빌딩 숲 ‘문화발전소’ 상생” (한겨레, 2005년 06월 17일).

34) 2011년에 개최된 도시숲콘서트 발제문 “서울숲 청소년과 악수하다”에서 발췌.

[표4-25] 전문가의 공원문화 담론과 관련된 미시담론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멤버의 꿈지락 이야기 (2011-02)	지난 토요일 온 가족이 너무나 뜻 깊은 행사에 동참을 하고 왔습니다. 서울숲에서 진행한 진달래 동산 만들기 행사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체험활동들이 있지만 이번 서울숲 진달래 동산 만들기 행사는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좋은 추억거리가 될 듯 싶습니다.
	made in 초록구슬 (2011-13)	이번에 내가 서울숲에서 참여한 행사는 사람책과 독자의 만남, <리빙라이브러리>이다.(...)리빙라이브러리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내 마음 속 하얀 도화지에 3가지 색이 더 칠해진 것 같다. 모두 다른 색의 크레파스를 들고 만날 때마다 서로의 도화지에 덧칠을 한다.
트위터	Lee eun-young @LEY0924 (2012-21)	4월의 가족봉사~ 서울숲 "내가 만드는 진달래 동산" 우리가 심은 진달래가 이쁜 동산을 만들기 바라며~ <a href="http://pic.twitter.com/z2qMYmnA">pic.twitter.com/z2qMYmnA</a>

한편, 조정진(2007a)은 공원문화란 이용자의 공원 이용방식을 지칭하며, 공원문화의 핵심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공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있다고 하였다. 일종의 생활문화인 공원문화에 대한 총체적 인식은 공원이 보다 일상생활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서울숲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모습과 그에서 비롯된 갈등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숲을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자체, 관리·운영팀의 협조 체제가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한 점을 비판한다. 잔디광장(현 조각정원)에 전시된 미술품에 대해 장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조각품이 대중과 소통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실제로 1인 미디어에 게시된 미시담론에서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 조각품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에서 아래의 두 블로거는 이용자가 조각품들과 소통하지 못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관 주도 공원운영방식이 긍정적인 공원이용문화를 가로막는 것

으로 한국적 상황과 장소적 맥락에 적합한 공원이용행태를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 (3) 공원이용 담론

전문가가 형성한 이용적 담론은 3장에서 살펴 본 이용자들의 이용적 담론과 형성 배경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공원이용 방식과 행태를 평가하거나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는 측면에서 이용적 담론을 형성하므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적 담론을 형성한 미시담론과는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유주현(2006)은 서울숲이 조성되었을 당시에 이용객들의 행태 때문에 일어난 혼란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공원에 내재된 계급 갈등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여기서 사례로 든 이용 행태로는 ‘공원에 누워 짜장면 시켜먹기’,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기’, ‘공원 내 나무 사이에 줄을 걸고 물에 젖은 옷 말리기’, ‘텐트금지구역에서 텐트치기’ 등이었다. 당시 언론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행태를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시민답지 않은 시민’이라 비판한 것과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한 것에 대해 녹색이 불평등의 색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뚝섬 유원지를 이용하던 이용객들이 서울숲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정돈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초기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당연하다는 필자와 월드컵공원사업소의 오순환 과장의 말은 이용자의 행태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이끌어 낸 이용적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조경진(2007b)은 서울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행태를 관찰하여 그들의 공간이용방식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용자의 행태를 관찰하는 행태조사방법과 무작위로 선별된 이용객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추적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였는데, 조사 결과를 통해 공간 이용률 및 계절별 이용행태의 차이를 밝혀냈다. 조사된 공원이용행태는 공원문화행태의 다양한 양상과 문제를 추출하고, 향후 공원의 리모델링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전문가 담론은 이용자를 인식하기 위한 틀로서 이용적 담론을 생성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 후의 감정을 드러내는 미시담론과의 차이를 알 수 있다.

#### (4) 설계전략 담론

전문가들은 서울숲의 설계(안)에 대해 비평적 관점에서 논한다. 이는 공공적인 조경 공간에 대한 비평으로서 논자들마다 개인적인 취향 혹은 성향에서 기인한 평가를 내린다.

이상석(2005)<sup>35)</sup>은 설계가가 설계 전략으로 제시한 재생, 네트워크, 진화의 개념을 비평의 틀로 삼아 서울숲의 디테일을 살펴보았다. 경마장, 골프장 정수장을 재생 가치가 큰 기존 자원으로 언급하면서 원형을 유지하고 그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충실한 정수장을 제외하고, 경마장과 골프장의 소극적인 활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네트워크 개념과 관련해서는 물의 요소를 꼽았다. 일부 수로에서 아이들이 침범거리며 노는 모습을 예로 들면서 습지생태원, 생태숲과 같이 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공간과 공원 전체를 개거수로 구성한 설계자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서울숲에 대한 장소감을 드러낸 미시담론의 사례가 있다. 이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 역시 공간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표4-26] 전문가의 설계 담론과 관련된 미시담론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지속가능한개발! <sup>^^</sup> (2006-24)	나름 괜찮았던 점은 사람들이 물의 요소를 좋아한다는 걸 여러모로 반영했다는 것.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곳곳에 있었다는 것. 아이들을 많이 배려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한편, 숲을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진화 전략이 부지의 일부 지역(생태숲, 습지생태원)에만 적용되어있음을 한계점으로 들고 있다. 대형 식재목과 고사한 수목 등은 원하는 모습을 성급히 만들려는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숲의 진화를 기다리는 여유가 없었음을 비판하였다. 이는 조성 초기에 울창한 숲을 기대하고 방문한 시민들의 미시담론[표3-2]과 반대된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다른 시각을 보여준

35) 이상석(2005). “서울숲은 공사중”, 『환경과 조경』 209호(2005년 9월):88-9.



다.

배정환(2003)<sup>36)</sup>은 서울숲 설계공모에 나타난 전략과 매체, 테크닉에 대해 비평적인 관점으로 서울숲 당선작에 대한 설계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숲을 동시대 조경의 화두인 ‘새로운 공원’을 한국적 상황에 대입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공원을 지향함과 동시에 관례적인 공원관과의 통합을 시도하는 ‘세로지르기’의 차원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전략’과 디자인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함에 대해 비판하면서, 디자이너가 제시한 진화, 네트워크, 재생의 세 전략 중 네트워크라는 전략을 2등작인 서안의 것과 비교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서울숲 설계공모에서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의 수단으로 사용된 매체와 테크닉에 대한 비평도 덧붙였다.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상민(2005)<sup>37)</sup>은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한 서울숲의 설계안을 아쉬워하면서, 설계 전략이 설계안을 현실로 구현할 뿐 아니라 서울숲이 살아 숨 쉬면서 진화하고 재생하여 네트워크화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5) 생태·환경적 담론

생태·환경적 담론은 서울숲 개장 전후로 담론의 특징이 구분되는데, 개장 전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는 서울숲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예상하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생태적 관점에서 서울숲 조성의 의의를 높이 산 최용호(2005)<sup>38)</sup>는 서울숲이 청계천 복원과 함께 생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

36) 배정환(2003). “세로지르기, 서울숲 설계공모의 전략·매체·테크닉”, 『환경과 조경』 182호(2003년 6월):110-5.

37) 이상민(2005), “서울숲의 전략: 진화, 네트워크, 재생” 『환경과 조경』 209호(2005년 9월):92-3.

38) 최용호(2005), “과거의 뚝섬 부지 개발 논의 및 서울숲 의의” 『환경과 조경』 209호(2005년 9월):48-9.

점에서 서울숲이 갖는 생태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서쪽의 응봉산과 남산, 남쪽의 한강과 강남, 북쪽의 중랑천과 청계천 친환경적 도심의 구현을 예상하면서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서울 동·북부지역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숲이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서울숲이 공원조성을 통한 지역개발, 환경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다. 그뿐 아니라 환경친화적 공원시설로서의 의의도 함께 밝히고 있다. 빗물저류의 재 활용,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 태양열전지판을 장착한 조명 설치 등과 같은 실질적인 사례를 들며 서울숲 조성으로 인한 생태·환경적 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개장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서울숲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는 입장은 긍정론과 비판론으로 나뉜다. 긍정론을 먼저 살펴보면, 공인규 외2인(2010)은 생태적 평형 유지, 야생동식물 서식 공간 제공 등 서울숲의 생태적 기능에 따른 기대효과를 도출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시스템 구축 및 우수 시스템과 같은 기술 측면의 친환경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서울숲의 기능과 생태·친환경적 요소들을 향후 도시림의 설계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부 김한수(2013)<sup>39)</sup>는 개원 당시에 논의되었던 서울숲 식생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음을 비판하면서 식생조성 측면과 식생관리 측면으로 나누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을 강조한다. 8년간의 수목생장량 분석을 통해 이식 후 생장량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음을 밝혀냈으며, 조밀한 식재 간격으로 인한 수목 고사, 토양의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 고사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장기적인 식재 계획과 논의, 식생에 대한 관점의 변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장인영(2013)<sup>40)</sup>은 토양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서울숲 토양의 수분, 유기물 함량 및 pH를 측정하였다. 자연숲에 가까운 토양보다는 도시 토양에 가까운 서울숲 토양

---

39) 2013 서울숲 열린 심포지엄 “서울숲은 어떤 숲인가?”의 발표 자료에서 발췌.

40) 2013 서울숲 열린 심포지엄 “토양에서 바라본 서울숲”의 발표 자료에서 발췌.

의 측정 결과를 통해 자연 상태의 숲과 같이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성을 주장하였지만, 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였다.

서울숲의 생태·환경적 측면에 대해 언급한 일반인의 미시담론 사례에서는 전문적인 내용보다 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서술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표4-27] 이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위주로 서술하는 1인 미디어 담론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4-27] 전문가의 생태·환경 담론과 관련된 미시담론 사례

구 분	이 름	내 용
블로그	남다른 여인네의 남다른꿈 (2005-02)	적당히 개념적이면서 생태라는 것에 발가락 살짝 담글랑 말랑 하는 과도기적 느낌의 공원. 생태라는 느낌이 대중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섰고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시민의 몫이 남아있다.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2007-15)	내가 어릴 때 외갓집 강가, 외갓집의 시골길, 그곳에서의 산...의 느낌이 조금 묻어 나온다. 그만큼, 자연 상태를 최대한 배려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연못을 만들고, 설계도에 따라 길을 텃겠지만, 자라나는 것은 내버려 둔 듯하다. 튀어나왔다고 자르고, 모자란다고 늘리지 않았다.
	감감 (2010-03)	얼마 전에 저는 서울 안에 있는 숲에 다녀왔답니다. 그 곳에는 사슴도 살고 있었고, 호수도 있었고 나비도 많았어요. 어떻게 차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안에 이런 사슴이 사는 숲이 있을 수 있는걸까요?(...)이처럼 우리나라는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이렇게 큰 인공 숲을 만들었답니다.(...)더욱이 이 모든 시설이 태양광 발전 장치를 이용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깨끗한 에너지인 햇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지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데요. 1년 동안 땅속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 바로 이 온도를 에너지로 바꿔서 쓰는 녹색 기술이랍니다~

## 2. 미시담론으로서 장소감이 갖는 의미

장소는 물리적 환경에 인간의 경험과 기억에 의해 의미 혹은 가치가 부여된 것이다. 이때 부여된 가치는 다양한 차원을 포함한다. 아름다움과 같은 심미적 가치,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통해 형성되는 윤리적 가치, 경제적 동기 등에 따른 경제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가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장소는 다양한 가치들이 뒤섞여 형성되는 것으로 단순한 집합 이상의 총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장소에서의 경험은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며(권영락, 황만익, 2005:63), 이때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은 장소감이라 불리는 틀을 만들어 가면서 장소에 대한 정의를 정서적으로 재구성한다(김덕현, 1996:63). 이처럼 장소에 대한 의미가 각 개인들의 경험과 결부되어 느낌으로 내재화되는 장소감은 도시공원이 개개인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그 의미가 어떻게 개인의 일상적 경험 속에 각인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일상생활에서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에게 밀접할 뿐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가 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미시담론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뒷받침한다. 특히나 참여와 소통에 기반을 둔 장소만들기가 우선시 되는 즉, 이용자들의 변화하는 가치관이 고려되어야 하는 현 시대에서는 개인의 장소에 대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전문가는 이론적인 논거와 함께 서울숲이 지닌 수많은 가치를 설명 혹은 비평하였다. 그들이 생성한 담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담론과 그와 관련된 서울숲의 가치를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 이용주체인 ‘개인’과 ‘서울숲’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 각 전문가 담론의 분야마다 일반인의 미시담론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과 장소감이 개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장소감은 지식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전문가 담론을 보완하면서 도시공원을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단임을 파악하였다. 미시담론은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혹

은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김영주, 2005:4)하는 대안 담론으로서 이용자의 입장과 상황에 적합한 공원설계를 모색하는 실타래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처럼 개개인이 만들어내고, 그들이 속한 시민사회에 뿌리를 둔 미시담론으로서의 장소감은 시민을 위한 공간을 설계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으로 지목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되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 즉, 미시담론에는 전문가 담론과 달리 공원을 이용하는 개별 주체들이 생산하는 상호작용, 경험, 이야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고찰을 통해 이용자가 장소를 어떻게 재현하고 이해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미시담론으로서의 장소감은 개개인들의 장소에서의 경험과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도나 관심, 방식에 따라 다양한 층위로 나타난다(김현주, 2003:322). 따라서 설문 및 면접을 통한 결과와 달리, 전문가에 의해 여과되지 않은 내용인 장소감을 통해 ‘인지된 장소, 해석된 장소’ 그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장소의 궁극적인 이용자를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장소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공간의 이용 후 평가 자료 및 전문가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박선희, 김연금, 2011:72)로 장소감을 활용하여 전문가는 이용자의 선호와 다양한 의견에 부합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의사소통의 장인 도시공원을 둘러싸고 생성되는 담론의 의미들을 포착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는 거시적이고 공식적으로만 구성되던 전문가 담론에 대립하여, 이용자들의 일상적이고 주관적인 미시담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영향력을 부여받은 일반인들의 미시담론에 의해 장소가 변화되고 또한, 반대로 장소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담론이 생성되는 현상은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현 시대에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따라서 장소를 연구함에 있어 장소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태도를 드러내주고, 그 장소와 관련된 새로운 담론 형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거 및 현재의 미시담론인 장소감을 포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된다.

##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의 종합

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 1인 미디어의 이용이 활성화 되었으며 공간에 대한 정보나 공간에서의 경험에 따른 감정 및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하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숲 방문객이 서울숲에서 혹은 서울숲 방문 후에 블로그와 트위터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감정을 기록·공유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자들이 생성하는 이야기들 즉, 미시담론의 내용과 그 형성 배경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미시담론으로서의 장소감 유형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서울숲에 대한 일반인의 구체적인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전문가 담론과 함께 서울숲 담론을 이루는 일반인의 미시담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을 표출하는 수단인 1인 미디어와 개개인이 형성하는 미시담론으로서의 1인 미디어 담론을 담론과 미디어 담론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1인 미디어에서 포착하게 될 장소감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수많은 주체와 다양한 요인에 따른 미시담론의 내용 변화와 그 형성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기별로 담론 분석을 하였다. 1인 미디어에 나타난 미시담론의 주요 내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시기별 담론 분석은 서울숲이 조성된 초기(2005~2006년), 서울숲이 도시공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전개기(2007~2008년)와 형성기(2009~2010년), 그 이후를 성숙기(2011~2013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서울숲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에는 서울숲 개장이 시기상조라는 인식과 그와 관련한 비판적 실망감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서울숲 조성과 관련된 주체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설계가나 서울시 등을 직접적으로 언

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정치적 시각이 반영된 사회적 담론은 시민들이 정치적 성과(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여론과 그 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전개기의 서울숲 이용자들은 서울숲을 비교적 관점에서 평가 및 서술한다. 처음 방문했을 때와 재방문했을 때의 경관이나 분위기 등을 평가하는데, 재방문한 이용자의 경우, 대체로 경관의 변화에 따른 만족으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그뿐 아니라, 외국 공원과의 비교, 국내 타 공원과의 비교를 통해 개인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한다. 긍정 및 부정적 장소감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이 시기의 담론은 그것을 접하는 다른 이용자들이 하여금 공간에 대한 무조건적 미관 혹은 무비판적 수용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성으로부터 4-5년 후인 형성기에 게시된 1인 미디어에는 주로 공원의 규모에 대한 느낌과 전체적인 분위기,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난 후의 느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시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증가한 참여의식과 봉사의식은 구체적인 이용적 담론을 형성시켰고, 이를 통해 물리적인 시설 및 공간 이용 뿐 아니라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의 이용도 및 만족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숙기에는 이용자들이 명사와 형용사를 이용하여 ‘서울숲은 어떠한 곳이다.’, ‘무엇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모습에서 장소로서의 서울숲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소적 담론은 도시공원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공원에 대해 만족을 느낀 이용자들이 서울숲을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시기별로 분석한 미시담론 중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장소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먼저, 경험요소에 따라 장소감을 도출하였는데 방문 동기 및 목적에서는 나들이나 산책과 같은 일반적인 공원 이용 목적을 갖고 서울숲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현저하게 많았다. 이는 서울숲이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공원임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서울숲의 공원문화가 생활에 밀착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체험 대상에 따른 장소감은 이용자가 각 공간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직접 촬영한 이미지와 함께 1인 미디어에 게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년 단위로 4개년에 걸친 체험 대상을 조사하였는데, 문화예술공원 내의 군마상, 바닥분수, 거울연못, 무장애놀이터의 거인상, 숲속길의 이미지가 가장 많았으며, 생태숲의 꽃사슴을 체험한 후 이미지와 텍스트를 게시하는 이용자도 많이 나타났다. 연도별로 특정 대상의 체험이 눈에 띄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는 서울숲이 타 공원과 차별화된 공간과 대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이용자 혹은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체의 소감 및 평가에 따른 장소감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개입 없이 실제 이용 주체의 솔직한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돕는다. 1인 미디어에 기록된 소감·평가는 이미지보다 텍스트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용자들은 명사나 형용사를 이용하여 서울숲 자체나 세부 대상, 공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서술하고 있었다. 여기서의 장소감은 서울숲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경관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서울숲이 담고 있는 가치를 인지하고 그로부터 받은 소감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서울숲의 각 공간을 대상으로 형성되는 장소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견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후에 공간별 이용후평가를 내리거나 타 공원을 설계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전문가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이용자의 견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발 요인에 따라 장소감을 유형화한 결과, 가시적 경관으로부터의 장소감, 인간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장소감, 다른 장소와의 비교를 통한 장소감으로 나뉘었다. 특히, 서울숲의 주요 대상 및 공간별로 서술된 이용자의 장소감을 통해 이용자들이 각 공간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



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1인 미디어에 게시된 이용자들의 장소감은 체험 대상의 다양성과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등을 통한 서울숲의 사회적 가치 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의 방문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장소감이 미시담론으로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미시담론과 전문가담론의 비교 고찰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담론과 서울숲의 가치를 접할 수 있었으나 도시공원의 실질적 이용주체인 ‘개인’과 ‘서울숲’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전문가 담론과 달리,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미시담론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개별 주체들이 생산하는 상호작용, 경험, 이야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고찰을 통해 이용자가 장소를 어떻게 재현하고 이해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장소에 대한 감정 서술이 도시공원에 대한 담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과 1인 미디어가 담론을 구성하는 장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용자들이 장소에서의 경험과 감정을 1인 미디어에 기록하고, 그 장소감들이 모여 감성적이고 경험적인 담론을 만들어내어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 담론 뿐 아니라 개인들의 장소감 또한 현대 도시공원에 대한 담론의 하나의 축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전문성과 신뢰도가 낮다는 한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1인 미디어 미시담론은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증가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들이 공개되는 감성적 공론으로서의 1인 미디어 미시담론은 그 담론을 형성시킨 이용자들의 정서적 측면을 파악하기 용이하며, 담론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전문가 담론을 보완하는 틈새미디어로서 역할을 한다. 이처럼 1인 미디어 미시담론이 ‘개체’를 중시하는 현 시대의 주요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공간을 설계하고 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조경학 분야에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장소감을 도출하고, 장소감과 1인 미디어 담론이 미시담론으로서 갖는 의미와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하여 블로그와 트위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1인 미디어를 공간 및 장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담론의 장으로 바라보고 서울숲과 관련된 미시담론의 시기별 주요 내용, 장소감의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담론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장소감을 도출하기 위한 표본 선정의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숲과 관련하여 방대한 양의 게시물을 보유한 블로그와는 달리, 한국에서 2009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트위터는 그 표본 수가 현저하게 적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140자라는 글자 수의 제한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도 양적·질적인 차이를 드러냈다. 또한, 블로그와 트위터 표본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 개입으로 인해 실증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1인 미디어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으면서, 1인 미디어를 이용하는 계층에만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전(全) 계층의 이용자를 아우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과 1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되며, 그 외의 집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의 의의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이 장소를 해석하고 논하는 주체로 변모함에 따라 그들이 생성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개개인의 장소감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존 매체 혹은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다루지 않았던 장소감에 대한 연구는 이용자의 개체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조정분야에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숲이라는 공간 및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1인 미디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살펴보았다. 이용자와 그를 둘러싼 맥락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의 1인 미디어의 기능과 잠재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 결과는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소통과 참여를 중시하는 조정분야에서 1인 미디어 고찰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된다. 현재, 1인 미디어는 개인이 대중매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손쉽게 연결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담론을 형성하는 데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1인 미디어 담론이 개인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그들 각각의 생활세계를 반영하게 되고, 그로부터 집적된 일상성은 개개인이 속한 사회를 통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장소감을 도시공원에 대한 담론의 하나로 여기고 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것은 일상사와 미시사 연구의 중요도가 큰 현 시대에 미시담론이라는 틀로 일반인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의의가 있다. 전문가 담론과 그를 보완하는 일반인의 미시담론의 상호 이해는 도시공원에 대한 담론이 균형적으로 형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아가 미시담론의 활용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1인 미디어의 표본과 다양한 전문가 담론을 대상으로 비교 고찰한 후속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곽차섭 엮음(2000), 『미시사란 무엇인가: 역사학의 새로운 가능성-미시사의 이론, 방법, 논쟁』, 푸른역사.
- 김관규 외 2(2009), 『컨버전스 시대와 매체로서의 개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영주(2005), 『블로그, 1인 미디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언론재단.
- 김인, 박수진(공편)(2006), 『도시해석』, 푸른길.
- 김철수(2006), 『도시 공간의 이해』, 기문당.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1992), 『도시계획론: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 배정환(2004), 『현대조경설계의 이론과 생점』, 환경과 조경.
- 백선기(2003), 『정치담론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1995), 『보도의 기호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백선희(2005),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한국학술정보(주).
- 이기형(2004), 『인터넷 미디어: 담론들의 ‘공론장’인가 ‘논쟁의 게토’인가?』, 한국언론재단.
- 이성규(2009), 『또 하나의 세계를 여는 트위터 140자의 매직』, 책보세.
- 이무용(2006) 『도시해석(도시와 문화)』, 푸른길.
- 이유주현(2006), “녹색 공원은 평등한가”, 『봄, 조경 사회 디자인』, 조경비평 봄, 나무도시.
- 이재신, 이민영(2008), 『시민문화의 형성과 생활세계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호영 외 4(2011), 『소셜미디어의 성장과 온라인 사회관계의 진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완진(2008), 『1인 미디어의 힘』, 매경.
- 조경진(2010), “공원, 도시의 희망: 창조적인 공원 만들기를 통한 도시 디자인”, 『공원을 읽다』, 조경비평 봄, 나무도시.
- 주성수(2005), 자원봉사 : 『이론, 제도, 정책』, 아르케.
- 진양교(2010), 『기억과 상징으로의 여행: 43 도시재생공원』, 환경과 조경.
- 한정호, 박노일(2010), 『정책홍보에 있어 트위터를 활용한 정책 담론 형성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진흥국.
- Allan Bell and Peter Garrett(1998)(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Blackwell.
- Emile Benvenist(1971), Problems in General Linguistics, University of Miami Press.

- Rebecca Blood(2002), 『The Blog Handbook』, Perseus Pub., 정명진(역)(2003), 『블로그 : 1인 미디어시대 = Blog』, 전자신문사.
- Tim Cresswell(2004), 『Place : a short introduction』, Blackwell Pub., 심승희(역)(2012), 『장소: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시그마프레스.
- David Crystal(1987), 『The Cambridge Encyclopaedia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ris Walker(2004), The public value of urban parks. In: Beyond Recreation: a Broader View of Urban Parks. The Urban Institute.
- Teun A. Van Dijk(1985),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1~4, Academic Press.
- Norman Fairclough(1992), 『Media Discourse』, Arnold.
- Julia Czerniak(2009), “Agency by Design”, in Landscape Alchemy, George Hargreaves et al.(2009), Oro Editions.
- Sara Mills(1997), 『Discourse』, Routledge, 김부용(역)(2001), 『담론』, 인간사랑.
- William J. Mitchell(1995), 『City of bits : space, place, and the infobahn』, MIT Press.
- Ian Nairn(1965), 『The American Landscape: A Critical View』, Random House.
- Norman Fairclough(1995), 『Media Discourse』, Edward Arnold, 이원표(역)(2004), 『대중매체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 Michael Oakeshott(1933), 『Experience and its mod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chael Pacione(2001), 『Urban Geography』, Routledge.
- Edward Relph(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김덕현 외2인(공역)(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Yi-Fu Tuan(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구동희 외1인(공역)(2007), 『공간과 장소』, 대운.
- William Kymlicka and wayne Norman(1995),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the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in Theorizing Citizenship. Ronald Beiner (ed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학위논문

- 강지웅(2010), 블로그와 온라인 공론장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영(2005), ‘1인 미디어’ 이용과 충족에 관한 연구 : 블로그와 미니홈피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영락(2005), 장소기반 환경교육에서 장소감의 발달과 환경의식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미(2005), 1인 미디어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싸이월드’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윤미(2012), 선유도공원의 공간 소비 양상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우리(2010), 한국 인터넷 선거 캠페인의 특징 연구 : 선거법 개정 전후의 뉴스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선혜(2004),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옥중(2010), 삼청로의 장소성 형성에 나타난 인지 특성에 관한 연구 : 웹(web)이미지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경(2008), 청계천복원관련 담론분석을 통한 환경인식 지형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한아(2008), 서울숲 공원문화 형성과정과 시민조직의 역할,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형엽(2011), 블로그 매체 분석을 통한 현대 소비문화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홍대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이(2012), 이용자 행태 분석에 있어 블로그(Blog)의 이용가치 연구 : 삼청동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기범(2010), 블로그의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이 정보원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아름(2011), 서울 도시공원의 일상성 구현에 관한 연구 : 탑골공원, 마로니에공원, 선유도공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명진(2009), 관광목적지 장소감 구성에 관한 연구 : 장소정체성과 사투리 호감도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학술논문

권영락, 황만익(2005), “장소감의 환경교육적 의의”, 『환경교육』 18(2):55-65.

공인규, 오현석, 이희원(2010), “서울숲의 기능과 도시림으로서의 생태적 요소 분석”, 『2010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830-3.

김덕현(1996), “장소성과 장소구축”, 『사회과학연구』 14(1):61-83.

- \_\_\_\_\_ (1997), “장소감의 유형화와 장소 재현”, 『사회과학연구』 15(2):107-131.
- 김순호 외2인(2012), “연령별 가중치 분석을 통한 도시의 삶의 질 지표선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7):453-62.
- 김애령(2009), “현상학과 해석학의 방법론적 적용의 문제: ‘체험연구’의 현상학적 토대와 해석학적 확장”, 『탈경계 인문학』 2(1):231-58.
- 김유일, 김정규(2011), “도시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민의 의식과 만족도 모델”, 『국토계획』 46(1):157-70.
- 김현주(2003), “장소감과 환경 교육-환경 감수성으로서의 장소감의 환경 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6(1):313-29.
- 모경환, 김명정, 송성민(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42(1):77-101.
- 박선희, 김연금(2011), “1인 미디어 블로그(Blog)가 포착한 선유도공원 경관”, 『한국조경학회지』 39(3):64-73.
- 박재우(2012), “미디어에 나타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사회적 담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9):434-46.
- 여종현(2005), “현상학적 지향성과 도덕교육 -도덕교육의 가능성의 존재론적 근거-”,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123-54.
- 원미순, 박혜숙(2010),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225-245.
- 이기형(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3):106-45.
- 이석환, 황기원(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32(5):169-84.
- 이진우, 박일우, 김종환(1996), “담론이란 무엇인가?:담론 개념에 관한 학제간 연구”, 『철학연구』 56:257-90.
- 이희영(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120-48.
- 전선영(2011), “지역시민의식 형성 영향 요인: 용인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2):785-99.
- 조경진(2007a), “공원문화의 현실과 지평: 서구와 한국의 공원이용 변천과 비교를 중심으로” 『환경논총』 45:33-54.
- 조희진(2010), “미디어에 나타난 의류 재활용 관련 담론과 사회적 논의 방식”, 『실천민속학연구』 16:121-65.

- 차하순(2008), “역사설명의 이원적 구조”, 『서양사론』 96:241-58.
- 최병두(2002),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8:253-78.
- 허창희, 최규수(2011), “트위터에서 트윗(tweet)의 특징과 유형 연구”, 『韓民族語文學』 61:455-94.
- 홍성구(2011) “언론을 매개로한 장소의 의미구성 : 두타산에 관한 지방종합일간지 보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7(1):31-56.
- Matt Sanger(1997), “Sense of place and educ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9(1):4-8.
- Yi-Fu Tuan(1975), “Place: an Experiential Perspective”, *The Geographical Review*, 65(2):151-165.
- Yi-Fu Tuan(2002), “Textual silence and the discourse of homeless”, *Discourse & Society*, 13(3):347-72.
- Daniel R. Williams, Michael E. Patterson, Joseph W. Roggenbuck, Alan E. Watson (1992)(eds.), “Beyond the Commodity Metaphor: Examining Emotional and Symbolic Attachment to Place”, *Leisure Science*, 14:29-46.

#### 정기간행물 및 보고서

- 김기봉(2008), “종말론 시대, 역사이야기의 귀환”, 『서강인문논총』 제23집 (2008년 06월).
- 박상필(2011), “1인 미디어, 스토리가 있는 도시 마케팅”, 『BDI포커스』 제116호 (2011년 8월).
- 서울특별시(2006), 『서울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 민선3기 (2002~2006) 정책성과백서』,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 황상민, “자신의 정체성 확인하려는 미니홈피의 심리학”, 『한겨레21』, 제518호 (2004년).
- 한국인터넷진흥원(2006), 『2006년 인터넷이슈심층조사 보고서, 웹 2.0시대의 네티즌 인터넷 이용 현황 -참여와 공유의 인터넷-』 (2006년 6월).
- 서울특별시(2004), 『서울숲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서울특별시.
-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컬처 연구소(2010),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함께 일구는 창조적 미래를 향하여』, 기획재정부.



## 프로시딩

- 김인호(2011), “도시공원 운영관리의 새로운 방향”, 『한·일 도시공원정책 세미나』, 한국조경학회, 2011.02.11.
- 성종상(2006), “변화하는 도시, 진화하는 공원”,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문화』, 서울그린트러스트, 2006.11.30.
- 이강오(2006), “서울숲 시민참여 과정과 주요성과”,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문화』, 서울그린트러스트, 2006.11.30.
- 이근향(2006), “서울숲의 민관협동 운영시스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문화』, 서울그린트러스트, 2006.11.30.
- \_\_\_\_\_(2007), “뉴욕 센트럴파크 운영사례를 통한 서울숲 발전방안”, 『세계적인 공원 서울숲으로 가기 위한 발전 방안:2007 녹색서울포럼006 세계적인 공원 서울숲을 위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007.11.15.
- 조경진(2007b), “서울숲 문화행태평가 모니터링”, 『세계적인 공원 서울숲으로 가기 위한 발전 방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007.11.15.
- Nicole Collomb(2010), “Value of Urban Park”, 『도시공원에 대한 새로운 지평, New Ideas on Urban Parks』, 한국조경학회, 2010.11.24.

## 기타

<http://parks.seoul.go.kr>

<http://parks.seoul.go.kr/seoulforest>

한국조경신문

매일경제

위키백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부록

###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1인 미디어 표본 선정 표

#### 1. 블로그

번호	블로그 이름	게시물 제목	게시일
<b>2013</b>			
1	초심자의 행운	이른봄,서울숲의동물들..	2013-03-24
2	Kim's Repositorium	서울숲에는 벌써 봄맛이가 한창	2013-03-06
3	달달한 핫초코 이야기	서울숲 꽃사슴	2013-03-05
4	민서맘의 행복한 세상살이	서울숲공원	2013-03-18
5	tanaring	사슴이 있는 곳~ 서울숲 나들이~	2013-01-14
6	땅을 그리며 도시의 숲을 그려나가 는	서울숲 사랑모임 운영팀에 제안 1	2013-04-09
7	댄싱퀸	서울숲에서 예쁜꽃 보고왔어요.	2013-01-16
8	Dole과 함께하는 과일, 그 이상의 경 험	[서울걷기좋은곳/산책하기좋은곳]서울숲으로주말나들이가자!	2013-03-22
9	바람같은 바람	20130319_서울숲	2013-03-19
10	유실물보관소	『서울숲』 다녀왔어요~~♪	2013-02-05
11	빈이의 블로그	연인들의 최고의 데이트 장소 [서울숲]	2013-03-19
12	소소한 나날들	가족나들이 -서울숲 다녀왔어요.	2013-01-28
13	By MinKO	주말 나들이-서울숲	2013-02-04
14	토실이와 웅호빵의 썬나는 여행	130316 서울숲 운동 러쉬 ~ (도심속의 릴렉스 공간)	2013-03-24
15	산내들	입춘대설 '서울숲'	2013-02-06
<b>2012</b>			
1	샤련의 감성 여행로드	서울숲에서의 가족데이트 [서울숲 공원은 아이들과 가볼만한곳]	2012-05-17
2	키 작은 꼬마아이☆44번지	서울숲에는 신기한게 많아요! : 독섬역 서울숲(서울 출사)	2012-08-25
3	여기는 Hoonjjang네	서울숲 가족나들이 강추 !!!	2012-05-27
4	Remember	서울 숲에서 가을을 만나다	2012-10-29
5	조엘의 사진첩	[서울 출사지] 도심속의 자연 '서울숲'	2012-07-01
6	♡H@D@D@Y♥@①①①♡체험, 리뷰,육아,일상이야기	[서울숲]-주말 나들이추천.	2012-10-08
7	세상의 모든 아침	분당선 전철타고 서울숲 가자	2012-11-26
8	sosa0sa.com	혼자 가 본 서울숲	2012-05-20
9	걷다가	서울숲 - 서울의 녹색심장	2012-05-15
10	신지선의 다알리아	Let's PR 서울숲에서 스타벅스와 함께하다!	2012-04-03
11	푸르미의 산림이야기	서울 도심 한복판의 휴양림, 서울숲!!	2012-07-31
12	Antic Nomad	〈Slow Bicycle #2〉 숲에서 강으로 가는 지름길, 서울숲 코스	2012-04-09
13	지구관리대원	서울 가볼만한곳 서울숲	2012-07-19
14	마음을 두드리는 셔터소리	포토에세이 - 주말, 가을 서울숲 나들이	2012-10-15
15	Dreaming Shore	늦겨울,나홀로서울숲나들이	2012-02-27
16	with JK	서울숲	2012-10-15
17	미소 드림 브이	서울숲 다녀왔어요~!!	2012-11-18
18	YoSyMoCo	서울숲 나들이	2012-11-09
19	YELLOW	[9번째 도서관] 서울숲 숲속작은도서관	2012-03-11
20	keep in faith	서울숲 은행나무숲	2012-11-03
21	쿨하면서도 달콤한 오늘 하루	서울숲 주말 나들이 추천	2012-11-11
22	사진 그 발자취의 기록	서울숲 주차장 부터 곤충식물원 까지~	2012-12-08
23	하트숨의 행복한 천연나들이	서울숲 허브정원의 가을	2012-11-05
24	YOUNGDoll	서울숲 나들이	2012-06-04

25	한실장의 즐거운 원룸찾기	도심속의 자연 서울숲 단풍놀이	2012-10-23
26	준우와 함께하는 행복	연휴 가족나들이추천, 서울숲	2012-05-25
27	또하나의 공간	Seoul Tour #8.] 도심 속의 푸른 일탈, 서울숲!	2012-07-10
28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12.10.21 서울숲 나들이	2012-10-21
29	엠제이의 일상다반사	지구촌 봉사의 달 _ 서울숲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2012-04-25
30	마로니네 집	서울숲 걷기	2012-06-11
<b>2011</b>			
1	chy's diary	서울숲-데이트장소추천	2011-10-31
2	벼버의 꿈지락 이야기	[서울숲 공원 가꾸기날] 서울숲 진달래 동산 만들기...	2011-04-11
3	명랑본태보라쟁이	서울 뚝섬, 서울숲	2011-03-16
4	노바가족이야기	가을나들이2-서울숲	2011-10-03
5	두루두루	도심속 가을산책[서울숲]	2011-10-19
6	굴무처럼's Room	서울숲 속 작은 도서관에서	2011-10-20
7	길냥이의 방랑하우스	뚝섬데이트, 서울숲	2011-10-13
8		서울숲에서	2011-09-13
9	상상마을	서울숲-01/02/03	2011-05-30
10	풍당하고 빠지는 매력	도심 속의 숲, 서울숲	2011-07-06
11	건담아빠의 조경세계	건담아빠의 서울숲 답사	2011-06-21
12	공감배려돌봄	도심속 공원 서울숲 산책하기	2011-08-02
13	made in 초록구슬	[20111029]리빙라이브러리	2011-10-30
14	책읽고 노래하고 여행하는 공대녀	20110327서울숲&뚝섬여행	2011-04-26
15	새침여왕 구름 위 HOUSE	데아트코스추천, 서울숲!	2011-05-08
16	여행 그리고 사진놀이	도심한복판에서 즐길수 있는 숲속 공간 서울숲	2011-12-10
17	여행하기 먹기 요리하기 그렇게살기	[뚝섬 서울숲]우연히 들린 곳에서 맛본 행복	2011-08-08
18	tistory	서울숲에 나타난 마징가...	2011-05-20
19	그리게걷기	111031 [서울숲]-서울나들이	2011-12-27
20	내겐 좋은 친구가 있었네!	It's my park day, 내가 만드는 서울숲 진달래동산	2011-04-11
21	PONY'S DAY BY BAY	D 179 서울숲나들이	2011-10-11
22	정석의 견고싶은 도시,살기좋은 동네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2011-10-30
23	조블리의 달콤한 인생	[서울숲]늦깎이 가을 만끽하기	2011-11-24
24		서울산책2탄. 서울숲	2011-10-06
25	일상에서 찾은 감성	서울숲	2011-09-13
26		서울숲	2011-08-23
27	숲을거닐다. 자연에 살다	110517서울숲나들이1/2	2011-05-18
28	소곤소곤 불량주화 이야기	주말나들이_서울숲	2011-05-29
29	"뚜바비엡" 감성공간 꾸미기	서울숲나들이	2011-09-18
30	구구월드	서울예코투어 도심속의 숲을 찾아,주말 서울숲 나들이	2011-07-31
<b>2010</b>			
1	팡가의 소소한 일상	[서울/성동구]드디어봄이왔다.도시락챙겨서울숲으로 봄소풍을~	2010-05-01
2	풍경속으로...	[서울여행]서울숲에서 가을 즐기기...	2010-11-05
3	감감	녹색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서울의 녹색 성장 프로젝트 '서울숲'	2010-09-18
4	諦念과 超越의 境界	2010년 4월 25일, 햇살좋은 오후, 서울숲 풍경	2010-04-26
5	특수목적형 블로그	도심 속에서 찾는 작은 여유, 서울숲!	2010-08-15
6	호박툰의 유쾌한 카툰일기	데이트장소서울숲	2010-10-15
7	Flâneur	서울숲 이야기(20100813)	2010-09-17
8	투남매맘 줄라이의 옛지있는 IQ,EQ 육아 비법~	2010 서울숲 봄 풍경들~서울에서 만나는 전원~	2010-04-27
9	숨은 보물찾기 프로젝트~~아자아 자!	서울숲 둘러보기	2010-07-14
10	강냉이의 블로그	서울숲 1: 조각공원, 허브정원,영주사과길	2010-09-26

11	Yeony's Blog	서울숲 나들이	2010-11-18
12	사춘기 소년처럼	[서울숲] 자전거 타고 놀러가기 좋은 곳, 서울숲.	2010-09-23
13	특별한 여자의 블로그	서울 숲.	2010-09-26
14	생각하는 나무 창가 옆 글쟁이	서울숲을 달리다.	2010-05-17
15	Be Sunny	서울숲이야기	2010-07-05
16	RivErmAn-잔잔한 Vandalist	〈국내여행〉서울 숲 - 도시와 숲의 공존	2010-09-07
17	잘먹고 잘살기 프로젝트	20100711 서울숲	2010-07-11
18	윤미의 하루만들기	2010년 다시 찾은 서울숲에서 진정한 주말을 만끽하다..	2010-07-14
19	adsym님의 블로그	독섬의 변신 - 서울숲 공원에 다녀왔어요	2010-05-12
20	seeseacallcoll	서울숲을 훑어보다	2010-10-01
21	내일은 맑음?	서울숲	2010.01.18
22	친절한 라미씨	추천 데이트 코스 서울숲 & 추천 가족 나들이 서울숲	2010-04-10
23	SK에너지, 지금은 자원봉사 활동중	SK에너지, 지금은 자원봉사 활동중	2010-06-09
24	빈우리터	서울숲 나들이	2010-05-31
25	0. THE FOOL	홍릉 수목원/서울숲	2010-10-25
26	ㄴ 신수 ㄱ	[서울숲]곤충식물원	2010-03-17
27	내겐 좋은 친구가 있었네!	서울숲사랑모임 자원봉사자로 5년...	2010-02-16
28	냥냥의 놀이노리	서울숲 :: 데이트장소로 적극추천♡	2010-09-26
29	big picture	서울숲 방문기	2010-10-09
30	해피블루	독섬 서울숲~	2012-05-04
<b>2009</b>			
1	자유.여행.그리고 추억	서울숲 그리고 가족의 일상(20090104)	2009-01-04
2	나무엘	서울숲	2009-08-17
3	블루워터의 꿈	[서울가볼만한곳] 서울숲 - 너무 좋은 추억을 제공해줍니다.	2009-08-22
4	inwardly-mymind	서울 숲의 매력...	2009-10-09
5	윤미의 하루 만들기	서울숲에서 봄을 느끼다...	2009-03-31
6	썸 [내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	서울숲 20090404	2009-04-09
7	로또의 땅굴	*서울숲	2009-10-17
8	하얀줄마의 육아본능	서울숲에서 놀자!!! 비가와도 좋아요^^ 도심한복판에서 자연과 놀자!	2009-04-05
9	TheDreamer	서울숲&독섬유원지	2009-08-05
10	OnlineSmooth	도심 속의 녹색을 찾아서 - 서울숲 (Theme II)	2009-10-09
11	나는 내일의 ★	지구의 날 대학생 환경 축제	2009-01-11
12	toys0009 by DonghakByun	여유러움과 함께하는 공원_서울숲(2)	2009-10-30
13	Confession Of a Womanchild	바람부는 서울숲에는 음침한 초자가 돌아다닌다?	2009-11-14
14	잔차와 더불어 행복나누기	[여의도모임-아침운동] 12/4(금), 서울숲+올림픽공원	2009-12-04
15	Be Gorgeous	서울숲 그리고 짜장면 먹기 내기-_-	2009-05-30
16	서진아 루시아 사랑해	서울숲과 새들	2009-12-02
17	안다는 것.. 알아간다는 것...	성동 - 서울수 [seoul, Korea]	200-03-08
18	다이빠	서울숲공원 ...1	2009-06-22
19	희망 꿈꾸기	서울숲공원	2009-08-10
20	열정이 살아있는 동안 나는 살아있다.	서울가볼만한곳 - 서울숲	2009-07-20
21	SeaN,YanY,&BebrightT... aLwAyS bE mY hApPiNeSs	서울숲의 가을	2009-10-26
22	☆맛난 일상들★	어제 서울 숲 다녀왔습니다★	2009-08-04
23	정여사님의 명랑골프	EVERYDAY #2. 서울숲	2009-05-26
24	엄마와 소풍	서울숲 나들이	2009-07-09
25	::: 어느날 문득, 달콤한 아이스크림	오늘은 서울숲	2009-08-04
26	이 세상의 나침반이 되자!!	서울숲 환경보호 풋말만들기와 사슴농장 체험기^^	2009-10-25
27	행복	서울숲에서,,,	2009-09-28
28	agnes :: 우당탕탕	2009.08.23 - 서울숲 나들이	2009-08-27

29	BONNE CHANCE! ♡	090919서울숲	2009-09-19
30	♪ Dillong Lucy 빛나는 인생	서울숲	2009-10-26
<b>2008</b>			
1	이야기가 있는 풍경	서울숲의 만추..1	2008-11-13
2	Thinking	[서울/성동구]서울숲_길[3]	2008-05-03
3	꽃지혜 일러스트 스케치북	서울숲1	2008-07-10
4	영동한 상상	자전거 타고 서울숲을 가다!!<2부>	2008-07-13
5	바람한점,햇볕한줄,그리고...	서울숲.	2008-11-21
6	율리's home	가을나들이...서울숲..1	2008-10-09
7	나무야 놀자	서울숲의 재발견	2008-08-24
8	World in my view finder	서울숲(부제: what a chilly day)	2008-11-21
9	내 마음 속,숨쉬는 보물상자	서울숲 (Seoul Forest)	2008-05-13
10	Applemint	[강북] 서울숲	2008-07-15
11	도토리	서울숲 자원봉사"가꿈이" O.T 탐방시간	2008-09-02
12	Graphophobia	서울숲 얼굴들	2008-12-03
13	Dreams In a Pie	080505서울숲	2008-05-09
14	번개구름	서울 숲	2008-05-29
15	SASAKIYUKO	서울숲 방문기	2008-06-23
16	Imparadise	2008.11.6-서울시성동구'서울숲(야경)	2008-11-06
17	순간이 영원해지는 곳	서울숲 (37장) - 2008.8.25	2008-08-25
18	모다's Blog ... Fun with life!	서울숲 나들이	2008-04-06
19	101% 초보 부모와 꼬맹이	익자가 많아서 쉬기 좋은 '서울숲'~	2008-03-18
20	방랑시인	서울숲출사..(part.II)	2008-11-21
21	세상사랑	맑고청명한날의"서울숲"	2008-10-12
22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주 소소한 이야기'	날 좋은 어린이날 서울숲 소풍	2008-05-07
23	마음의 평화와 미소	숲속여행프로그램(일자산)	2008-05-04
24	머리숄 없고 배나온 중년아저씨	[다니고]봄에느끼는서울숲	2008-04-07
25	추천.카페.웹진	[추천 데이트장소] 휴식이 필요한 사람에겐 서울숲	2008-05-16
26	24/7	T-Project PART 26. 부기(2008.10.10~10.13)	2008-10-14
27	문화중개인 예술뚜쟁이	서울숲 탐방 [서울촌놈*서울여행]	2008-08-27
28	초대	서울숲 '독섬'	2008-10-15
29	초록물괴기의 외출	10월 13일 또 서울숲에 가다..	2008-03-04
30	노말라임의 Travelkit	[노말라임's 어느멋진날] 서울숲 이야기	2008-05-02
<b>2007</b>			
1	살아가는 이야기	서울숲공원	2007-06-12
2	타코&방새&유빈	서울숲(07. 7. 8)	2007-07-08
3	서울아가씨 쏘의 맵시있는 한국 이야기	[서울여행4thday/서울숲]사랑스러운서울-서울숲	2007-04-30
4	강스책방의 풀꽃나무 이야기	8월 서울숲에서 만난 풀꽃친구들	2007-08-14
5	내겐 좋은 친구가 있었네!	서울숲 GUIDE MAP NO. 18 - 보행전망고	2007-09-15
6	Cave of Chonangam	서울숲	2007-09-23
7	Images la sauvette	서울숲에 놀러가다(2)	2007-04-17
8	갈색여자 김송양의 블로그	서울숲을 갔다와서...	2007-01-26
9	VERTIGO 2.1	서울숲	2007-11-04
10	겨울루팡	자전거 타고 서울 숲으로	2007-09-17
11	바늘이랑 놀기	서울숲	2007-10-23
12	뽕이의 감칠맛나는 세상이야기	서울숲 1인치를 찾아서...	2007-04-26
13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독섬 서울숲(1)	2007-06-17
14	윤미의 하루 만들기	서울 숲!!	2007-06-11
15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서울숲(1)-숲	2007-07-23
16	서울숲 자원활동가	서울숲의 첫 인상	2007-02-20
17	needled247's(생각, 추억, 사진들...)	[나들이 (2007/08) - 서울숲]	2007-08-29
18	^ ^	서울숲	2007-09-04

19	산과 도시락	부슬비 내리는 서울숲	2007-07-02
20	Storyteller	서울숲 나들이	2007-05-08
21	자주만나요	서울숲산책소감	2007-10-05
22	레드마린	서울숲나들이	2007-05-25
23	빛나는 무인도	서울숲	2007-08-26
24	다이어트 컨설턴트 동아저씨	걷기운동에 좋은 서울숲을 가다	2007-09-07
25	Cool&JazzyLife	0709 서울숲 1, 2	2007-09-09
26	London Bridge	서울숲	2007-01-18
27	길에서 길을 묻다	서울숲...	2007-05-20
28	진정한 자유로움과 진실은 어디로 향했을까?	역시나 서울숲의 가을과 겨울 사이...	2007-11-23
29	베이직	서울숲	2007-10-28
30	The Decisive Moment.	서울숲 나들이.	2007-05-05
<b>2006</b>			
1	With MUMIN Style	060606서울숲	2006-06-06
2	김학원블로그	서울숲에서	2006-10-11
3	희희낙락 유유양	도심속 푸른자연[서울숲]	2006-01-15
4	살며 사랑하며...	서울숲 방문기	2006-03-10
5	jeonsa75님의 블로그	서울숲에 다녀오다...	2006-07-30
6	코끼리 공장	독섬 서울숲 구경하기~2	2006-05-18
7	당신에게 들려주고싶은 아주 소중한 이야기	서울의 폐, 서울숲	2006-09-04
8	공간기행 - 꿈을 잃은 이상주의자, 아직도 방황 중	눈과 함께 찾았던 서울숲 <2006.12.17>	2006-12-18
9	가드너스와이프 플라워스쿨&가드닝스쿨	서울숲의 이미지들	2006-07-26
10	번데기의 꿈	서울숲	2006-05-17
11	산적주니어 상민이	초록바다 서울숲에서 뒹굴다~	2006-09-05
12	바람이 남긴 발자국	서울 숲에서...	2006-05-03
13	朴家들이랑 金家랑	서울숲	2006-09-01
14	Dream Family-Dream Fly	서울숲	2006-10-30
15	가을이의 행복한 세상	2006-6-17 서울숲<꽃사슴 먹이주기>	2006-06-21
16	소확행	서울숲	2006-10-07
17	Monotone Retreat	06년 09월의 마지막 주 나들이 (서울 숲)	2006-10-04
18	달콤한 나의 도시	서울숲	2006-11-05
19	MuSt Have 열정, 용기 그리고 무모한	서울숲	2006-10-10
20	iklues.net	해질녘에 방문한 서울숲	2006-11-14
21	"shinking87"	20060920 서울숲 2/3	2006-09-26
22	笑顔	서울숲 공원-독섬	2006-01-16
23	사진으로 보는 소나무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	다시 가본 서울 숲	2006-10-21
24	지속가능한개발!^^	서울숲5	2006-10-03
25	맘 따스한 사람들과 마시는 한잔의 커피처럼	독섬"서울 숲"데이트	2006-07-06
26	뽕이의 감칠맛나는 세상이야기	서울숲 구석구석 돌아보기 #2	2006-10-04
27	magots	서울숲-이름만 숲...	2006-06-01
28	...	"책읽는 공원, 서울숲"	2006-06-17
29	...	서울숲 나무 보약주기	2006-11-13
30	또르또르의 블로그	서울숲...	2006-05-12
<b>2005</b>			
1	양탈쟁이모모씨★	[후기] 서울숲을 가다	2005-10-30
2	남다른여인네의남다른꿈	서울숲댕겨온날-[1]	2005-08-04
3	달콤함과 쓸쓸함	기대없이 들러본 서울숲	2005-07-18

4	이런저런 이야기의 공간	서울숲 이야기	2005-06-29
5	햇살 가득한 집	서울숲은 어떻게 변했을까?	2005-08-27
6	래희,래은이네 가족이야기	서울 안의 쉼터 서울숲	2005-10-05
7	FactoryDottcat	서울숲1	2005-06-29
8	jeryang's-시은이네가족	서울숲	2005-07-30
9	World according to Jennis, It's my world	서울숲에 다녀오다...	2005-07-06
10	Jetlag Dreams	불타는 하늘@서울숲	2005-08-23
11	[月山]구름에 달 가듯이...	독섬 서울숲 출사	2005-07-01
12	즐거운 생각하기[좋은나라 만들기]	독섬 서울숲...	2005-06-25
13	책방꽃방	독섬 서울숲	2005-06-22
14	일상	나두 서울숲 가봤다~	2005-10-19
15	별이 지나가는 길	0918서울숲에다녀왔습니다.	2005-09-18

## 2. 트위터

번호	작성자, 게시일	번호	작성자, 게시일
<b>2013</b>			
1	바람난양탈쟁이SuN@srh42524월9일	11	EunbyeolGo@gombyeol124월5일
2	잭프로스토티@Jackfrost_botkr4월9일	12	라이타돌@foreksj4월4일
3	송@hongzi274월8일	13	데세랄을향하여@wantdslr3월27일
4	박궁정여사@iminitio4월7일	14	김우열@ieol3월10일
5	반품JeongsooKim@U_Haruka4월7일	15	김우열@ieol3월10일
6	마틴의아소린@choiaso4월7일	16	오명의생각하는사람@oodeng3월10일
7	Kimmoonjeong@dalpiri 4월6일	17	데세랄을향하여@wantdslr2월17일
8	CookieMonster@kvhx7 4월5일	18	이도00035712@월9일
9	이승주@Seungju_z4월5일	19	이경아kyeongahlee@zadunamu2월4일
10	OXFORDKITCHEN@oxford_kitchen4월5일	20	멜리@mlyxx1월17일
<b>2012</b>			
1	Zzangwoo@zzangwoo 12월1일	19	쉬즈엠디@ShesMD8월7일
2	부들부들연구원@boodleboodle_11월10일	20	쌍글거림:~)@wonssang8월5일
3	부들부들연구원@boodleboodle_11월8일	21	Leeeun-young@LEY092412년4월14일
4	최정희 @hong5154 10월 23일	22	진영@kamiso12068월1일

5	김현지@kimhjya10월29일	23	김연학@Yeonhaki7월10일
6	허니머스타드@polaris_2710월26일	24	욕심많은꾸이@jjuty6월27일
7	NeverGiveUP @spitzforever 10월24일	25	롤루랄라@Huh01276월25일
8	유경숙@prniki122010월24일	26	kimtaehan@sweetmarket6월2일
9	다유아빠 종철 @rodman8099 9월 20일	27	김종윤(Geoffrey)@ilys5185월28일
10	승은,디저트 @seni0417 10월 14일	28	J.InaLee@inajlee5월15일
11	yoonyoondal10월11일	29	윤영준YoonYoungJun@junemujik5월10일
12	shyshyny@ny_fretempo10월7일	30	장경진@kj2sky5월9일
13	younghoKwon@eoside10월5일	31	유미주의@Yumismm5월7일
14	쿠미@keysblackhole9월24일	32	Delusion_울*_@Flowik4월29일
15	Won Jae Chang 장원제 @wochang 6월 16 일	33	이수옥@Iso08124월28일
16	leesamuel@airlyu9월8일	34	쇼설농부sunghwan-kim@duduksh4월14일
17	박옴파룸파@SUPER_PARK8월19일	35	ChangsikChoi@sikxman4월11일
18	김태은@govira18월13일	36	Impyeong Lee @ip820 12년 4월 1일
<b>2011</b>			
1	Yi Jeongyun @yjeongyun 11년 11월 28일	11	Seung Bong, Jeon @jsbsports 11년 5월 28일
2	kimmi @kmaywe 11년 11월 10일	12	spaceplanner @spaceplan2er 11년 5월 26일
3	Kihoon J. @Kihoonica 11년 11월 7일	13	Donghee Lee (이동희) 2@_dongdong 11년 5월 23일
4	HyoLim @HyoL_21 11년 10월 16일	14	곽노현 18대 서울시교육감 @nohyunkwak 5월 14 일
5	지구별의 초록셋별 @Leah_Suh 11년 10월 16일	15	Joseph Kwak @Joseph_Kwak 11년 5월 5일
6	지구별의 초록셋별 @Leah_Suh 11년 10월 16일	16	네모 @supermonemo 11년 5월 5일
7	JUNG YOUJUNG @zaimengli 11년 10월 3일	17	Yea-Lee,Kim @yellabichu 11년 4월 23일
8	손남목 @doore777 11년 9월 5일	18	하나래 Narae Ha @unfoldnarae 11년 4월 20일



9	Ji SungBae 지성배 @SingerSungBae 9월 4일	19	kim tae jin_김태진 @k2i7m 11년 4월 17일
10	땅콩시인 @bluevivache 11년 8월 21일	20	미니나 @minijo0615 11년 4월 9일
<b>2010</b>			
1	minjung KIM @MJ_0804 10년 12월 16일	9	Daegeun Lee @daegeunlee 10년 6월 27일
2	조재호 @jo1nn 10년 12월 10일	10	Yoojin Kim @basara79 10년 6월 6일
3	미츠키 @Mituki1224 10년 11월 7일	11	Minah Chung @minahchung 10년 5월 20일
4	Sung Mi, Kim @lucy_factory 10년 11월 3일	12	로지 @rozi923 10년 5월 8일
5	Yoojin Kim @basara79 10년 9월 26일	13	zero @myzero_ 10년 5월 2일
6	LEE hyun jjung @angedesabatier 10년 9월 25일	14	정인선 • Irene @theireneij 10년 5월 2일
7	Ken Park @jjjimo 10년 8월 15일	15	kortada25 @kortada25 10년 2월 23일
8	허은숙 @singirusis 10년 8월 6일		
<b>2009</b>			
1	KYUNGHYEON PARK @hyeon89 09년 10월 11일	5	H.F.Kais @hfkais 09년 8월 10일
2	Brian Byung-Fhy Suh @sbf1101 09년 9월 13일	6	kyoungsookchoi @ggangchoi 09년 8월 9일
3	Hosang Lim @hosanglim 09년 9월 7일	7	Yunsang Choi @oddpoet 09년 5월 31일
4	Jungmin Kim @amator 09년 8월 14일		

## ■ Abstract

### **A Study on the Micro-Discourse about Seoul Forest in Personal Media - Focused on Sense of Place -**

Jaei Le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 Jong-sang Sung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individual's specific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Seoul Forest by reading the visitors' feelings and perspectives on Seoul Forest through the personal media.

The development of media has brought a radical change in the methods, ranges,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ince human history. Posting one's opinions and thoughts with no limits on the virtual spaces such as Blogs, Twitter and Facebook which are private spaces is the most important change of personal media. In the modern society that emphasizes individuality and diversity, the importance of "personal comment" is growing gradually and "the personal media" is the key of its change.

There are lots of attempts to induce citizens to participate through personal media i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as well. In the past, city parks used to be designed and operated only by the experts. Now, however, we are taking a communicative method and management that accepts all citizens' ideas through various media and it makes people get more interested in the city park. From all these perspectives, this study assumed that there are high correlations between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 in Seoul Forest and the act of posting their opinions on the personal space. By adding value to "Space", it could be forming "the sense of place." Seoul Forest had been chosen as a research site because it has a long story and identity and it will lead more various micro-discourses and "the sense of place."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the micro-discourse from the personal media that reflects citizens' actual opinions of Seoul Forest without any interventions of experts. Furthermor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especially, discourse analysis was adopted to analyze the micro-discourse about Seoul Forest in a time series. Based on derivation of micro-discourse,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the sense of place" that citizens express their feelings and experiences of Seoul Forest through personal media and analyze them with two perspectives.

First of all, from the beginning development of the Seoul Forest to the present, it is divided into four time periods along with individuals' micro-discourse with social changes. The beginning development of Seoul Forest, the social-discourse was formed and it was reflected by citizens' political views. The next period, in 2007 to 2008, micro-discourse was developed with more emotional and complex discourse. It includes the opinion from the change of influx of the green landscape, the satisfaction from the changed atmosphere with a dense forest or the comparison with domestic and foreign parks. In the formative period, four or five years later, the discourse reflected civic conscious development more than ever showing the diversity of participating program at Seoul Forest, its involvement and its satisfaction. In the growth period, as the users' experiences had been accumulated, the users started to writing about the role of Seoul Forest in their own words because now the role of the park is including culture itself. It is called place-discourse.

From the individuals' micro-discourse, this study shows the discourse structure how individuals think about Seoul Forest in each time period. In addition, to understand more specific stories about the park,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sense of place." Two reading the sense of place were found: the reading the sense of place such as the purpose of visiting, experienced objects and the users' thoughts and the reading the sense of place which is formed by each space of Seoul Forest. Through this, this study described what actual users of Seoul Forest like or what they do not like regarding certain spaces and how they feel about it. It provides more effective and specific perspectives of users. Moreover,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of designing other parks afterwards and it could figure out the actual users' perspectives without any intervention of experts.

By summarizing the factors from the drawn sense of place, three parts of the sense of place were found: a sense of place from visible landscape, a sense of place formed by human activities and a sense of place through comparing with other places. Moreov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 sense of place as a micro-discours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expert to compare.

It showed the various fields of discourses and the value of Seoul Forest but there was no discuss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l users and Seoul Forest. Unlike the experts, the micro-discourse contains more specific and daily interactions, experiences and stories of individuals who actually use the parks and it showed how the users reproduce and understand the space. In this respect, it is the most significant finding of this study.

Based on this research,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emotional description of the place actually functions as a discourse about city parks and confirmed that the personal media could be used as a place to form the discourse. In accordance with these results, this study described that not only the discourse of experts but also the discourse of the individuals' sense of place can be an important part of the discourse of the modern city park.

The modern parks have been only dominated by the experts. However, to figure out the diverse sense of place given by the park city users is corresponding to the recent design trend that emphasizes on the procedure and changes of the city park. Especially, this study will be the significant discussion i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that finds the communicative method in operating and managing the parks.

- Keyword : Personal Media, Discourse Analysis, Micro-Discourse, Sense of Place, Participation of Citizen, Seoul Forest
- Student Number : 2011-23951